



7

1991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7호

(루게 525)



## ◆◆◆◆◆◆◆◆ 차 례 ◆◆◆◆◆◆◆◆

백두산시절 .....	4
은 정 .....	5
노래가 막힌 무대 .....	14
주추돌 .....	15
한마디 말속에 .....	16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	17
통일이 온다 .....	18
그이를 노래하노라 .....	18
첫자욱 .....	19
무용표기법에 깃든 사연 .....	20
승리한 전선길에서 .....	22
계 승 .....	23
시대의 넋과 시인의 심장 .....	36
나의 평양이여 .....	41
푸른 기슭에서 .....	42
조국의 첫 아침을 맞으며 .....	44
잡지 《조선문학》과 45년 .....	45

당을 따르는 길에 .....	50
강변의 버드나무 .....	51
청춘기 .....	61
우리의 행복을 두고 .....	62
불 빛 .....	64
우리 시대 여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 .....	65
승 리 .....	71
1 분간을 위하여 .....	72
만물상 (외 1 편) .....	78
그 이름 몇이더냐 .....	78
《땅멀미》 .....	78
봄비내리던 날 .....	79

# 백두산시절

주광남

끝없이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길  
험한 고개 넘으시려 할 때  
산이 높다 아뢰이면  
수령님께선 말씀하시더라  
백두산보다야 높겠느냐고

분계선마을 눈바람속에서  
오래도록 남녘땅을 굽어보실 때  
날이 사납다 아뢰어도  
수령님께선 말씀하시더라  
백두산 눈보라처럼 차겠느냐고...

어려울적마다 못잊어 외우시는  
백두산시절  
즐거운 날에도 추억하시는  
백두산시절

그것이 아니던가  
혹한과 굶주림...  
피어린 싸움과 눈속의 행군...  
인간의 상상으로도 다 가늠 못할  
그 고난과 시련의 시절

그것이 아니던가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이기에  
생 눈을 삼키고 풀뿌리를 씹으면서도  
쓰러질 줄 몰랐던 그 걸음  
차라리 죽는것이 편할적에도  
죽을수 없었던 그 신념과 의지를 키운 시절

오, 그 시절에 사는 마음이었어서  
생신날마저 잊으셨던가  
그날에조차 공장과 농장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

정녕 그 시절에 마음 두고계시여  
이슬 젖은 두렁길은 오히려 즐거우셨던가  
이런 길은 한평생 걸어도  
싫지 않겠다 하시던 말씀이여!

가르치시여라  
공장의 일꾼들을 만나시여도  
지휘관이라 부르시며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일하라고,  
이끄시여라  
경제건설의 새 작전 퍼실 때에도  
전투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 인민을 격전으로 승리로

오로지 조국의 번영을 위해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머리에 흰서리 짙어가는 오늘까지  
아버이수령님 한평생  
좌우명처럼 외우시는  
백두산시절

오늘은 우리모두를  
그 시절에 살게 하더라  
어려울 땐  
용맹을 뽐여주고 의지를 키워주며  
즐거울 땐  
누리는 행복 값높이 되새겨주며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아 백두산시절!  
백두산시절!

## 은 정

김정길

한여름의 중낮이었다.

아미르병원 원장 끈쓰판진 이싸꼬브는 칠순이 지난 로인답지 않게 안절부절하며 방안을 거닐다가 창가에 가 섰다.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장미와 정향나무꽃 향기가 진하게 풍겨오고 울 넘어 둔덕밑으로 아득히 펼쳐진 풍요한 들판은 해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변색되고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지금 개운하지 않았다.

사흘전까지만 해도 그는 더없는 기쁨과 무한한 행복의 세계에 잠겨있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제네바에서 걸어온 국제전화는 원사이며 교수이며 박사인 이싸꼬브원장의 온 넋을 강그리 사로잡았었다. 그가 한생을 바쳐 연구한 불치의 병 조기치료법이 세계의학계의 공인을 받아 과학토론회에까지 출연하게 된 것이었다.

축하와 꽃다발, 장내가 떠나갈듯한 박수소리, 만세와 환호성...

그 연단은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최대의 명예를 안겨줄 절정의 자리로 될것이 틀림없었다.

한데 뜻밖의 소식이 그에게로 날아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 동지의 명함으로 입원을 의뢰해왔던 것이다.

이싸꼬브원장은 아연했다.

(그이께서 자신의 명함으로 입원신청을?... 입원할 환자는 대체 누구일가?)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통큰처럼 고개쳐오르기 시작한 그의 마음은 의혹과 위구, 불안으로 소용돌이쳤다.

이싸꼬브원장은 조선전쟁에 의료단성원으로 참가하여 박현무와 함께 일하다가 귀국한터여서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지니고있었다.

이싸꼬브원장의 눈앞에는 그이의 예지로 빛나는 안광과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오면서 조선전쟁에 참전하여 목격한 잊을수 없는 일이 년륜처럼 쌓인 추억의 갈피속에서 선히 떠올랐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으로 나가시었다.

최고사령부의 몇몇 작전일군들과 함께 이싸꼬브도 박현무와 같이 동행했다.

그는 기뻐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최전선으로 나가시면서도 이싸꼬브와 박현무에게는 련대군의 소에 들어와있는 환자들을 돌보라고 이르시였기때문이다.

그들은 **김일성** 동지의 신변이 넘겨되어 그이께 자기들의 심정을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허허... 그러지 마십시오. 백만관동군의 총알도 날 피해 달아났는데 그까짓 미국놈의 탄알이 감히 어찌지 못합니다.

선생들은 여기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이싸꼬브는 **김일성** 동지께서 몇명의 작전일군을 데리고 최전선으로 떠나가시자 련대군의 소에 들어와있는 환자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기 시작했다. 그러느라니 시간이 퍼그나 걸리었다.

그들이 다리에 부상당한 농민출신의 환자까지 치료하고 잠시 다리쉬을 하며 군의소장방에서 담배를 붙여물 때였다.

한 부상병이 담가에 실려 들어왔다. 나이가 이제 겨우 스무살이 되었을가말가한 그 전사는 사경에 처해있었다.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대퇴부에 여러개의 파편이 박힌 전사의 가름한 얼굴은 하얀 밀랍같았다.

당장 수혈이 필요했다. 그런데 련대군의 소에 있는 혈장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사단군의 소에 혈장을 가지러 갔다오는 시간이면 전사가 잘못될수도 있었다.

이싸꼬브는 죽은듯이 누워있는 나 어린 전사의 피기없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 불었다.

그때 군의소내 간호원들과 환자들이 달려왔다. 어떤이는 쌍지팽이를 짚고...

성별이며 나이며 직급이 전혀 관계없었다.

《내것을...》

《나의것은 그 전사에게...》

《난 〈O〉 형이요.》

동지를 위하는 그들의 뜨거운 심장은 하나로 고동쳤다. 하나! 그렇다. 그것은 오직 하나였다.

이싸꼬브는 자기도 모르게 랑볼로 흘러내리는 후더운 눈물을 입술로 감쌀며 실박한 자기의 팔을 걷어올렸다. 그러나 그는 뜻을 이룰수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가 집도하겠다고 나섰다.

군의소장이며 박현무가 그것마저 만류했다. 하자 이싸꼬브는 목이 메어 말했다.

《여러분, 나의 심정도 좀 이해해주시오. 내가 무엇때문에 조선전선에 의료단성원으로 자진하여 나왔겠소. 내가 왜 의학을 공부했겠소. 그래 나는 보고있어야만 옳소?》

꺼멧게 질렸던 살집 좋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불처럼 내뿜는 그의 말을 누구도 막을수가 없었다.

이싸꼬브가 한창 수술을 하고있을 때 최전선에 나가셨던 **김일성** 동지께서 련대군의소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싸꼬브가 무명고지를 지켜싸우다 중상당한 전사를 수술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수술이 끝나기를 밖에서 기다리시였다.

맑던 하늘이 갑자기 뿌얘지더니 가는 채로 치듯 가랑비가 줄금줄금 내리기 시작했다.

수술은 두시간나마 걸리였다.

이싸꼬브가 수술을 끝내고 이마에 흥건히 내뿜 땀을 훔치는데 군의소장이 다가와 귀뜸했다.

《이싸꼬브선생,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 선생의 수술이 끝나기를 두시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그이께서 두시간씩이나 기다리시다니... 지금이 어떤 때이기에...)

깜짝 놀란 이싸꼬브는 위생복을 와락와락 벗어붙이고 황황히 수술장밖으로 달려나갔다.

어깨에 방수포비옷을 걸치시고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계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싸꼬브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수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된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치하하시고나서 담배를 권하시며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런데 선생은 사경에 처한 우리 전사를 어떻게 손수 수술할 용단을 내렸습니까?》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 그것은...》

이싸꼬브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떠듬거리며 흥분

한 목소리로 그이께 대답올렸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로선... 차마... 그냥 서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참으로 동지적우애심이 강한... 영웅적인민입니다.》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 말에 공감을 표시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형제간에는 화목하고 이웃간에는 우의가 매우 깊은 인민입니다. 하물며...》

그이께서 무슨 말씀인가 더 하시려다가 그만두시고 이싸꼬브를 자애넘친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이싸꼬브선생이 오늘 나의 귀중한 전사를 성의껏 치료해준것은 고귀한 국제주의정신의 발현으로서 인간이면 그 누구든 값높이 사야 할 동지애의 모범으로 됩니다.》

...

끝없이 깊어지던 그의 회상은 키가 크고 얼굴이 기름한 직일의사의 출현에 그만 동강이 나고 말았다.

《원장선생님, 국제전화입니다.》

《알겠소.》

그는 곧 방을 나섰다.

송수화기를 들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반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왔다.

《예, 건강합니다.》

이싸꼬브원장이 대답했다.

《원장선생, 발표할 논문은 다 준비되었겠지요? 어느날 여기에 도착하겠는지 알고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어느날 도착하겠는가구요?...》

그는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 미안하지만 이번 과학토론회에는 참가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장선생,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쉽사리 차례지지 않는 그런 영광의 연단을 마다하다니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피치 못할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중대한 일이...》

《유감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중대한 일이 생겼다면 할수 없지요. 다음기회로 미룰수밖에...》

《고맙습니다.》

이싸꼬브는 송수화기를 놓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비행장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 박두했다.

그는 병원마당으로 달리다싶이 걸어나갔다.

밖에는 병원내 유능한 박사며 간호원이 구급차에서 대기하고있었고 자기의 승용차에도 발동이 걸려있었다.

《가기요.》

이싸꼬브는 윤기가 흐르는 까만 《벤즈》에 육중한 몸을 실으며 지시했다.

승용차와 구급차는 비행장을 향하여 탄탄한 포석도구를 쏘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비행장에는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 일군이 나와있었다.

이싸꼬브는 한발 먼저 나온 그들에게 머리를 가며 숨어보이고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환자란 어떤 사람인가?... 혹시 그이께서... 아니, 아니다... 그럴리 없다...)

그가 번거로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데 문득 비행기의 동음이 어딘가 멀리서 아슴푸레하니 들리더니 점차 크게 들려왔다.

이윽고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새긴 특별비행기가 친구름이 점점이 떠있는 푸른 하늘에 나타났다.

그는 높뛰는 마음을 더욱욱 조이며 특별비행기를 주시했다.

비행기는 해빛에 동체를 번쩍이며 가없이 펼쳐진 비행장상공을 한바퀴 선회하더니 세찬 바람을 풍기며 착륙했다.

비행기문이 활짝 열리고 승강대가 드리워졌다.

앞서내리는 사람은 보통기에 얼굴이 수척하니 눈이 어글어글한 중년의 남자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 국장인 박현무가 뒤에서 그를 부축해주고있었다.

이싸꼬브는 직업적인 타성으로 앞서내린 사람이 환자임을 직감적으로 알아보았다.

특별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은 그들 두사람이 전부였다.

이싸꼬브는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눈 박현무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서서 기다릴수가 없어 빠른 걸음으로 마주 걸어나가 그를 뜰째 포옹하며 다급히 물었다.

《국장선생,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박현무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전에 얼른 대답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수령님께서 원장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 그렇습니까!》

이싸꼬브는 눈을 빛내며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존경하는 그이께서 건강하시다니 마음이 폭 놓이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려면...)

하지만 환자를 바라보는 이싸꼬브의 심신은 다시금 긴장해졌다.

그는 이번에 아미르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최준식이라고 간단히 소개하는 박현무의 말을 들으며 자기앞에서 중년의 사나이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는 최준식이라도 당과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김일성 동지의 친척일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것은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입원을 신청하고 그 부인이나 가족, 친척들이 와서 치료를 받거나 혹은 국가의 요직에서 일하는 일군이 입원했다가 간 례가 적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국장선생, 환자의 병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싸꼬브가 라틴어로 물었다.

《진찰해보시면 알겠지만 제 보기엔... 빨리 손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박현무 역시 라틴어로 진단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싸꼬브는 구급차를 타고온 의사에게 급히 무엇이라고 지시를 주고나서 최준식을 구급차에 태웠다. 그리고 자기는 박현무와 같이 까만 《벤즈》에 탔다.

구급차는 차체우에 빨간 불을 켜고 사이렌소리를 다급히 울리며 앞서고 승용차는 그뒤를 따라 무연하게 펼쳐진 황금빛 밀밭을 옆에 끼고 곧게 뻗은 도로로 달리기 시작했다.

바람결을 타고 생기발랄한 처녀들의 멋들어진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황금빛 전야만 끝이 없나요

우리네 사랑도 끝이 없다오

이 일터에서 정든 나의 파랑논

...

차안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대조를 이루는 그 노래소리를 귀등으로 흘리며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지나가는 풍년든 작황을 내다보던 이싸꼬브가 박현무를 보며 불쑥 입을 열었다.

《국장선생, 우리가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최전선으로 나가다가 련대군의소에 떨어졌던 일이 생각납니까?》

《아, 생각나다뿐입니까? 눈에 선합니다.》

《그 전사는 그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장선생이 수술한 그 전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 군사대학을 나오고 지금 인민군련대장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이싸꼬브는 머리를 끄덕이며 화제를 바꾸어 앞차에 타고가는 환자의 치료정형에 대하여 물었다.

박현무는 간단히 대답하고나서 앞에서 달리는 구급차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그러한 그의 눈앞에는 최준식을 여기로 데리고 오기까지 조국에서 있었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박현무는 의학대학병원에서 돌아오는 길로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의 마음속 시름을 보여주듯 코와 입으로는 청술을 땀 굴뚝에서마냥 담배연기가 쏟아져나왔다.

평양의대병원에 올라와서 진행한 조선소책임기사 최준식의 검진결과가 남포시병원에서 한것과 꼭 같았기때문이었다.

사실 그것은 의학과학의 견지에서 볼 때 너무나도 응당한 귀결이었지만 박현무는 남포에서 평양으로 최준식을 데리고 올 때까지만도 그런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하나 바라고바라던 그 기원은 한갓 풀잎에 맺혔던 아침이슬이 되고말았다. 그 어떤 허위나 비진실과도 높다란 담을 쌓고 지내는 평정한 의학은 예리한 수술칼마냥 박현무의 기원을 사정없이 잘라버려 바다의 물거품처럼 멀리 밀어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종적인 검진결과를 아시면 얼마나 심려하실가.)

박현무의 머리에는 문득 며칠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로 하신 심려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 오늘 선박부문사업을 료해하다 최준식동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소. 그런데 어쩐지 그 말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단말이요. 그곳 시병원의사들이 혹시 진단을 잘못내릴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니 평양병원에 데려다 다시 검진하도록 하시오. 그 결과에 대하여 박현무동무가 직접 나에게 보고하시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7월의 열풍에 가볍게 날리는 파란색 나이론카텐을 바라보던 박현무는 손끝이 따끔거려서야 담배를 갈아댔다.

그가 갈아댄 담배를 다시금 깊이 들이빠는데 책상우에 놓인 하얀 전화기가 따르릉하고 야무지게 울었다.

박현무는 담배를 얼른 재털이에 비벼끄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리는것 같은 정부교환수처

녀의 유난히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박현무국장동지 계십니까?》

《예, 납니다.》

《국장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로 말씀이 계십니다.》

박현무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으나 전쟁시기 최고사령부의 군의로 복무하던 그 나날처럼 옷깃을 얼른 바로잡고나서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쳐들었다.

잠시 전류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속에 쿵덕 쿵덕하는 렬차의 고르롭고 규칙적인 음향이 숨배여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동해안지구를 현지지도하기 위하여 떠나셨음을 알고있는 박현무는 그이께서 지금 렬차집무실에서 전화를 하고계심을 직감했다.

《박현무동무요?》

위대한 수령님의 기백에 넘친 활달하고 우렁우렁한 음성이 송수화기를 꼭 메웠다.

《수령님, 박현무 전화받습니다. 그간 안녕하십니까?》

《허허, 나야 늘 건강하지. 그래 동무의 몸은 어떻소?》

《별일 없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박현무는 그이의 자애에 넘친 물으심에 눈시울이 사뭇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느때나 각근히 돌봐주는 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었다가 다시 이으시였다.

《박동무, 최준식동무를 평양에서 다시 검진해봤소?》

《수령님, 여기 병원의사들도 검진해보고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동무도 직접 해봤단말이지? 그것 참 잘했소. 그래 결과는?...》

수령님의 어조에는 시병원의사들이 검진한것과 달랐으면 하는 기대가 어려있었다.

박현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내쉬고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음... 그렇단말이지.》

수령님께서는 침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박현무는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는 보건일군으로서의 자신의 무능



력이 참으로 한스럽고 죄스러웠다.

《박동무, 최준식동무가 자기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소?》

《아직은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았습시다.》

《잘했소. 최준식동무가 자기의 병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되면 선박건조장을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순간도 쉬려 하지 않을거요.》

《그렇습시다. 그는 저더러 시병원에서 진찰을 해봤으면 되었지 왜 평양까지 데리고 와서 검진을 하느냐며 막 야단입니다.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대형선박을 못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여기에 와있으면 배는 누가 건조하겠느냐면서 당장 남포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거요. 그 동무는 일단 일에만 들어서면 자기 몸은 전혀 생각지 않고 냅다 미는 성미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었다가 다정한 목소리로 이으시었다.

《박동무, 최준식동무의 병이 일단 확진되었으면 그런 병치료에 경험이 있는 외국병원에 입원을 신청해야 하지 않겠소?》

《수령님, 최준식동무와 같은 특이한 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데는 세계적으로 오직 아미르병원뿐입니다. 그런데...》

박현무는 뒤말을 잊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왜 무슨 일이 제기되오?》

박현무는 그래도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주땀겨렸다.

그것은 그리 크지 않은 그 병원이 국가수반급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사며 교수들을 입원대상으로 하고있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병원의 입원치료비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비쌌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시원시원하면서도 매사에 빈틈이 없는 박현무가 선뜻 말을 못하고 주땀겨리자 먼저 자신의 의향을 내놓으시었다.

《박동무, 동무는 혹시 그 병원의 입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러고있는게 아니요?》

박현무는 자신의 심정을 환하게 꿰뚫어보시는 그의 정확한 통찰력과 예리한 판단력에 다시금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숫저운 목소리로 나직이 대답올렸다.

《수령님, 그렇습시다.》

《그렇다?...》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웃으시더니 어머니가 잘못

을 저지른 자식을 타이르시듯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박동무, 그러면 안되오. 혁명동지를 위한 일인데 무엇을 주저하며 망설일게 있소? 난 최준식동무의 병만 고칠수 있다면 우리 나라의 금을 다 준대도 아깝지 않겠소. 우리 나라의 금을 다 준대도 말이요.》

박현무는 불덩이같은것이 목으로 옥 치밀어올랐다.

《수령님!》

격하여 부르짖는 그의 눈귀로는 막혔던 보물이 터진듯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길로 국제전화를 신청한 박현무는 전화가 나올 때까지를 종내 기다려내지 못하고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커다란 걱정을 안고서 최준식이 있는 병원으로 냅다 차를 몰아갔다. 자기 방에서 병원에 시내전화를 걸수도 있었지만 그렇게나 해가지고서는 마음속에 고쳐치는 흥분을 도저히 꺾낼수가 없었던 것이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코마루가 덩실한 최준식의 넓은 어깨를 부여잡고 뿔뿔이는 가슴을 비벼대야 불같이 달아오른 심장을 좀 누착힐수가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병원에는 최준식이 대신 그가 남긴 종이 쪽지가 박현무를 기다리고있었다.

박현무는 키가 큰 원장이 미안쩍게 내미는 쪽지편지를 꺼들었다.

《국장동지, 저에 대한 관심이 이만저만 크지 않은 국장동지를 만나뵙지도 않고 남포로 내려가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손탁이 센 국장동지한테 꼭 붙들릴것만 같아 겁이 나서 그냥 갑니다.

국장동지, 지금 제가 있을곳은 여기가 아니라 선박건조장입니다.

저의 병은 국장동지도 아시다싶이 그닥잖은것입니다. 병이 도지면... 후에 입원치료를 받겠습니다.

부디 급히 떠나는 저의 심정을 리해하여주시 바랍니다.

1968년 7월 20일

최준식 드림》

박현무는 자기를 만나지 않고 조선소로 내려가버린 최준식의 처사가 고깝기도 했지만 한편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박현무는 병원을 나와 곧 자기방으로 되돌아왔다. 신청한 국제전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애연가인 그는 자리에 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 앉아배기지 못하였다. 마음이 건잡을수 없이 들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준식동무의 병만 고칠수 있다면 우리 나라의 금을 다 준대도 아깝지 않겠소.》 라고 하신 말씀이 귀전에 살아났다.

(최준식이나 나나 우리 인민은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가!)

그가 흥분에 휩싸여 방안을 오락가락 거닐고있는데 전화기가 야무지게 울리였다.

신청한 국제전화가 나온것이였다.

《아미르병원 이싸꼬브원장선생이십니까?

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 국장 박현무입니다.》

박현무는 인사말을 주고받고나서 아미르병원에 입원시킬 환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국장선생, 그런데 저... 지금은 입원실침대가 다 차와서...》

꾸밈없는 이싸꼬브의 나직한 목소리에는 박현무의 청을 선뜻 들어주지 못하는 죄송함이 짙게 어려있었다.

박현무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러나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부탁했다.

《원장선생, 입원실침대를 어떻게 좀 조절할수 없겠습니까?》

이싸꼬브원장의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국장선생, 정말이지 일이 딱하게 되였구만요. 입원실이 다 찬데다 나도 외국출장이 제기되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전화를 놓은 박현무는 마치 아스라하게 높은 절벽앞에라도 선듯 눈앞이 아득했다.

그에게는 미안하다는 마감말이 꼭 사형선고처럼 들려 자기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아, 그러면 최준식을 이제 더는 구원할 길이 없단말인가.)

박현무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짝 움켜쥔 주먹으로 동가슴을 쳤다.

그의 어둡고 침침한 마음인양 맑고 푸르던 하늘이 갑자기 무거운 비구름에 싸여 그믐밤처럼 컴컴해졌다. 이어 뱀의 허바닥같은 시퍼런 번개가 장막을 찢 가르고 천지를 들었다놓는 우뢰소리가 《짜르릉》 하고 울렸다. 그러더니 채찍같은 소나기가 대지우로 암팡지게 쏟아져내렸다. 하늘과 땅은 거대한 비줄기로 이어졌다.

박현무는 사나운 비바람에 여닫기는 창문을 걸 생각조차 까맣게 잊고 정신나간 사람마냥 방안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 다음날 저녁 박현무는 동해안지구를 현지지도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급히 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연추를 단듯 무거운 걸음걸이로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깊은 생각에 잠겨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던 수령님께서 박현무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수령님... 정말 뵈올 면목이 없습니다.》

박현무는 인사를 정중히 올린후 머리를 깊이 숙이며 떨어지지 않는 입을 간신히 열었다.

《일이 뜻대로 안된게로구만.》

수령님께서 박현무에게 친절히 자리를 권하시며 너그럽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저... 최준식동무의 입원신청은...》

박현무가 어쩔수없는 가책을 통감하며 실태를 그대로 보고드리려는데 수령님 집무탁우의 전화기가 울었다.

《허, 이 전화기가 손님이 온것도 통 모르는구만. 인사불성인데...》

수령님께서는 박현무의 그늘비긴 어둡검검한 뉘색을 다소라도 가서주고싶어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고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예, 예멘정부대표단과의 접견날자와 시간? ...그렇게 하시오.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일단 약속한 시간이야 지켜야지. 다른 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그들을 만나주겠소.》

그러시고는 며칠후에 하게 될 구바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과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대표단 접견도, 기네공화국 군사대표단 접견도 이미 지시한대로 하라고 말씀하신후 수화기를 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수화기를 놓으시듯마듯 그옆의 전화기가 또 울었다.

그이께서는 그 전화기를 드시였다.

그때 책임서기가 무슨 문건인가를 한아름 안고 들어왔다.

수령님께서는 박현무더러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눈짓으로 이리시고나서 책임서기가 들고온 문건에 활달한 필체로 수표를 하시며 송수화기에 대고 말씀하시였다.

《교육상동무요? 예,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정형에 대한 료해를 창성군 약수중학교에 나가서 하겠다?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료해를 결발림식으로 하지 않도록 료해성원들을 실속있는 일군

들로 꾸리시오. 알겠소. 나도 짬을 내어 꼭 약수증 학교에 나가보겠소.》

수령님께서는 교육상에게 지시를 주시고나서 발 끝걸음으로 문가로 걸어가는 책임서기를 부르시었다.

《책임서기동무, 내 방으로 오는 전화를 10분동안만 중지시키시오. 국장동무와 영 말할 틈이 없구만.》

《알겠습니다.》

책임서기는 깅듯이 인사를 올리고 집무실을 나갔다.

...

《국장선생, 병원에 다 왔습니다.》

이싸꼬브의 말에 박현무는 회상에서 깨어났다.

승용차는 록음이 우거지고 경치가 수려한곳에 자리잡고있는 아담한 병원마당으로 들어섰다.

달려나온 병원일군들이 일행을 맞이하였다.

이싸꼬브는 승용차에서 내리자 구급차를 타고온 의사에게로 다가가 환자상태를 물었다.

의사는 두가지 종양이 겹친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럼 환자를 진찰실로 데려가시오. 내가 직접 검진해보겠소.》

이싸꼬브는 병명을 듣자 가슴이 선뜩했으나 전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간호원에게 침착히 지시를 주고나서 박현무를 안내하여 입원실로 갔다.

이곳 아미르병원 일군들의 성의와 정성과 노력이 깃든 입원실은 훌륭했다.

활짝 피여 짙은 향기를 풍기는 화분, 푸르싱싱한 남방식물, 바닥에 깐 포근한 양탄자, 눈이 부시도록 하얀 벽...

《원장선생, 입원실이 훌륭합니다.》

《국장선생의 마음에 든다니 고맙습니다.》

이싸꼬브는 건성 대답하며 간호원을 따라 진찰실로 가는 최준식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국장선생, 우리 함께 진찰실로 가서 환자를 검진하고 협의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싸꼬브는 박현무의 의향을 물었다. 그는 박현무의 박식과 뛰어난 재능을 이미 조선전쟁때부터 알고있어 존경하고있었다.

《그렇게 합시다.》

두사람은 곧 입원실을 나섰다.

그날저녁 감빛노을이 창가에 곱게 물들무렵에야 비로소 이싸꼬브는 최준식을 수술했다.

렌트겐촬영과 혈액검사, 뇨검사를 비롯한 여러가지의 검사소견을 놓고 유능한 의사들이 모여 오랜

시간 진지하게 협의회를 했기때문이다.

박현무가 립회한 가운데 고향의 이싸꼬브원장이 집도한 수술은 무려 여섯시간이나 걸렸다. 그것은 예상밖이었다.

초긴장속에서 온몸에 미역감듯 땀을 흘린 이싸꼬브는 수술을 끝내고나자 마스크를 벗지도 못한채 그자리에 푹 쓰러졌다. 그리고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세시간을 내쳐 잤다.

《환자의 기본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현무에게 물었다.

《아직은... 좀더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렇거요.》

이싸꼬브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국장선생, 내 평생 제일 어려운 수술을 했습니다. 절개해보니 검사소견과 달리 병증상이 영 특이하고 병세가 이미 기울어진 까닭에 며칠만 더 지체했더라면 큰일날뻔했습니다.》

《원장선생, 정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공분야에 대한 높은 의학기술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이싸꼬브의 오묘하고 능란한 수술을 처음부터 마감까지 손에 땀을 쥐고 본 박현무는 깊숙이 머리숙여 사의를 표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이싸꼬브가 애들처럼 흥분하여 박현무를 찾아왔다.

《국장선생, 이런... 이런 꿈같은 일이 또 어데 있겠소.》

《원장선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현무가 영문을 몰라 다급히 물었다.

이싸꼬브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손에 든 종이를 흔들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떠들거리며 말했다.

《글쎄, 이것을 좀 보십시오. 이것을...》

박현무는 그가 내미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순간 그의 눈에 안겨오는것은 수령님의 존함이었다.

전보에는 나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인 최준식의 병치료를 성심껏 해주고있는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원장선생의 고귀하고 보람찬 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이싸꼬브는 존경하는 그이로부터 감사전문을 받은것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감개무량하여 눈물을 흘렸다.

《국장선생, 나에게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가보가 생겼습니다. 아, 인생말년에 이른 나에게 이런 특혜

가 차례지다니...》

그후 이싸꼬브는 최준식을 더 정성껏 돌봐주었으며 더 극진히 치료해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최준식을 하루 네번씩 자신이 꼭꼭 회진했으며 고가약을 아끼지 않았다.

의술은 역시 인술이었다.

둘에도 꽃을 피운다는 극진한 정성에 이싸꼬브의 높은 의학기술로 하여 최준식의 병은 달포가 지나서부터 원래의 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석달이 지나 퇴원할즈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싸꼬브는 최준식의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박현무를 찾아왔다. 그가 자리에 앉아 백발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막 입을 열려는데 직일간호원이 들어섰다.

《원장선생님, 방금전에 조선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원장선생님이 자리를 뜨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알겠소. 내 여기 있을테니 도착하면 이리로 안내하시오.》

이싸꼬브는 간호원이 깍듯이 머리를 숙여보이고 방을 나가자 박현무에게 어줍게 말했다.

《국장선생, 내 이런건 사실 묻자고 생각하지 않았더랬는데... 실례이지만 최선생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어떻게 되는 사이인가요? 그이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라고 하시는데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시는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정부의 어느 요직에서 일보는지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싸꼬브의 파르스름한 눈엔 의혹의 빛이 가득 어렸다.

《그러면?...》

《최준식동무는 우리 나라의 서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소에서 책임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이싸꼬브는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국장선생, 난 진정으로 묻고있는데... 점잖은 사람이 어찌면 그런 통담을...》

《원장선생, 이제 내가 말한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구요?》

되뇌이는 이싸꼬브의 얼굴에는 노기가 어리였다. 그때 손기척소리가 나더니 몸이 실해진 최준식이 싱글싱글 웃으며 들어섰다.

《말씀중입니까?》

《그렇소, 어서 들어오오.》

박현무는 갈증을 만난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만큼이나 기뻐 그를 반갑게 맞아들

이었다. 그리고는 방금전에 둘이 주고받은 말을 들려주었다.

《아, 그렇습니까? 원장선생님, 우리 국장동지의 말이 옳습니다. 전 조선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사입니다.》

《흠, 조선소 기사라?...》

이싸꼬브는 아무리해도 두사람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박현무와 최준식을 의의한 눈으로 번갈아보았다.

《그럼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한 조선소 기사를 위해서 자신의 존함으로 입원을 신청하셨단말이요?》

이싸꼬브의 말은 최준식의 갑작스런 물음으로 동강이 났다.

《원장선생님, 말씀중에 미안하지만...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를 입원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존함으로 이곳 병원에 입원을 신청하셨다고요?》

《그렇소.》

이싸꼬브의 말에 와뜰 놀란 최준식은 박현무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국장동지, 그게... 그게... 정말입니까?》

박현무는 조국을 떠날 때 수령님께서 최준식의 병이 호전되기전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사연이었지만 더는 가슴속에 묻어두고있을수 없어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최동무, 그건 사실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대병원에서 동무가 쪽지편지를 써놓고 남포로 내려간것을 아시자 시당책임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평양으로 올라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셨고 아미르 병원에 침대가 다 차고 없다는 나의 보고를 받으시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오래도록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최준식동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살려내야 합니다. 그 동무는 참 훌륭한 일군입니다. 선박공업을 한계단 추겨올리기 위하여 내가 천톤급, 만톤급의 배를 무을데 대한 문제를 몇년전에 제기했을 때입니다. 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포조선소에서 선박부문 일군협의회를 열었었습니다. 처음으로 못는 배라 일감은 방대하고 난관과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도 새로 해야 하고 현도장과 선대도 늘쿠어야 하고 기중기도 더 크게 만들어 세워야 했습니다. 토론에 붙이니 누구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최준식동무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수령님, 저희 조선소에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배를 무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나 일을 세판게 내밀었는지 꼭 1년만에 대형선박을 무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 당이 키워낸 지식인인데 기술과 정열이 겸비된 동무입니다.

박동무, 그 아미르병원에 내 이름으로 신청하시오, 알겠소? **김일성**의 이름으로 말ियो.)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박현무는 그때의 감격과 흥분이 되살아나는지 눈으로 수건을 가져가는데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방안을 한참이나 거니시다가 〈박동무, 아무래도 동무가 최준식과 같이 그 병원으로 가야겠소. 동무에게 긴급한 일이 많이 제기되고있는줄을 내 모르는바 아니지만 동무가 그곳으로 가야 내 마음이 좀 풀릴것 같소. 가서 조선전쟁에 의료단 성원으로 참가하여 수고한 이싸꼬브원장선생에게 나의 인사를 전하고 수술립회도 하며 기술실무도 높이시오. 갈 때는 꼭 특별비행기를 타고 가시오.〉 라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일일이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이싸꼬브는 흑흑 흐느끼는 최준식을 보며 마음속에 차넘치는 크나큰 걱정으로 하여 어깨를 들먹이였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였다. 문가에는 직일간호원과 면목있는 조선대사관 일군이 서있었다. 일군은 방안의 세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나서 이싸꼬브에게 정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원장선생에 대하여 하신 전화말씀을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그이께서... 그이께서... 저에게 말씀이 제셨다구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보로는 도저히 긴말을 할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원장선생이 최준식동무를 구완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원장선생이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학과학토론회에도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최준식동무의 아주 특이한 병에 대한 검진과 여러 시간에 걸친 협의와 수술, 치료과정을 통해 원장선생이 연구론문을 더 풍부히 하였다는것을 말씀올리자 수령님께서는 그렇다면 다소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원장선생이 지난 전쟁때에도 조선인민을 위해 수고가 많았고 이번에

도 수고가 많았는데 서로 만나 회포도 나누고 경치 수려한 금강산에서 휴식하며 피로도 풀겸 조선에 꼭 한번 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 고맙습니다. 정말...》

이싸꼬브는 그이의 하해같은 은정과 사랑에 목이 꺾 메여 뒤말을 잊지 못하였다.

(아, 세상에는 나라마다 수령이 있지만 인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인민을 친혈육으로 여기시는 **김일성** 동지같은신분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람중심의 사회를 세운 그이는 진정 령수중에 령수이시고 위인중에 위인이시다. 그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이들,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한마음한 뜻으로 희망에 넘쳐 살아가는 조선인민은 정녕 그 얼마나 행복할가.)

이싸꼬브는 대사관일군과 박현무, 최준식을 번갈아보며 갈린 목소리로 띠엎디엎 말했다.

《당신들이 부럽소.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의 품에 안겨사는 당신들이 정말 부럽소. 내 이미 70고령을 넘긴 몸이지만 인생의 첫 걸음을 이제부터 떼려요.

국장선생, 최선생의 입원비와 치료비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좋소. 오히려 인간생명의 참된 기사로 여생을 빛나게 살도록 해주신 **김일성** 동지께 내가 심심한 감사를 드려야겠소.》

《원장선생, 고맙습니다.》

《고맙긴... 인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운 세계가 우러르고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이시오. 조선에 돌아가거든 의술로 한생을 살아온 이 늙은이의 마음도 합쳐 부디 그이를 천세만세 잘 모셔주소.》

《원장선생!》

박현무와 최준식은 이싸꼬브의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않으려는듯 굳게 잡아쥐었다. 이싸꼬브도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위대하고 위대하신 **김일성** 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참다운 인생길을 걷게된 그들을 축하하듯 하늘에선 유난히 밝은 해가 파사로운 빛을 한껏 뿌리며 환히 웃고있었다.

×

그때로부터 어언 다섯해가 지나갔다.

조선을 방문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일에 다물려 통시간을 낼수 없었던 이싸꼬브원장은 이해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를 크나큰 감격속에 만나뵈

온 그는 천하절승 금강산에서 한달이라는 기간을  
꿈속에서처럼 흘러보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 남포시군중대회에 참가하였다.

그의 옆에는 박현무와 그사이 남포조선소 지배인  
으로 성장한 최준식이 릉름한 자세로 서있었다.

초대석에 자리를 잡은 이싸꼬브원장은 만면에 환  
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석단에 서계시는 존경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손에손에 향기 그윽한 꽃다발  
을 들고 발을 구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절절히 부르짖었다.

(아,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와 그이의 두리에 혈연  
적으로 련결된 저 사람들! 주체철학이 참된 삶으로  
활짝 꽃핀 이 땅에 태를 묻고 태어난 이 나라 사람  
들은 정녕 얼마나 행복한가!)

자랑스레 백발을 쓸어넘기는 이싸꼬브원장의 수  
북한 장미아래서 감격에 젖은 한쌍의 눈이 무한한  
정열로 활활 불타고있었다.

## 노래가 막힌 무대

남시우

잊을수 없네  
막이 오르고  
연주가 시작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있건만  
나의 눈앞에는  
그날의 무대 뚜렷이 떠오르네

넓은 무대  
조명을 받은 독창가수  
은은히 흐르는 관현악의 선율  
만감의 정을 담아  
가수는 노래허두를 떼엿건만  
그만 왈칫 목이 메였네

그리고는  
물결인듯 이어지는 반주  
격해진 가수의 흐느낌소리  
억제 못하는 어깨의 파동!  
숨을 죽인듯한 장내의 침묵

갑자기 보물이 터진듯  
뜨거운 박수 박수소리  
숙였던 머리 치켜올렸건만

가수는 노래 아닌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네

동해 만리를 넘어온 가수  
동포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아버이수령님께  
삼가 인사드리려는 영광의 무대

막은 오르고  
조명빛 한몸에 받았건만  
아, 노래가 막힌  
그날의 무대 잊을수 없네

가수야  
노래가 막힌 가수야  
어찌 선율에만 담을수 있으랴  
노래 아닌 울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정  
누를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거니

아, 수령님께서  
몇번이고 눈시울을 닦으시였네  
노래가 막힌 우리 가수에게  
누구보다 선참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였네!

## 주추돌

김형준

원쑤들의 폭격에 집들은 무너지고  
가로수도 연기속에 몸부림치는 아침  
작전도에 그으시던 색연필을 놓으시고  
최고사령부를 나서시는 어버이수령님  
포연이 자욱한 모란봉기슭을 내리시었네

방금 떨어진 시한탄과 파편들이  
재무지속에 비수같이 숨어있고  
등지않은 새무리들 향방 잃고 헤매는데  
날리는 재가루 가슴아피 뱉으시며  
불탄 거리와 마을을 찾으시네

생각도 깊으셨네 우리 수령님  
내려앉은 지붕을 바라보시며  
방금 처마에 날리던 공화국기도 보시는듯  
메워진 수도가를 에도시면서도  
너인들의 새벽웃음소리도 들으시는듯

우리 수령님 발걸음 옮기서라  
허리꺾인 버드나무 마당가에 나뒹구는  
버드나무집이라 불리웠을 집터에서  
재무지를 헤치며 주추돌을 안내내는  
장재대마을 로인을 찾아

굵은 땀방울 뜨거운 재를 적시며  
주추돌을 안내내는 로인의 일손도와  
함께 받들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로인님, 장차 폭격이 더 심할텐데  
왜 피난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도 스스럼없이 일손도와주는 고마운분께  
로인은 품은 생각 아뢰었네  
-어른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아직두 장군님께서 평양에 계시온데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채투성이 손을 툭툭 털며  
고마운분께 인사올리려 고개든 로인  
그만 굳어졌네, 허나 그것은 한순간  
그이 앞에 황망히 허리굽힌 로인  
-장군님! 이렇게 폭격이 심한데...

쿵쿵- 어데선가 울려오는 비행기의 폭격소리  
로인은 쏟아지는 눈물로 주추돌을 적시며  
애원하듯 그이께 말씀올렸네  
-장군님, 장군님께서 건강하셔야  
나라두 백성두 있는게 아닙니까

주름깊은 로인의 두볼엔  
간절한 념원 구슬로 맺히는데  
재물은 로인의 손 뜨겁게 잡으신 수령님  
근엄하신 시선 높이 드시여  
폐허에 잠긴 평양의 거리를 둘러보시여라

-고맙습니다, 로인님!  
원쑤들은 집도 나무도 수도가도  
재로 만들고 날려보냈지만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든든히 고여진  
신념의 주추돌만은 없애지 못합니다!

철의 신념으로 울리는 수령님의 말씀에서  
재를 헤치며 퍼덕이는 불사조의 녀을  
심장속에 묵적이 받아안은 로인  
흐르는 눈물 손등으로 훔치고 우러려 고개드니  
결연히 포연속을 향해 걸음옮기시는 수령님

하늘엔 비행기... 땅우엔 재가루뿐...  
이 땅 어디 성한 벽돌 한장 없어도  
로인은 수령님 우러려 심장으로 웨쳤네  
-장군님! 환히 보입니다  
장군님 없해주신 주추돌우에 일떠설  
우리 평양이... 우리 조선이...

## 한마디 말속에

양의선

출근길에서 습관처럼 신문을 펼쳐들던 나는 그 어떤 커다란 충격에 가슴을 울렁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룡연군의 열네명 프락또르운전수가정에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가 나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안겨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가정을 농촌 기계화, 혁명화, 인텔리화가정의 전형이며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이 동무들과 같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이 위력하고 우리 조국이 위대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이 확고히 담보되어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편지 한구절, 한문장이 그대로 빛발이 되고 광채가 되어 신문에서 뽀꺼나오는듯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느낌은 끝없는 감격의 격랑과 함께 내 가슴속 깊은곳에서 자책 비슷한 흥분을 불러일으키고있었다.

10여년전.

문단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나는 오늘의 이 위대한 사랑의 편지가 가닿은 룡연군종합농장 들길을 걸어가고있었다.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한 녀성프락또르운전수의 토론을 읽고 《소설감》을 찾아 첫취재길을 떠났던것이다.

봄안개 자욱한 이른새벽 포전길을 걸어가는 나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있었다. 이제 그 녀주인공과 남편, 아홉운전수를 만나면 소재로 될 가지가지 희귀한 이야기를 듣게 될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날아오르는듯싶은 형상의 나래가 벌써 머리속에서 퍼덕이고있었다.

그들은 포전 한가운데서 아침식사를 하고있었다. 어쭙게 내미는 기름물은 손길, 자리를 띄여주며 겸소한 포전식탁에 나를 이끄는 소박한 모습들에서 나는 그들과 한가족이 된듯한 흐뭇한 인상을 받았을뿐 특이한것을 보지 못했었다.

그들의 이야기도 평범하였다. 농업대회연단에서 한 토론내용 비슷한 얘기 뒤끝에 박정국동무는 기름물은 손을 걸레로 천천히 닦으며 소박하게 말했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요. 모든게 다 수령님 덕분이지요.》

사실 나는 그때 기대했던 《큼직한 이야기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었다. 물론 환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들에 대해서 꼭 쓰

리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계획은 다른 복잡한 사변들속에 묻혀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그들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고있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10년전에 만나주셨던 그 녀성운전수와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몸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었다.

자식들의 성장을 대견해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이 글줄마다 력력한 신문을 받아든 나는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 《모든게 다 수령님 덕분이지요.》 하던, 어쭙고 소박한 말속에 담겨진 큰 뜻을 깊이 깨닫지 못했었다.

이 땅 어디엘 가나 노래처럼 듣게 되는 그 말속에는 우리 인민의 참다운 력사, 사상과 감정, 생활률리와 도덕의 깊이가 다 체현되어있는것이 아닌가. 그러고보면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있어 거기에 담긴 위대한것에 대한 감각을 잃은 내가 아니었던가. 때문에 그들의 소박한 모습이며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다 잊고있었던것이다.

허나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태양과 같이 영원불멸한 따사로움이 그이의 편지속에 다 담겨져있고 바다같이 넓고 산악같이 역센 그이의 우리 인민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편지속에 담겨져있다.

《모든게 다 수령님 덕분이지요.》

나는 이땅 어디 가나 듣게 되는 이 소박한 말의 진가를 오늘에야 깊이있게 깨달은듯싶어진다.

지금 나의 귀전에는 그 소박한 말이 봄별이 질어가는 대지와 창창한 하늘에 울려퍼지는 종소리처럼 들려온다. 안개 피어오르는 들판, 그우로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태양의 빛발을 안고 넓은 들을 달리는 프락또르, 그 동음을 들으며 방금 갈아빈진듯한 기름진 이랑들을 타고넘어 그들한테로 달려가고싶다.

그러면 그들은 10여년전 그때와 조금도 변함없이 기름물은 손을 훔치며 소박하고 어쭙게 이 말을 또다시 외울것이다. 오늘의 이 영광은 다 어버이수령님의 덕분이라고...

일조물이 좋은 땅이나 숲에서 자란 나무들이 굽힘이 없고 매듭이나 웅이가 없이 태양을 향해 곧추키를 솟구듯이 이들 역시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믿음 속에서 더욱 참된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며 당의 원대한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갈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률리이며 법칙이다. 그리고 《수령님 덕분이지요.》 하는 소박한 이 한마디말은 마음속에 신념의 기둥을 안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뢰와 충성과 효성의 영원불멸한 반석이다.  
 하기에 지금 나는 이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라면 천리라도 만리라도 마다않고 가고싶은 심정이다.  
 창조, 존엄, 기적, 행복, 빛나는 앞날... 이 나라 인민의 력사와 운명을 다 담고있으면서도 천만사람의 심장속에서 것처럼 소박하게 울려나오는 말.

《모든게 다 수령님 덕분이지요.》  
 이 소박한 한마디 말속에 담긴 크나큰 뜻을 대서사적인 화폭과 교향곡으로 구가하고싶은 마음을 안고...

1991년 3월

##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리 준

평범한 선반공 나를 위해  
 이름없는 로동자 나를 위해  
 공장의 모든 부서들 움직이는듯  
 공장의 모든 사람들 뛰고 달리는듯

이 아침도 반장의 작업지령 속에  
 나는 느끼노라  
 이 하루 내 수행해야 할 대형추가공도  
 당결정으로 채택되었음을  
 간밤에도 내 일감을 두고  
 당위원회 불빛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음을

그 결정을 받들고 나를 찾아오노라  
 공장의 참모장 우리 기사장이  
 내 기대앞에 도면을 펼치며  
 내 심장에 불을 지피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대를 돌려가노라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달려오노라, 소재운반공처녀가  
 운반차의 종소리 정답게 울리며  
 찾아오노라 후방부의 파장동무  
 우유통을 앞세우고 웃음 함뱌 담고...

어제날엔 기대를 멈추고  
 발이 닳도록 찾아다녀야만 했다면  
 그 모든 부서들

그 많은 사람들  
 오늘은 나에게로 나에게로  
 찾아만 오는 생활의 즐거움이어!

오, 서른해전  
 우리 수령님 새겨가신  
 그 사랑의 자욱우에 꽃피난  
 대안의 사업체계  
 우리 식의 공산주의 기업관리 방법!

그것은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되어  
 내 가슴에 생산의 주인된 기쁨  
 경제관리의 주인된 자랑을 주어라  
 그것은 끝없는 원동력이 되어  
 기대마다 만부하의 노래를 주고  
 온 공장에 웃음꽃을 피워주어라

노래하노라!  
 생산을 책임진 로동자의 진정을 담아  
 우리 수령님 창조하신 대안체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운명처럼 기발처럼 틀어쥐고나가리

나를 위해!  
 우리모두를 위해!  
 우리의 사회주의를 위해!

# 통일이 온다

프랑쑤아

눈보라 일고 칼바람 불어치는 밤  
삼라만상이 어둠과 추위 속에 떨고  
혹한에 쫓긴 새들도 등지속에 몸을 웅크리는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어도  
그이께서만은 눈을 붙이지 못하신다  
잠시의 휴식도 잊으시고  
조국의 미래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신다  
펜을 손에 드신채  
앉으셨다가는 일어서시고  
일어섰다가는 다시 앉으신다  
밤이 깊어가는 창밖을 내다보신다  
어느덧 동녘이 터온다  
겨울해가 방안에 비쳐들제  
그이 방을 나서신다  
두손을 허리에 짚으신채 남쪽을 바라보시며  
  
근심비긴 안색 노기어린 시선

그 무엇인가를 없애버리실듯  
나라의 허리를 가로질러간 저 피물은 무엇인가  
력사유물이라도 되는가  
아니다, 그것은 장벽, 콘크리트장벽  
이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것은 민족의 수치

콘크리트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선언하셨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장애물을 짓부시는 폭탄  
하여 북남의 겨레도 세계의 량심도  
그이의 정당한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제 그 장벽은 허물어지고  
그이께서 위대한 승리 가져오시리니  
북과 남의 동포들 력사적인 상봉  
감격의 상봉을 하리  
오, 통일이 온다 통일이 온다 눈앞에  
(필자는 마다가스카르의 종교계인사임)

# 그이를 노래하노라

름푸 안쏘니 베나조

**김정일** 동지  
그이는 어떤분이신가  
그이는 항일투쟁의 불길 높던 고장  
백두의 성산에서 탄생하신분  
  
그이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나라의 모습  
깊이 헤아려보시고  
인민의 락원을 세우실 푸른 꿈 키우신분  
  
인민의 행복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였어라

웅장한 서해갑문과  
수천수만의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을  
일떠세우셨어라  
  
그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청년들  
한결같이 따르는 향도의 별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열렬히 축하하노라  
(필자는 자이르 《인류의 태양》 방송취취소조  
성원임)

# 첫자옥

정서촌

창공에 우짚던 종다리 어디에 가고  
쇠고랑소리 처량하게 비껴가던 강산이었다  
망국의 비운이 하늘의 해를 가리워  
들가에 꽃 한송이 피지 않던 엄혹한 세월이었다

그때 조선이 낳은 아들이  
첫 걸음발을 떼며 일어섰다  
조종의 산 백두의 울창한 원시림속에서  
한자옥 또 한자옥 언 땅을 디디며

다섯걸음도 채 옮기지 못하고  
힘에 겨워 아들은 주저앉았건만  
어머님은 곁에서 부추기지 않으셨더라  
스스로 다시 일떠서라고

돌뿌리에 걸쳐여 쓰러지지 말라고  
투사들은 모포를 펴 땅에 깔았으나  
어머님은 평탄한 길을 원치 않으셨더라  
혈전만리가 앞에 있다고

아, 이렇게  
백두의 흙을 묻히며  
백두의 돌에 살을 찢기며  
조선의 아들이 내디딘 첫 자옥!

사람들이여  
그대 이 땅에 태를 묻었거든  
잊시 마시라  
그리고 가장 소중히 심장에 간직하시라

험난한 세월의 비바람에도  
씻기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밀영의 고향집 옛 트랙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그 력사의 자옥을

항일의 포성을 자장가로 익히며  
백두의 만년설에도 찍었던 자옥  
장검을 비껴들고 아슬한 절정에 올라  
신념의 푸른 바위돌에도 새겼던 자옥

오늘도 그 자옥을 이으며  
위대한 아들은 진두에서 가고있나니  
그날에 울부짖던 사나운 바람으로  
온 나라에 혁명의 열풍을 일으키며

그날에 장군님 어깨에 휘날리던  
백포자락 조선의 날개 삼고  
만년대계의 언제와 창조의 기념비들을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발자옥처럼 강토에 남기며...

정녕 해 비치는  
맑은 날에도  
스산한 검은 구름장이  
모진 광풍을 몰아오는 엄혹한 날에도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백두의 적기가 하늘가에 찢쩍 울리며  
조선은 거인처럼 가고있나니  
공산주의 인류리상의 상상봉을 향하여

아, 첫 자옥  
첫 자옥  
천년이 가도 만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어

## 무용표기법에 깃든 사연

1978년 11월 30일 저녁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용표기연구사업을 또다시 지도해주시었다.

일군들은 그동안 새로 보충연구한 자료들을 보고드리었다.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무들은 지금까지 표기하지 못하던 두사람이상이 추는 춤과 여러가지 무용구도를 표기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아주 귀중한것을 많이 연구해냈다고 거듭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다. 순간 연구사들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1972년 1월 17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버이사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시대에 무용에 대한 과학적인 표기법이 없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무용표기법에 대한 신비성을 버리고 그것을 꼭 만들어낼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와 함께 무용예술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름있는 공훈예술가, 공훈배우들과 유능한 교원들을 선발하시여 무용표기연구집단을 무어주시고 친히 무용표기연구사업의 단계를 설정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무용표기연구사업은 모두 세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제1단계에서는 무용표기기초를 작성하고 제2단계에서는 단순표기, 제3단계에서는 무용총보작성법을 완성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식 무용표기창제사업을 발기하시고 그 연구완성을 위하여 정열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오시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로고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묻어두시고 전사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성과를 남먼저 헤아려주시며 보다 큰 위훈으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한없이 은혜로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넘치는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뽕게 상기된 그들을 자애에 넘치신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용표기연구사업에서 성과가 큰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었다고는 말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용표기부호의 수가 지내 많고 복잡하기때문에 그것을 외우고 실지 써먹는다는것이 간단하지 않겠다고 심려

를 담아 지적하시었다.

사실 그때 표기부호를 보면 기본부호만 해도 85개였고 기타 형상표와 생략표까지 합치면 120여개나 되었다.

연구집단은 이러한 기본부호의 수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래동안 논의를 거듭하면서도 그때까지도 이렇다할 합의를 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연구한 무용표기법의 이러한 부족점을 한순간에 꿰뚫어보신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변화를 읽으신듯 무용표기법을 구상하고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이미 창작된 무용작품들을 악보와 같이 기록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하였는데 지금 무용표기법의 기초를 마련해보니 그것을 무용창작과 보존에 활용할수 있도록 더 완성하고 통속화하는 과업이 나선다고 말씀하시었다.

신비의 예지로 사색의 깊은 바다를 펼쳐나가시던 그이께서는 무용표기법을 통속화하자면 먼저 이해하기 쉽고 표기하기 편리하게 부호들을 극력 줄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언어학에서 자모들이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루듯이 무용표기부호들도 기본적인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여러가지 형태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무용동작을 표기할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순간 일군들과 연구사들에게는 무엇인가 번뜩하며 뇌리를 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자모식?!...

자모와 같은 기본요소를 선정하고 그것을 결합해서 문자화하는것,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그렇게 모대기고 또 모대기면서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단번에 풀수 있게 하는 근본열쇠를 안겨준 위대한 발견이 아닐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오랜 옛적부터 무용동작을 표기할 생각을 품고 그 방도를 모색하여왔다.

15세기중엽 에스빠냐 세르베타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도된 무용표기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은 세계적인 판도에서 광범히 진행되어 그 력사는 무려 500여년을 기록하고있었다. 이 장구한 나날에 세계의 수많은 이름있는 무용전문가들과 리론가들이 고심여

린 무용예술을 과학화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것으로 실용적의의가 없었다.

그런데 세계 수많은 이름있는 무용전문가들과 리론가들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면서 탐구를 거듭해왔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암중모색하던 문제를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순간에 밝혀주시는것 이였다.

자모식!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인류문예사에 특기할 세계적인 발견이였다.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금시 하늘에라도 날아오를것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감동과 흥분에 젖어있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무용표기법을 통속화하자면 또한 모든 무용동작과 형상수법들을 다 어려운 부호로써만 표기하려 하지 말고 글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합하여야 한다고, 음악에서는 악보에 《서정적으로》, 《느리지 않게》, 《박력있게》와 같은 악상의 요구를 글로 표현하는데 무용표기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여기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무엇인가 생각하시던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있는 라틴어로 쓸수 있을것이라고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천천히 전시판을 돌아보시다가 약간 허리를 굽히시고 전시판에 새겨진 부호들을 일일이 살펴보신후 무용표기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통속화하는것과 함께 복잡하고 다양한 무용작품을 정확하게 표기할수 있는 과학적으로 완성된 무용표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낮으나 힘있게 울리는 그이의 확신에 찬 말씀에서 그들은 미구에 도래할 주체적무용표기법의 탄생을 온몸으로 감득하게 되였다.

끝없는 흥분과 경탄, 행복의 경지로 이끌어가 는 위대한 력사의 순간이 흐르고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러 자정이 가까와왔다.

일군들은 그이의 건강이 넘려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시종 열정에 넘쳐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할 이야기는 다했다고 하시면서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이르시였다.

누구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그들은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이께 말씀드리고 결론을 받고싶었으나 그저 마음만 조이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기회를 놓쳐 후회하지 말고 어서 제기하라고 가볍게 재촉하시였다.

그이의 너무나도 소탈한 말씀에 이끌려 한 일군은 어느덧 어려움도 잊고 춤동작의 길이와 팔가짐을 이르는 기준점을 표기하는 법 등 연구사업에서 논의들이 많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그때마다 그이께서는 제기된 문제들에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하여졌다. 그런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인가 못다주신 믿음과 사랑이 있으신듯 떠나시던 걸음을 되돌려세우며 연구집단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그들이 계속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무용표기법을 반드시 완성하도록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순간 그 일군은 가슴이 찡하게 달아올라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당과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한초한초가 새로우신 그이께서 무려 여섯시간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도 떠나는 순간에조차 또다시 크나큰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

위대한 품에 안겨사는 끝없는 행복으로 하여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눈가에서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후 그들은 표기부호를 자모화하여 그 부호들의 결합으로 모든 무용동작들을 다 표기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대로 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불과 몇달동안에 120개의 부호를 34개로 줄일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무용동작도 쉽사리 알기쉽게 기록 및 재현할수 있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새 무용표기법이 완성되던 날 연구집단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 서로서로 열싸안고 목청껏 환성을 울리며 새로운 무용표기법 연구사업을 발기하시고 그 원리와 연구방법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환히 밝혀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러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 승리한 전선길에서

김영길

경적소리도 경쾌히  
야전방송차가 달린다  
폭탄과 포탄에 파헤쳐진 전선길로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싣고  
나는듯이 달려간다

소란스러운 적기의 소음이  
해종일 몇을길 없던 저 하늘에  
우리의 비행기가 기쁨안고 날으고  
포연이 타래쳐 흐르던  
전선길가 지평선으로  
희디흰 구름송이 피어오른다

아, 승리한 7월의 이 아침  
보충을 메고  
길넉에 비켜선 전사들이  
위장한 군모를 벗어 흔들며 흔들며  
뜨거이 답례한다

포화속에 신호기 높이 들고  
야무진 호각소리 울리며  
내달는 행군서렬을 분주히 지휘하던  
나어린 교통정리원치너도  
기관단총 둘러메고  
자세를 바로잡는다

전선의 엄혹한 시련을 떠밀며  
승리로 흘러가던 철의 흐름...  
철화속에서 강철로 굳세어진  
화약내 배인 군복입은 억센 사나이들이  
어린애 마음되어  
눈굽을 적시며 듣는 목소리

승리한 전선길  
광대한 전선지구에 메아리쳐 올라가는  
최고사령부의 보도여  
-미제무력침공자들 정전협정조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아, 한몸의 피줄기가  
온몸에 산맥처럼 뻗치는듯  
전선의 고지들이 화답하며 일어선다  
포화에 상처입은 대지가

거창한 숨결로 대기를 호흡한다

준엄한 전쟁의 3년세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따라  
온 조국, 온 인민이  
싸우는 전호속에서 간직해온  
신념의 목소리여

머리 희숙한 장령도  
단발머리 녀전사도  
포탑결에서  
무선기앞에서  
이 말을 듣는다

가렬처절한 싸움의 흔적 력력한  
온 전선지구가  
그대로 승리의 열병식장인듯  
락동강 불비속을 헤쳐넘은  
근위련대와 사단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축하문을 받았어라

아, 영광의 군기들이 나뭇긴다  
화선악대들이  
승리의 전주곡을 펼친다  
하늘땅 가득  
일어번지는 감격과 환희의 파도여!  
멀리 평양의 하늘가로  
메아리쳐 올라가는 승리의 함성이여!

손길 높이 들어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영상을 뵈옵는듯  
행복에 눈이슬 젖는  
총잡은 가슴가슴들엔  
맹세의 피가 끓어라

언제나  
그 언제나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받은 전사들은  
천백번 살아서 안아오리라  
승리의 이 환호  
영광의 이 축복  
피로써 싸워이긴 전선길우에...

## 계승

장수근

평양역대기실은 언제나와 같이 번잡했다. 각이한 목적을 가지고 각이한 지점을 향해 떠난 사람들과 바래우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마중나온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가 하면 오르내리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면서 부산하게 붐비고있었다.

거기에 그들의 말소리가 한데 뒤섞여 종잡을수 없는 소음으로 천정이 높은 공간우에 떠도는데다 방송소리까지 공명을 일으키며 웅글게 퍼져 귀가 멍멍하게 만들었다.

나는 넓은 대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의자에 기대 앉은채 지그시 눈을 감고있었다. 려행길의 불편과 피곤을 예감케 하는 역특유의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버겁게 느껴지는데다 좁전에 침대표를 떼느라 신경을 둔군 일이 제풀에 몇적게 생각되면서 두루 속이 언짢았기때문이다.

침대표는 차표와 함께 옷주머니에 있었다. 그런데 별스레 마음은 평온치 못한것이다.

만일 침대표를 손에 넣지 못했다면 반대로 나는 불만때문에 지금 속을 삭이지 못하고있을것이다.

나는 번거로운 생각에서 벗어날양으로 방송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아까부터 방송은 광란적인 《팀 스피리트 91》 합동군사연습을 단죄하는 특집 기사를 보내고있었다. 지금은 그 전쟁연습소동이 복침을 노린 악랄한 핵전쟁도발책동이라고 폭로규탄하는 마다가스까르 사회계인사들의 담화내용을 전하고있다.

마침내 방송원의 말이 끝나고 방송은 군악의 주악으로 바뀌었는데 대포의 일제사격을 형상한 대고의 울림으로 시작되는 《해안포병의 노래》전주였다. 유명한 전시가요의 장쾌한 선율은 금시에 나로 하여금 눈을 번쩍 뜨고 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 전투적인 노래의 선율을 타고 나타나기라도 한것처럼 물날은 적위대모자에 배낭을 지고 지평이를 짊은데다 보위색신발이 유풍한 중기가 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나는 어쩔줄 모르고 굳어졌다. 저쪽도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나는 그 어떤 힘에 못이긋듯 엉겨주춤 일어나 《박사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다. 그 바람에 저쪽은 《아, 편집부장선생.》 하고 열떠름해서 알은체했다.

다음순간 나는 어찌면 이 피엑스럽고 까다로운 학자와의 상봉이 매번 이처럼 공교롭게 이루어지는

가 하는 전답지 못한 의혹이 떠올랐다.

내가 박사를 처음 알게 된것은 작년 이맘때였다. 그때 우리는 문예작품현상음모에 당선된 학생들의 작품집을 내기 위해 한창 그 편집을 다그치고있었다. 그런데 완성작업을 시키느라고 준 한 학생의 과학환상소설원고가 들어오지 않아 소동이 일어났다.

전화질을 한끝에 학생이 찾아왔다. 그런데 원고가 없는 빈손이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원고를 빼앗아가지고 내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우리는 별 피박한 아버지도 다 본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아무려면 자기 아들이 전국적인 현상음모에 당선되어 세상에 작품이 발표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아나서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말인가. 게다가 그 아버지가 박사이며 부교수라니 더구나 모를 일이였다. 무슨 곡절이 있는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박사를 만나기 위해 내가 찾아 떠나게 된것이었다.

박사는 대학에 속한 연구소에서 일하고있었다. 그런데 《지질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은 문앞에서 손기척을 하려던 나는 그만 손을 멈추었다. 방안에서 무슨 과학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지 몹시 격한 소리가 울려나왔기때문이다. 한참 귀를 기울이고 듣던 나는 차츰 그것이 논쟁이 아니라 한사람이 누군가를 무섭게 질책하느라 그런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때아닌 때에 찾아온 실망에 잠겨 초조한 마음으로 복도를 서성거렸다. 얼마나 그렇게 지났겠는지 갑자기 그 방문이 열리더니 차크가방을 낀 사람이 황망히 나왔다. 나는 얼른 다가가 《저 여기에 신창빈박사선생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인차 눈치없이 물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가 벌개진 얼굴을 가리려는듯 이마의 땀을 훔치며 입안의 소리로 무엇이라고 웅얼거리고는 황급히 돌아서 도망치듯 물러갔기때문이다.

나는 방금 간간 사람을 호되게 책망한것이 신창빈박사가 틀림없다는 예감이 들면서 꺼리는 생각이 앞섰다. 한참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보낸뒤 마음을 다스려 먹은 나는 조심스레 손기척을 한다음 소리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러나 어쩔바를 모르고 굳어진듯 서버렸다.

좁전의 흥분때문인지 방임자가 보는척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방안에는 그가 마주앉은 편수책상을 내놓고는 온통 눈에 선 전자계산기며 무슨실험기계들이 차있었다.

돋보기를 낀 박사는 왼손에 확대경을 들고 구멍들이 뚫린 착공테프를 들여다보면서 《기계언어》를 읽고있었는데 전자계산기의 표시장치에는 x, y 좌표에 두개의 점선이 사귀었다 떨어졌다하면서 쌍곡선을 그리고있었다. 나는 전자계산기를 등지고 앉아 착공테프를 들여다보고있는 박사가 마치도 표시장치의 그림과 대조하면서 그것을 검토하고있는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마치 현대과학기술의 왕자로 군림한 전자계산기가 박사의 뇌수와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듯한 기이한 생각에 잠긴 나는 박사를 우러러 바라보았다.

량귀가 벗어져올라간 흰칠한 이마, 헛되이 늙지 않은 생애를 자부하듯 염색한 흔적이 없는 반백이 지난 은백색의 짧게 깎은 머리, 안경허리밑으로 곧게 내리선 날카로운 코날, 길쭉한 하관에 어울리게 내리드러온 유한 귀방울, 입귀에까지 선명한 곡선을 그린 꼭 다물린 입술, 한마디로 박사는 학식과 지성은 물론 강직한 기품까지 내비치는 준수한 모습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에 대한 나의 경의감은 줄지에 잡쳐지고말았다. 테프를 《읽던》 그가 흘끔 나를 돌아보고나서 그냥 모른체 제 할 일을 하였던것이다. 그만에야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못마땅한 생각대로 하면 그냥 돌아서 나오고싶었지만 박사의 무례함에서 그 무슨 언덕이라도 잡은 것처럼 끈덕진 렘치를 가지고 기다렸다.

마침내 확대경을 내리운 박사가 테프에서 눈을 떼고 처음 보는것처럼 쳐다보며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고 통명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나는 뻔뻔한 박사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온것만도 다행이라 여기면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어서...》

나는 듣는 사이에 벌써 언짢게 흐려지는 그의 기색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뒤말을 채 마무리지 못하였다.

《거기에 이해 못할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나는 과학자의 환상은 어떻게 나래쳐야 하는가 하고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애가 그 길로 그런걸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 머리로 창작한것이라고 할수 있단 말입니까.》

과학자다운 끝은 량심에 감심했으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마디했다.

《어쨌든 자그마한 이야기에서 그만큼 만들었다는것은 그애의 상상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안 이상엔 절대로 허용할수 없습니다. 못난녀석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나의

잘못이 큼니다. 이렇게 찾아오게까지 하여 정말 안됐습니다.》

사과의 뜻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처음처럼 매몰스러운 그의 어조는 더 이상 번거롭게 굴지 말고 어서 물러가주시오 하는 속대사를 풍기고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되받아외우듯 역시 《안됐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물러나오고말았다.

그로부터 몇달후 나는 신문에 발표된 학위학직수여자명단에서 신창빈박사가 부교수로부터 교수로 승격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 대한 나의 인상을 별로 달라지게 할수는 없었다.

그런데 나는 다시금 교수와의 첫상봉에서와 같은 그런 일에 부딪치게 되었다. 실로 엉뚱한곳에서 만난 우연의 일치였다. 새해들어 어느날 나는 어느 한 석재공장에 찾아가간적이 있었다. 부모님들의 묘지를 합장할 계획으로 거기에 세울 비석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제껏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지난 명색없는 석재공장이 그렇게까지 세가 나는줄을 몰랐다.

《들어가야 신청을 받지 못합니다.》

공장접수에서부터 거절이었다. 오늘따라 신청자가 많아 그렇다는것이였다. 거들 우겨서야 겨우 출입증을 떼고 들어갔는데 아닐세라 경비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지령실에도 술한 사람들이 지도원의 책상을 둘러싸고있었다. 계다가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방안의 공기가 어지간히 긴장되어있음을 알수있었다.

《사람을 업어넘겨도 분수가 있지 벌써 몇번째 헛걸음을 시키는가 말이오.》

《난들 어쩍니까. 석재가 딸리니 별수 있습니다.》

지도원은 제 할일을 하면서 늘어진 대답을 했다.

《석재가 딸리다니. 그래도 해갈 사람은 다 해가지 않소.》

《그거야 이미 접수한 순서에 따라 가져가는겁니다.》

《순서?》

어딘가 귀에 익은 목소리라싶어 기웃거리고 들어다본 나는 깜짝 놀랐다. 신창빈교수였던것이다.

책상에 두손을 벌려짚고 서있는 도전적인 태세는 결판을 붙 잡도리를 하고있는것처럼 보였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순서대로입니다. 손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큰소리쳐야 아무 소득도 없습니다.》

쓰던것을 멈춘 지도원이 온몸지 않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래 누구 위협하는거요?》

《여보슈, 손님. 지내 그러지 말구 오손도손 말하슈.》

《옳슈다. 참으슈.》

옆에서 제지시키는 한사람의 말에 여럿이 뒤따라 동을 달았는데 교수의 지나친 노여움이 지도원의 기분을 거슬러 공연히 자기들까지 피해를 받을가봐 꺼리는것 같았다.

나는 교수의 노여움에 근거가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파격한 처신이 교수자신을 고립시키고 불리한 처지에 빠뜨릴가봐 위구를 느끼었다. 아마 신교수의 신분을 알기만 하면 지도원의 태도가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한 나는 사람들을 비집고 나섰다.

《박사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연극의 대사를 외우듯 내가 큰소리로 인사하자 모두가 나를 쳐다보다 교수에게 놀란 눈을 돌렸다. 내 말이 효과를 낸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가 두둔하려고 한 교수가 처음보는 사람처럼 못마땅한 눈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나는 아연해졌다.

나에게서 눈길을 땀 교수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것이 창피한듯 고개를 떨구고있다가 좀전과는 달리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지도원동무, 더는 시끄럽게 굴지 않겠는데 이자리를 푹푹히 지키라는것만은 충고해두고싶소.》

그리고는 불일을 다 보았다는듯이 돌아서 뚜벅뚜벅 방에서 나갔다. 사람들은 멍하니 그를 바라웠다.

난처해난 나는 자기 변명을 하듯이 그들에게 교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물론 아들의 작품을 불태워버린 그의 강직한 성품에 대해서였다.

내 말이 끝나자 판매지도원은 몹시 질린 기색으로 《박사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나의 대답을 듣자 두터운 신청서철을 벌컥벌컥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멈추고는 새 용지를 펼쳐놓고 인차 나의 신청을 받아주었다.

결국 교수의 덕에 내가 쉽게 신청을 접수시킬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두번에 걸친 우리의 해후는 야릇한것이어서 친교를 맺기에는 너무나 어색버섯한것이였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만났다.

나는 무점없고 까다로운 교수앞에서 구속감을 느꼈다. 나는 따분함을 가실 생각으로 석재공장말을 꺼내어 물었다.

《참, 선생님. 그때 비석을 해결받았습니까?》

교수는 쑥스러운듯 한손으로 긴 하판을 내리쓸며 《예.》 하고는 머리를 뒤로 제껴 턱을 들사하면서 소리없는 웃음을 웃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교수에게 《선생님, 부쳤습니다.》 하고는 무슨 쪽지를 내밀었다. 수화물 쪽지인것 같았다.

《수고했네. 그런데 인혁이는 어디 갔나?》

인혁이란 소리에 나는 교수의 아들생각이 났다.

《이제 인차 올겁니다.》

교수의 승용차운전사인듯한 젊은이는 사람들속을 더듬어보며 대답했다.

이때 역안내방송이 평강행렬차의 개찰이 곧 시작된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타고 갈 렬차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교수와 갈라지게 된 해방감을 안고 어디까지 가는가고 가벼운 어조로 물었다.

《예, 저 평강행을 타면 됩니다. 선생은?》

금시에 기대가 꺾인 나는 《예, 저도 저 차를...》 하고 김빠진 소리로 뒤말을 맺지 못하였다.

교수와 한차에 가게 된것이 어찌나 부담스럽고 거북살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그렇습니까? 참 저기 인혁이가 오는군.》

아닌게 아니라 낮이 익은 교수의 아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대학생복차림인데 퍼그나 속성해보였다.

《인혁아, 편집부장선생님한테 인사해라.》

아들이 다가오자 교수가 나를 가리켜보이며 인사를 시켰다. 인사를 한 인혁은 어쭈운듯 모자를 벗은 이마를 문질렀다.

아마 작년의 그 작품때문일것이다.

나는 나대로 그 무슨 촉매제라도 나타나는것처럼 시름이 덜리는것을 느꼈다. 인혁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완화시켜주리라 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런데 운전사가 《인혁이, 침대표는?》 하고 물었다.

《침대표라니?》

질책하듯 되받아외운 교수가 아들을 흘끔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보내서 간것입니다. 응당 보장받게 된것이라서...》

운전사가 황급히 변명했다.

《폐지 않았으니 걱정마시라고.》

인혁이가 민망한듯이 뒤를 달았다.

나는 결불에 속이 뜨끔해서 저도 모르게 웃주머니에 손이 갔다. 뒤이어 동요를 느끼었다. 스스로 침대권은 마다하고 못떼게 한 교수를 두고 혼자서 침대칸에 타고 갈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따로 떨어질 무슨 구실을 생각해보았으나 너무나도 비루한것 같아서 눌러버리고 말았다.

나는 마음에 없는 동행이 되어야 하는 의무감에 포로되어 교수네를 따라 움직이면서 이처럼 나를

주눅들고 순종케 하는 교수의 구속력이 어디서 오는것일가 생각해보았다. 아마도 그것은 제손으로 아들의 작품을 없애치우고 스스로 침대표를 못매게 한것과 같은 강직성에서 오는 도덕적권위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교수에게 호감이 안가고 친근감을 가질수 없는것인지.

높은 학식과 강직성에도 불구하고 매몰스럽고 까다로운 성격,

교수의 인격에 내재하는 이런 모순된 부조화를 어떻게 봐야 할것인가.

이러한 의혹은 교수의 진속을 파헤쳐보고싶은 욕망으로 바뀌어 나로 하여금 내스스로가 침대칸을 마다하고 교수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 우정 따라나선것 같은 위장된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물론 그것이 궁한 처지에서 찾아낼 자기 변명과 위안에 지나지 않았으나 어쨌든 그것이 구속감에서 풀려나 능동적인 자세에서 교수를 관찰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렬차에 올라 함께 앉았을 때 나는 교수앞에서 취재대상을 대하듯 주동적인 립장에 설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턱을 들사하여 더욱 흰칠해보이는 이마, 주름을 모은 미간을 사이에 두고 겨누는듯이 내다보는 초점이 깊은 눈, 일직선을 내리그은 날카로운 코마루, 국 다물린 입귀에 새겨진 각을 지은 깊은 주름, 한마디로 중단없는 사색으로 긴장된 깊은 내면을 숨기고있는 도고하고 초연해보이면서도 마뚝잖아하는것 같은 푸접없고 까다로운 모습이였다.

교수는 습관처럼 질고있는 탐사지팡이의 윤기나는 망치에 두손을 겹쳐엮고 한손으로 군장단을 치다가는 두손을 짹 틀어쥐면서 뼈마디소리를 내였다.

나는 피줄이 살아올라 꿈틀거리는것 같은 마디굵은 우악진 손을 무심히 볼수 없었다. 그것은 교수가 서재나 연구실이 아니라 지질망치와 함께 막장의 깊은 지심과 험한 산비탈을 타고오르며 과학의 정점에까지 뚫아올라온 학자임을 말해주었다.

문득 나는 인혁이가 그 손을 훑쳐보는데 어딘가 꺼리는 눈치라는것을 느꼈다.

다음순간 침대표때문에 성깔스레 반문한 교수의 말이 떠오르면서 야릇한 공기를 느끼였다.

차에 올라 자리잡을 때 인혁이가 굳이 나를 가운데 앉힌것은 까닭없는 일이 아닌것 같았다. 부자간의 어색한 짬에 끼여앉은 나는 아까 역대기실에서 인혁이가 나타났을 때 《촉매제》를 발견한것처럼 안도감을 느꼈던것과는 달리 내가 도리어 그 역할을 놀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음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선생님, (나는 박사니 교수니 하는 말도 거슬릴

가봐 그저 이렇게 불렀다.) 저는 오늘 또다시 선생님과 만나 이렇게 한차에 타게 된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인연을 타고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럼없이 말을 꺼내느라 하였으나 인차 서툰 대사를 외운것 같은 객적음을 느꼈다. 교수에게서 아무 반응도 찾아볼수 없었기때문이다. 실망속에도 나는 렬행길에서 의례 하기마련인 어떻게 되어 아들과 함께 이번 길을 떠나게 되였는가를 물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일어났다.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듯이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수긍하는 뜻을 나타낸것이다. 그렇게 보아서인지 교수의 얼굴은 추연한 기색을 띠여 보였다.

《기차에 앉으면 살같이 달리는 시간이란 말이 무엇인가 실감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머리를 돌린 교수는 먼 추억을 거슬러 오르는듯 아래턱을 들고 깊은 감회에 잠기였다.

발밑에서는 레루의 이음짬을 넘는 차바퀴소리가 단속적으로 울리면서 점발사격소리를 렬상시켰다.

《벌써 40년이 지난 옛일이건만 어제일만 같이 모든것이 생생합니다. 물론 전쟁때의 일이지요.》

입이 무거운 교수에게서 뜻밖에도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된 나는 의아한속에 솔깃한 긴장을 느꼈다.

《전쟁이 터진 그때 나는 겨우 열일곱살 잡혔더했습니다. 나이때문에 군대에 못가는 우리는 전선으로 탄원해가는 선생들과 상급생들을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왔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듬해 겨울 어느날 밤 몰래 집에다 쪽지편지를 남긴채 마을에 들었던 인민군부대를 따라 고향마을을 떠났던것입니다. 온밤 행군한 부대가 날이 밝을무렵 대오의 꿈무니에 따라오는 나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폭격에 집도 가족도 다 잃었다고 엉뚱한 거짓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나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군대의 꼬마전사로 되었던것입니다. 하지만 군대에 입대한 나의 열정과 관심은 위훈에 대한 갈망도 갈망이지만 그와 못지 않게 시창작에 가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문학책을 파면서 작가가 되려는 꿈으로 가슴을 불태우던 나였습니다.》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 승리의 앞날 시로 조국에 이바지하리라는 꿈으로 차있었습니다.

어찌나 시에 심취했던지 자기가 꼭 시인으로 태어났다고 믿고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것이 군무생활의 잠시간마다 시로 수첩장을 채웠으니 말입니다.

어떤 날은 두세편씩이나 썼습니다. 천재가 아니교서야 어찌 그렇게 쓸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몽상속의 천재> 는 그 <시집> 을 제손

으로 찢어발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지요.

벌써 청룡인가?》

교수가 하던 말을 끊고 렬차가 멎은 밖을 내다보며 혼자말처럼 외었다. 그러더니 어기고 떠나가는 화물렬차의 방통을 가리켜보이며 아들에게 물었다.

《인혁아, 저게 무슨 기계냐?》

《선광설비가 아닙니까?》

인혁이 대답했다.

《옳다. 아마도 신설되는 명리광산으로 가는게 틀림없다.》

혼자말처럼 외운 교수는 렬차가 지나도록 이윽히 바라보다가 하던 이야기를 이었다.

《그때 내가 속한 분대에는 최장호라 부르는 의용군출신의 상등병아바이가 있었습니다. 거인형의 장대한 몸집에 모든것이 류달리 큼직큼직하게 생긴 그는 갈데없는 삼국시기 장수의 풍채 그대로였습니다. 어찌나 키가 큰지 나의 머리가 겨우 그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술이 짙은 눈썹이 수리개 날개처럼 량쪽으로 올리비끼고 입술이 두터운 큰 입언저리에 온통 거뿔한 수염터가 잡혀있었습니다. 텅석부리란 남자의 위풍을 돋구는 자랑거리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최장호아바이가 그 수염을 그대로 기른다면 갈데없이 울지문덕장군의 손색없는 초상모델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곤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아바이는 거룩진 몸에서 나오는 장사같은 힘이며 억양이 튀어나는 경상도 말씨며 유표한 특징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유명한것은 그가 가지고있는 손잡이 달린 확대경과 광물에 대한 열중이였습니다.

아마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것도 그에 적지않게 기인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빨테안경처럼 두터운 테를 가진 사센치 반경의 어지간히 큰 확대경이 있었는데 손잡이끝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끈을 꿰여 목에 걸고 적삼가슴한쪽에 특별히 만들어 붙인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군무생활에 아무 소용없는 〈박사〉의 확대경은 이미 유명해져 사관장의 소지품검사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하고있었습니다.

그렇수밖에 없는것이 그 확대경이 성냥이 바른 전선생활에서 담배불을 붙이는데 더없이 요긴한 성냥대용품으로 씌였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현대화된 부시나 같았지요. 하지만 아바이가 그것을 애용한것은 불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는 전호를 파든가 행군하다 휴식하는 때에조차 무슨 돌조각인가 쪼터들고 그것으로 열심히 들여다보곤하였습니다. 마치나 그는 이 전쟁을 조

국의 지표조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것 같았습니다. 전쟁 제4제단에 들어서 전선이 고착되자 그는 좀만 쿵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지전을 위한 방어공사가 벌어지자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영구궤도를 뚫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아니라 깊은 지층의 〈심부탐사〉를 할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로 말하면 시에 몰두한 나의 창작열과 〈박사〉의 탐사열이 고조에 이르러 소대에서 량극을 이루는 주목의 대상이 되고있었습니다. 이미 소대에서는 자기 취미에 〈환장〉이 된 우리들에게 각각 〈시미치광이〉, 〈돌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바이에게 〈박사〉 칭호가 붙은것처럼 나역시 〈시인〉으로 불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 누구보다 리해를 보여줘야 할 〈박사〉가 유독 나의 시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내가 어찌다 새로 쓴 시를 빠달라고 하면 〈나같은 돌쟁이가 무슨 시를 안다구〉 하고 검사를 부리며 사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나의 시에 대해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악평을 하고 중상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어 정치부중대장과 나누는 그의 말을 듣게 되었던것입니다.

〈시를 잘 모르는 다른 동무들이 창빈동무의 시를 취주는것은 리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문학부출신인 정치부중대장동지가 그 동무의 시를 파찬하는것은 잘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속없는 칭찬은 기만이며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는것을 정치부중대장동지도 모르지 않겠지요.〉

〈박사〉의 진지한 어조는 추궁에 가까왔습니다.

그 말에 한바탕 웃고난 정치부중대장은 〈《박사》아바이, 그시그시 떠오르는것을 즉흥적으로 적은것을 가지고 무슨 그다지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들이 전사들의 전투사기를 고무하고있는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나는 뒤말을 더 듣지 못하고 그자리를 피라고 말았습니다.

〈박사〉의 말도 그러하려니와 큰 포부를 안고 하는 나의 시창작을 즉흥적인 행위로 보는 정치부중대장의 말 역시 나를 몹시 자극하였습니다. 반발심이 생긴 나는 그중 잘됐다고 생각되는 네편의 시를 골라 다듬고 다듬은 다음 시초라고 묶어 몰래 〈민주청년〉신문 편집부에 보냈습니다. 그 〈야심작〉이 신문에 발표되면 보란듯이 두사람앞에 내대고 나를 하찮게 여긴데 대한 〈앙갚음〉을 하리라 벌렸던것입니다.

나는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민주청년〉이 오기만 하면 나의 시가 나지 않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그런데 어느날 그 신문 사면에 독자문에 분기평이 실렸는데 거기에 나의 시가 조기천의 시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심한 대목을 시인의 시와 나란히 대비하여 혹평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딘 송곳에 가슴이 찢리운것 같았습니다. 익명으로 내기는 하였지만 쥐구멍을 찾고싶은 수치감을 주체할길 없었습니다. 어찌나 타격이 컸던지 나는 입맛을 잃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나는 한 대원과 교대로 메질을 하었는데 메질을 할 때 나는 정대가리를 빗때려 몇번이나 정대를 잡은 상대의 손을 때릴번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잔등에 식은 땀이 짝 돋았습니다. 그날 작업을 교대하 다음 남보다 뒤늦게 저녁을 먹고 반토굴 병실을 향해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던 나는 앞에서 누가 〈창빈동무 아니야?〉 하고 막아서는바람에 우뚝 멈춰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뜻밖에도 〈박사〉 아바이였습니다.

〈저기 앉아 이야기 좀 할가〉 이렇게 말하며 내팔을 건드린 그는 버럭더미쪽으로 앞서걸었습니다.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밭파된 화약내를 풍기는 것파낸 버럭돌은 날카롭게 모가 저 조심해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박사〉는 〈창빈동무〉하고 고유한 경상도 억양으로 나를 부르곤아서 말머리를 떼었습니다.

〈내 오늘 창빈동무에게 좀 해줄 말이 있소. 그래서 이렇게 불렀는데 허물말고 들어달라구.〉

재거나 예돌지 않고 직방 들이대는 말투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매우 하기 힘든 말을 한다면 내가 시를 그만두고 그 정열을 다른데 돌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고 발끈해서 일어섰을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찢리면서 잡자코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귀를 기울이였습니다.

〈창빈동무, 가령 농사를 놓고 말하면 종자에 따라 그것이 맞는 땅이 각기 다르지. 논이 아무리 기름지다고 해도 거기에 밀이나 보리가 제대로 될리만무지. 것처럼 사람도 제게 알맞는 그런 직업과 일자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만일 그것을 모르고 논에 뿌려진 보리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일생을 망치고말지.〉

자격지심에 눌려있던 나는 굴욕감을 누르고 내가 어디에 알맞을것 같은가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시에 실패한 나는 절망에 빠져있었던것입니다.

〈물론 시인이 되는것도 좋기야 하지. 하지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변변한 시를 못쓴다면야 착실한 농사꾼보다 별로 낫다고 할수 없거던. 게다가 문학으로 말하면 아무나 쉽게 달라붙을수는 있어도 성공과 영예를 베푸는데 어느 분야보다 엄격하고

《린색》 한것이 또한 문학이 아니야. 타고난 천부를 요하는 그 《독특한 기술》에서는 《합격비율》이 가장 낮은셈이지. 내가 문학을 지내 신비화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한 그는 까놓고말하여 나의 시들이 조기천의 시와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 달고 명치가 찢리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신문에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것일가. 나는 신문이야기를 솔직히 터놓고 어떻게 그렇게 신통히 같은 말을하는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분기평에서 레중한 시구절이 언젠가 시를 쓰다가 그대로 곧드라진 나의 머리말에 있는 〈시집〉에서 본것과 꼭 같다는것을 알아보았다고 하면서 진작 자기도 분기평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불에 덴듯이 놀라 아با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범하게만 보아온 그에게 어디에 그런 세심한 구석이 있었는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의 예민한 눈은 나의 시 〈창작〉의 발자취를 살피봤을것이고 내가 침식을 잊고 헛메질하는것까지 놓치지 않고 살폈던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안하고 힘을 주기 위해 이렇게 만났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창피한 생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났습니다. 나의 짧은 생애에서 가장 피로운 시각 이제껏 못미덥고 고깝게 여겨온 〈박사〉에게서 착오를 깨우치고 위로받게 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오늘 이때를 기다려온듯이 〈박사〉는 나에게 자기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장호아바이는 경상남도 산간오지인 산세 험한 지리산의 이름없는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한때 삼남지방을 들었다놓은 전봉준농민군이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분산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할아버지가 관가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고 거기에 살림터를 잡은것이였습니다. 그후 할아버지는 〈한일합병〉이 되자 다시 의병에 참가하여 집을 떠난뒤 종무소식이였습니다. 들려오는 풍편으로 만주쪽으로 갔다는것을 알뿐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집안에는 반일애국감정이 류달리 높았습니다.

그런데 철모르는 어린 시절 최장호는 본의아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골짜기 깊은 지리산 산골마을에 어느날 줄이 간 골덴승마바지에 각반을 치고 딱따구리망치가 달린 지평이를 든 왜놈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놈에게는 쌍안경과 라침관, 확대경과 같은 산골아이들이 처음보는 별 조화로운 물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문명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자라난 산골아이들은 그 〈패물〉들에 현혹되어 났

을 빼앗겼습니다.

바퀴를 돌리는데 따라 먼데 물건이 가까와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유리눈알이 달린 쌍안경, 둥글게 생긴 밀판을 얹만 돌려도 송곳끝 같은데 붙어 한들거리는 바늘이 한대중 한곳을 가리키는 라침판, 가까이 멀리 대는데 따라 물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확대경, 그것을 햇빛에 대고 빛점을 작게 만들면 종이며 마른 가랑잎이 연기를 내며 타기까지 하는것이 어찌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보는데서 놈은 우야 그것으로 담배불을 붙이였습니다. 놈은 아이들중에 뛰어나게 숙성하고 결괏있게 생긴 최장호를 각별히 점을 찍어두고 호의를 보였습니다. <괘물> 들을 다루는법을 가르치고 가지고 노는 재미를 보도록 <특전> 을 베풀었던것입니다. 그대신 놈은 장호를 꺾어내어 산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깊은 골바닥에 내려가 조약돌을 주어오게도 하고 가파로운 벼랑의 돌을 따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몸에 바줄을 매고 아슬아슬한 <교예> 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모험이 배심에 맞는 어린 장호는 벼랑타기를 더욱 성수가 나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거들어준 값으로 받아먹는 사탕과자 맛은 또 어디다 비기겠습니까. 그밖에도 놈은 장호에게 잘락돈으로 <후한> 상을 주었는데 그때마다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두곤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장호는 놈이 시킨 높은 벼랑에 툄아 오르다 굴러떨어져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집에 와서 정신을 차렸을 때에야 실신하여 쓰러진 자기를 나무꾼들이 발견하고 구원해준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묻는 말에 장호는 어리석게도 거짓을 꾸며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주먹으로 구들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경에 처한 장호를 내버린 왜놈이 감쪽같이 도망친 일이 분한데다 그 일이 다 드러난줄 모르고 속이려고드는 아들이 극도로 가련하고 민망해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대신 의분에 차서 꾸짖었습니다. 그는 그 왜놈이 깊은 산골에 들어와 돌아치는것이 무엇때문인가를 알고 있었던것입니다.

격노한 아버지가 꾸짖는 까닭을 안 뒤에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어린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월이 지나고 장호가 철이 들무렵 산골 사람들의 보급자리에 왜놈광주들과 인부들이 끌어들여 금광을 개발하고 마을사람들이 등지를 털린

새처럼 산지사방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야 최장호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를 가슴에 칼이 박히듯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몽매와 무식이 낳은 죄였지요. 철없이 받아먹은 알사탕 몇알 값으로 조국땅의 보물을 오랑캐 왜놈에게 섬겨바치게 되리라는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금혈이 터진 산골마을이 대처모양으로 번창해지던 어느날 갑자기 왜놈 광주가 감쪽같이 살해되는 피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비장한 각오를 가진 최장호부자가 한 일이라는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후 최장호네 일가도 뿌리내린 고향을 떠나고 최장호자신은 집에서 뛰쳐났습니다.

공부를 하여 눈을 뜨리라 생각한것입니다. 속에 품은 꿈은 쇠돌을 캐내는 지질을 공부하리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일제통치하에서 그 꿈을 실현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같았습니다. 그래도 로동하면서 고학으로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러다 갈망하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대신 미국놈이 틀고앉은 남조선에서는 역시 그 꿈을 꽃피울 대신 쓰디쓴 환멸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향학열을 안고 때늦은 대학생이 된 그는 공부보다도 정치투쟁에 투신하여 자기의 장대한 체구로 지하조직활동가들의 신변을 호위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으로 서울이 해방되자 선참 의용군에 입대하여 총을 잡고 싸우는 병사로 된것이였습니다. 듣느니 처음인 그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최장호아버이의 태생이며 래력 그리고 장대한 체구머가 어딘가 기이한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가 겪은 참담한 운명은 조국이 겪은 수난의 력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 망국의 슬픔을 겪어온 우리 인민이 어찌 이제 다시 이 땅을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과거를 되풀이할수 있단말인가. 안될 소리지. 아무럼 안되구 말구.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부서져도 미국놈을 이 땅에서 때려눕혀야 돼.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고 하루빨리 문명한 나라를 일떠세워야 하네. 다시는 남에게 수모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

반땅크수류탄같은 주먹을 부르짖고 우둘우둘 떠는 <박사> 의 눈은 불이 이는것처럼 무섭게 번쩍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을 이길 날도 멀지 않았지. 늦었지만 나두 **김일성** 장군님 품에서 채 하지 못한 대학공부를 봉창할라고 해. 지질공부말이지. 공부를 마치고 금은보화를 캐내어 조국강산을 장식하게 되면 얼마나 보람있고 희한하겠나. 내 어릴 때 잘못도 썰고말이지. 창빈이, 조기천이 <조선은 산이 많은

나라》라고 했지만 그 산마다 어떤 보물들이 간직되어있는가 말이야. 자, 오늘 캐낸 이 돌을 보라구. 이 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나. 이걸 황동광이야. 그런데 마침내 이렇게 나왔거든.)

그는 두손에 든 쇠돌이 빛을 뿌리길라도 하듯이 화광이 병긋거리는 하늘에 대고 비쳐보며 기염을 토하였습시다. 〈박사〉는 지금 우리가 뿔고있는 경도에 대한 〈지질학강의〉로 넘어갔습시다.

나는 그의 유식함과 열변에 놀랐습시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랑할 때 시인이 된다는 말은 최장호 〈박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것이였습니다. 그때 나는 아바이앞에서 어찌나 무색하고 자신을 경멸하게 되였는지 모릅시다.

내가 〈시미치광이〉, 〈시인〉이란 소리를 들어왔지만 최장호아바이야말로 진짜 시인이란 생각이 들었기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에 대한 나의 열중과 포부가 얼마나 허궁에 뜬것이였던가를 통절히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깊은 꿈에서 소스라쳐깨듯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로 시인이 되자는 꿈을 앞세우고 준엄한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 꿈속을 헤매며 거품처럼 펄서 산것이였습니다.

최장호아바이가 자기의 신상의 이야기를 꺼낸것도 실은 나로 하여금 땅에 두발을 깊숙이 묻고 거기서 참다운 리상을 찾으라고 귀뜸하기 위해서가 아니였겠습니까.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밤이였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가파로운 비탈우에 불모의 봉우리를 떠이고 있는 1075고지가 성벽처럼 치솟아 우리를 굽어보고있었습니다. 포사격의 화광이 병긋거리거나 조명탄이 창백한 빛을 뿌릴 때마다 고지의 룡선이 사진찍히듯 맞은편 산허리에 룡광을 그리면서 우리의 시력을 마비시키군하였습시다.

나는 그것이 준엄한 현실이 나로 하여금 자기의 경박한 존재를 똑똑히 알라고 팽철하게 비쳐보이는 것만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밤을 계기로 나는 시와 아주 인연을 끊다싶이 하였습니다. 시보다도 어떻게 싸우며 사는가가 문제로 되었던것입니다.

이튿날부터 나는 술선 최장호아바이에게 붙어 그와 한조가 되어 수굴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바이는 일하면서 줄곧 나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광충이 나오는 경도였으므로 입을 다물고 있을수가 없었던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생산실습〉을 통한 지질학강의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사〉는 지질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내가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듣는 습곡운동이니 변형타원체리론이니 화성암, 변성암이니 하는 말들이 련달아 쏟아져나왔습니다.

이따금 나는 아바이가 입속으로 무엇인가 중얼거리는것을 눈치챘습시다.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나는 그가 땅에 가 굽적거리는것을 보고서야 로어 단어를 암기하느라 그런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까밝혀 묻자 그는 남반부에서 영어만 하여온 자기에게는 로어가 생판인데 앞으로 공부하자면 외국어에 막힐것 같아 로어공부를 시작했노라고 하였습니다. 화선에서 외국어를 습득해나가는 최장호아바이, 이것은 승리한후의 앞날 자기가 설 자리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나가는 전사과학자에게서 내가 찾아본 또하나의 숭고한 모습이였습니다.

갱도건설은 간고한 전투나 같았습니다.

치열한 대치전으로 벌거숭이가 된 중간지대에서 한대한대의 갱목을 구원하는것이 곧 생명을 건 전투였습니다. 발파를 위한 폭약도 적의 불발탄을 찾아내고 해체해서 쓰군하였습시다.

그때마다 아바이와 나는 한짝패가 되여 적아간의 황폐한 중간지대에 무시로 날아드는 포탄을 무릅쓰고 재빠르게 찾아다니며 갱목을 나르고 불발탄의 폭약을 뜯어내군하였습니다. 혹시 적포탄이 날아오기라도 하면 아바이는 그 거쿨진 몸으로 나를 감싸안고 엎디군하였습니다. 한번은 적의 대구경포 지뢰포탄이 명중하여 굴진중의 갱도가 몽텃 무너져 막힌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조되기까지 꼬박 4시간을 암흑속에 갇혀있었는데 밖에서 파들어와 구원되였을 때는 모두가 질식되여 실신상태에 있었습니다. 후에야 나는 그때 내가 아바이의 두팔에 꼭 안겨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뜨거운것을 삼켰던지 모릅시다. 그러나 것처럼 일생을 내가 따라 배우며 본받으려던 최장호아바이는 애석하게도 승리의 날을 얼마 남기지 않고 벌어진 무명고지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공화국기발을 들고 돌격의 앞장에서 내달리던 아바이는 고지정점을 눈앞에 둔 시각 발악하는 적들의 흉탄에 맞아 쓰러졌던것입니다.

흉탄에 맞아 처참하게 된 그의 가슴에는 피묻은 확대경이 목에 걸린 끈과 함께 드러나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바이의 그 모습을 내눈에 흠이 들어가기전에야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말을 마친 교수는 심심한 애도의 감정에 잠겨 침묵을 지키였다. 무심중 입에 가져간 담배를 빨았으나 하얗게 사원 긴 채공다리가 떨어졌을뿐이다.

나는 그의 슬픔에 따르지 못하는 점직함을 느끼

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옆에 인혁이 대신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것을 보고 의아를 금치 못하였다. 교수의 이야기에 끌린 나머지 언제 인혁이 자리를 뺐는지도 알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교수는 덤덤히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는 확대경과 함께 최장호아바이를 남향반이에 안치했습니다. 아바이의 배낭속에는 조사자료를 메모한 노트와 세칭 〈니나쁘따바〉라는 로어교과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자인 니나쁘따바와의 이름을 따서 불리운 해방후의 공용로어입문서였습니다.

폭약을 싸는 기름종이로 가위를 해썬 그 책은 보풀이 일대로 일어 모가 죽었는데 붉은 연필로 그 은 밑줄과 동그라미 투성이였습니다.

나는 최장호아바이의 〈합법적상속자〉로서 그 유물들을 건사하고 소중히 간수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아바이에게서 내가 넘겨받은 계주봉이나 같았습니다.

전쟁이 승리하고 제대된 내가 같길은 명백하였습니다. 광산공무직장에 들어가 일하면서 대학입학준비를 한 나는 모루앞에 철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석필로 <니나쁘따바>의 단어를 적어넣고 메질을 하면서 그것을 암기하였습니다. 말그대로 갱도작업을 하면서 로어를 공부한 최장호아바이와 같은 전투적학습이였습니다. 그덕에 나는 당당한 성격으로 지질학부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으며 오늘까지 지질일군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조국과 영원히 결부시키게 된것입니다. 나는 최장호아바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되새기는것입니다. 비록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지만 그 가혹한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최장호와 같은 아까운 인재들이 무명전사로 쓰러졌는가, 아름다운 꿈을 가진, 오늘 우리와 함께 생을 누려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기에 살아남은 우리들은 마땅히 그들의 념원을 받아안고 그들의 몫까지 도맡아 일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희생된 선렬들앞에서의 책임감, 이것은 혁명의 신성한 의리이며 그 계승의 료리이기도 한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위치에 이른것은 오로지 최장호아바이의 존재가 나의 심장에 살아있어 그 호소를 잊지 않고 하루같이 살아온때문이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언제 한번 최장호아바이를 대신할만큼 그렇게 살고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어찌 저를 최장호선생에게 비하겠습니까. 사람은 매일 매 시각 새로와져야 한다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간단 그를 말입니다.》

나는 새로운 눈으로 교수를 쳐다보았다.

마치나 그의 모습속에 살아있는 최장호를 함께 보는것만 같은 승엄한 감정에 사로잡혀...

죽은후에 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교수에 대한 새로운 매혹을 느끼면서 그의 다음 이야기에 더욱 끌려들었다. 최장호아바이와 교수의 려행이 무슨 련관을 가지고있는것인가.

《그런데 이즘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이젠 딸것을 다 뺏으니 편안히 살게 됐다고 축하의 뜻으로 말하군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할말을 찾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여 그들의 선의에는 상관없이 말없는 모욕을 느끼는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학위나 학직을 바라고 애써온 그런 인간으로 치부되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학위나 학직이, 통털어 그 어떤 칭호나 표창이 삶의 목적일수가 있단 말입니까.

<판다>고 하는 말부터가 너무나 저속하여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나는 탕개를 늦추고 살아도 된다는것이냐 같은데 그래 편안한 여생이 행복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사는것일가요?》

저으기 흥분한 교수는 고개를 가로젓고나서 내심의 론쟁대상을 찾아내려는듯이 자기에게 눈길을 모으고있는 주위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선생이 우리 연구소에 왔을 때 봤겠지만 전에야 언제 지질분야에서 전자계산기같은 설비를 생각할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전자계산기가 모든 과학기술분야에 도입된 오늘 그 성과를 써먹을줄 모른다면 한결음도 더 전진할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것입니다.

락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초학도가 되어 전자계산기를 습득하고 자신을 갱신해야 하는것입니다. 최장호아바이처럼 영원히 돌진하는 전사과학자로 말입니다.》

나는 작년 연구소에 찾아갔을 때 확대경으로 전자계산기의 착공테프를 들여다보며 《기계문자》를 읽는 교수앞에 압도되였던 일이 생각났다.

《내가 이처럼 흥분하는것은 교육자로서 한가지 고충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기때문입니다.

지금 당에서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의 교양문제를 두고 것처럼 심려하고 강조하는것이 우연하지 않지요. 지금 우리 대학의 경우를 놓고보더라도 입학대상자들속에서 지질학부를 지망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자신이 궁지와 자부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온 전공분야를 놓고 심히 우려를 품지 않을수 없게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나자신이 그 문제에서 개인적

인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녀석때문이지요.》

나는 인척이가 자리를 뜬것이 우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입에서 자기 말이 나올줄 알고 미리 피한것이 분명했다.

《나는 새학년도가 되면 의례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질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로 첫강의를 시작하곤하였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최장호아바이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작년에 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할뻔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낳아키운 아들에게 내 뒤를 이어 꼭 지질을 시키라고 맘먹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는 밤늦게 와서 아들아이의 책상우에서 풀어서 헤쳐놓은채로 있는 원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편집부장선생이 잘 아는 그 과학환상소설이었습니다. 나는 대뜸 아들이 판데 정신을 팔고있다는 생각에 화가 동하였습니다. 대학입학시험준비를 해야 하는 때에 그런것을 하는것이 헛시간을 보내는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던것입니다. 그러나 제법 미끈하게 엮은 문장에 끌려 한줄 두줄 읽어내려간 나는 자못 아들의 글재간에 대견한 생각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재치있고 기발한 묘사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젊은 시절 내가 포기하고만 그 꿈을 실현할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선망을 느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반도 채 못읽고 그만 기대가 잡히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과학환상소설이라 하지만 우리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한 너무나 허황한 순수 환상인데다 언젠가 내가 얼핏 말해준적이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낸것이였기때문입니다. 나는 수치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기천의 시를 본판적이 있는 나의 옛날의 아픈 추억을 들춰내는것 같았기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서 그런 미시리가 난것이 당연하다는, 어디다 해댈길없는 불만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나는 굳하게 자는 아들아이를 잡아깨우고 원고를 가지고 따지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아들아이는 아버지인 나를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격분하고 어처구니없어 너같은 골통을 가지고는 애당초 문학을 할 자격이 없다, 이제부터 잡생각을 버리고 지질학부에 입학할 준비를 하라고 강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아이는 공과계통은 안하겠노라고 딱 버티었습니다.

풀치아픈 과학기술공부를 해서는 뭘하며 더구나 산이나 땅속에 묻혀사는 돌쟁이가 돼서 뭘 얻을게 있느냐는것입니다.

아들녀석은 아버지인 나에게 어떤 무서운 모욕을

들씩우는줄 모르고 그런 말을 광광 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참지 못하고 아들녀석의 뺨을 후려치고말았습니다. 내가 고스란히 바쳐온 한생이 제가 낳은 자식에게 짓밟히는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김에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간것이였습니다.

바로 부장선생이 아들녀석의 소설때문에 나를 찾아오게 된데는 이와 같은 곡절이 깔려있었던것이였습니다.

게다가 선생이 찾아온 그날 공교롭게도 나는 한가지 불쾌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다름아니라 준박사 학위론문을 제출한 어느 연구기관의 젊은 연구사때문이였습니다. 그날 선생이 오기전에 그가 나타났는데 논문심의자인 나를 초대하기 위해 온것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만나면 논문을 놓고 호되게 추궁하리라 버리고있던 나는 그가 찾아온 속심을 알게 되자 그만 참지 못하고 질책하는 말이 막 쏟아져나갔습니다.

그 논문 어디에 조국을 위해 바치는 과학도의 뜨거운 진정이 있는가, 내 소리를 해서 안됐지만 이 손을 보라. 지질가라면 그래도 조국의 땅덩어리를 안고 씨름질하고 그 땅속깊이 심장을 묻고나서야 지질학자가 되겠노라 낯을 내밀어야 할게 아닌가고 닦아세웠습니다.》

교수는 그때의 흥분이 되살아난듯 장알 박힌 두손바닥을 내들고 흔들었다.

《글쎄 초대라는것도 그렇지요. 논문이 통과되고 학위가 수여된 다음에 한다면 몰라도 그 먼저 한잔 들자는게 뭘니까.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데 쫓겨나듯이 그가 물려간 뒤에 난데없이 부장선생이 찾아들어와 아들아이의 부끄러운 작품이야기를 꺼냈던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가해진 뜻밖의 측면기습이나 같았습니다.

곤경에 빠진 나는 좀전에 연구사를 질책한 일이 떠오르며 심한 자책과 회오로 모대기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하나 바로 가르치지 못한 주제에 무슨 체면에 남을 놓고 지질학의 공지와 영예에 대하여, 과학자의 량심에 대해 입을 벌려 말한단 말인가. 그러고보면 너도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가 아닌가. 그때 자기 모멸에 빠진 나는 자신에 대한 이런 불만을 애꿎은 선생에게 그대로 드러냈던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비로소 나는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 방에 사람이 들어선것도 모르고 확대경을 들여다보며 굳어진듯이 앉아있을 교수의 심경이 어땠으리라는것을 새삼스레 짐작할수 있었다.

《어쨌든 나는 작년에 아들애를 지질학부에 입학시켰고 어느때와 같이 신입생들앞에서 최장호선생



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었습니다.

아들아이도 참가한 합동강의실에서였습니다. 나는 일생 드물게 맞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하며 류다른 감회에 잠겨 열정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의 입에서 처음으로 듣는 그 이야기로 아들이 왜 내가 부디 지질공부를 할것을 요구하였는가 하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랐던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날저녁 아들아이한테서 좋은 반향이라도 들을줄 알았던 나는 뜻밖에도 시무룩한 아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이는 나의 강의가 끝난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강의가 끝나고 신입생들이 복도에 나서자 상급생들이 다가와 내가 강의에서 여사여사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지레 묻고는 무슨 흥내를 내듯이 내가 한 이야기를 저마끔 섬겨대면서 웃겼다는 것입니다.

아들아이는 그때문에 몹시 창피를 느끼고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반영〉에서 내가 얻은것이란 최장호아바이에 대한 나의 〈고귀한 추억〉이 새학년도가 되면 의례 꼭집어 외우는 판에 박은 강의 서론처럼 호가 붙어 무슨 시비거리처럼 뒤소문으로 돌아간다는것을 알게 된것이었습니다. 나는 크게 낙심하여 실망에 빠졌습니다.

고지식하게 과학세계에만 빠져 주위에 떠도는 공기에 민감하지 못한 자신의 덜통함을 탓할밖에 없었습니다.》

꺼진 목소리로 말한 교수는 흐려진 얼굴을 피하려는듯 창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어느덧 밖에는 어둠이 깃들어 차창에는 유리에 맺힌 비방울이 차안의 불빛을 받아 떨고있는것이 보일뿐이었다. 어느새 비가 내린 모양이었다.

《그후에도 아들아이는 이제까지 내가 모르고 지나온 이런저런 〈정보〉를 통보하고 제공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많다보니 무슨 소린들 없겠습니까. 뺨스정류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청년들을 닦아세우느라 목에 피대를 돈군일, 지어 내가 걷기 편리한 운동화를 즐겨 신고 다니는것까지 허물이 되어 아들의 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시비에 놀려 아들아이는 진짜 수치를 느끼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소리를 전할 때마다 제편에서 진짜 안타까와하고 민망해하면서 〈충고〉를 하려들었습니다. 그런것이 다 교수 박사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점잖지 못한 일이라면서 말이지요. 그러다 끝내 비석때문에 일이 터지고말았습니다.

비석으로 말하면 그때 나는 석재공장을 몰러나오면서 어떻게나 내 손으로 마련하리라 결심했던것입니다.

돌다루는 미립이 없지 않은데다 같은 값이면 일생두고 잇을수 없는 천우이며 은인인 최장호아바이의 비석을 내 손으로 새겨 세우는것도 의의가 없지 않다고 보았던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들아이가 혼자 있는 때에 난데 없이 우리 집에 비석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면박을 준 그 지도원이 신고온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런 사람을 너무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애는 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별치 않은 비석때문에 박사의 지체를 가지고 위신없이 공장에까지 가서 굵석거린게라고 말입니다.

내 손은 저도 모르게 아들애의 뺨을 쳤습니다. 박사라는것을 무슨 땀흘리는 사람들우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여기는 아들애의 언사에 격분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날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채 무서운 회의감에 빠져 모태졌습니다.

지질학부 입학으로 아들아이의 문제가 해결된것처럼 믿은 나의 생각은 너무나 짧은것이었습니다.

청년기에 들어선 아들의 교양문제에 직면한 오늘에야 비로소 나는 지난날 자신이 교육자로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교탁에 마주섰던가를 뼈아프게 반성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제아들 하나 똑똑히 교양 못하면서 다른 술한 학생들을 교양하려들었으니 얼마나 가소롭고 경솔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의 심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고 교양하자면 자신의 준비는 물론 제가 낳아 키운 자식부터 똑똑히 가르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제자식 하나 가르치지 못하는 나의 말이 어떻게 한다리가 먼 남에게 감화력을 가진다고 믿을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신빙성 없는 〈교양〉은 자신에 대한 기만이며 타인에 대한 부당한 강요에 불과할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나에게 〈제코나 똑똑히 찢으라〉고 비난할게 아닙니까.》

교수는 내심을 터놓은 뒤의 점직함때문인지 지평이를 짚은 한손을 적위대복 저고리에 가져가더니 가운데 단추를 매만지었다. 마디 굵은 엄지손가락 밑에서 볼록한 자지빚 수지단추에 새겨진 별이 나타났다가리워졌다 하였다.

불현듯 나는 그의 얼굴에 굳어진 못마땅해하는듯한 까다로운 표정이 실은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감추려하지 않는 솔직성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기반성에 잠긴 교수의 기분을 돌릴양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장호렬사의 그 비석을 가지

고...》 하면서 말머리를 돌렸다.

《예, 마저 이야기하지요.》

조급해 말라는듯이 다짐을 둔 교수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나는 일을 버르집어놓은김에 아예 단단히 아들의 문제를 아퀴를 지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시에 미쳤던 내가 최장호아바이에 의해 세상을 사는 의미를 깨달은것처럼.

최장호아바이의 묘지에 아들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비석을 함께 세우면서 단단히 깨우쳐주자고 말입니다. 그때 나는 아들아이앞에 이것을 꺼내놓고 네가 물려받겠느냐? 아니면 묘지에 도로 묻으라느냐고 다짐을 받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의 손에는 금방 단추를 끄르고 꺼낸 큼직한 확대경이 들려있었다.

바로 내가 교수의 방에 처음 찾아갔을 때 전자계산기의 착공테프를 들여다보던 눈에 익은 그 확대경이었다.

나는 천금의 가치를 가진 진귀한 보물처럼 무겁게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그러면서 한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전사한 최장호아바이와 함께 묻힌 확대경이 어떻게 교수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내가 묻자 교수는 그런 물음이 나오기를 기다렸던듯이 인차 대답했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될 무렵 우리는 지방인민들과 함께 전방에 있는 전사자들의 묘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여름이어서 우거진 나무들과 여러 묘지들속에 어느것이 아바이의 묘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던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대경이 유일한 증거물이 되어 나의 일을 실수없이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나무로 묘비를 해세우고 이 확대경은 내가 간수했던것입니다. 그후 다시 세멘트묘비를 바꿔세웠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도 마음놓을수가 없지요.》

말을 마친 교수는 담배를 붙여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진동때문에 떠는 물방울들이 우물구불 줄을 그으며 내리는 흐린 창유리에 비친 교수의 침울한 모습을 말할수 없는 경의감에 잠겨 지켜보았다.

40년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회생된 옛전우를 잊지 않고 의리에 충실한 사람, 평화적시대가 베푸는 행복과 평온에 물젖지 않은채 전쟁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곳곳이 살며 남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원심을 쓰는 사람, 하여 눈에 거슬리는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격해지며 내쏘고야 마는 피엑스 러울만치 끈은 사람.

《편집부장선생!》

고개를 돌린 교수가 부르는바람에 격앙되던 나의 상념은 깨쳐졌다.

《사실 나는 선생앞에 두번에 걸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마 그때문에 선생은 나에게 대해 좋게 생각지 않았을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을수 있습니다. 나라는 위인이 워낙 그렇게 돼먹었으니까요.》

나는 게면쩍었다. 그를 잘못생각한것이 사실이었기때문이다.

《어쨌든 아들에게까지 맞추기 힘들어하는것을 보면 내가 대하기 말썽 까다로운 인간인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부장선생, 사람이 옳바르게 산다는것은 말이 쉽지 혈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것은 물론 그릇된것과 융화함이 없이 원칙을 옹호하고 지키기도 해야 하는것입니다. 어떻게 되여서인지 나는 눈에 거슬리는것을 보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숨결이 높아지면서 그냥 지나칠수가 없는것입니다. 량심이 허락지 않지요. 그래서 위신없이 뛰어들어 〈객기〉를 부리기도 하는것입니다.

선생이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나, 그 먼저 왔던 젊은 연구사에게나, 석재공장의 지도원에게 결기를 부리고 다 큰 아들에게 매손이 나간것도 다 그때문이지요. 그리고는 돌아서 인차 몇적어져 후회하곤합니다.

옳은 소리를 하면서 괜히 상대의 감정을 거슬려 반감을 사게 되고 자기 속도 언짢게 만드는것입니다.

참 뻔히 아는 약점인데도 반복하고는 뉘우치곤하지요. 그러니 인척이란녀석이 〈위신〉이니 〈체면〉이니 하는 말을 할만도 하지 않습니까.》

교수는 점직한듯 불룩하게 벌이 도드라진 가운데 단추를 다시 매만지기 시작했다.

나는 교수에게서 새롭게 찾아본 그 손버릇에서 동심과도 같이 순박한 마음을 찾아보며 꼭 다물린 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교수의 푸점없고 딱딱한 인상이 실은 자신과 남에 대한 강한 요구성에서 오는 내부의 부단한 투쟁과 그것을 억제하려는 긴장된 노력이 그대로 내비치기때문이라는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말하자면 교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였다. 하기에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것을 보면서도 눈을 감고 지나는것과 같은 《호인》의 흉내를 피울줄을 모르는것이다. 그래서 원칙밖에 모르는 《벽창

호》라는 오해를 사기도 할것이다.

나는 이름난 박사이며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텅텅한 차림새를 한 교수에게 자신을 비추어보며 심한 자책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누가 과연 참사람인가.

나는 말머리를 돌린 교수의 은근한 어조에 자신으로 돌아왔다.

《권집부장선생, 혹시 자이로스코프란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지요.》

아마 교수는 과학과는 먼 나에 대한 경시를 나타낼가봐 여유를 두고 완곡하게 물은것 같았다. 나는 교수가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는 의혹속에서도 과학에 지내 어둡지 않은 자기를 나타낼 기회가 생긴것을 다행스레 여기며 인차 대답했다.

《예, 뎡이기구 말이지요.》

그리고는 어뢰정이나 땅크가 평형을 잃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여 어뢰나 포탄을 목표물에 명중시킬수 있는것도 바로 자이로스코프의 역할때문이라는 것을 덧붙였다.

《웁습니다.》

교수는 만점으로 대답한 학생을 칭찬하듯이 유쾌한 어조로 수궁했다.

《비행기나 선박, 우주로켓같은 유동체들이 운동방향을 잃지 않는것은 역시 자이로스코프의 작용원리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하면 사람들의 심장에 간직된 량심을 바로 그것에 비유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입니다.

사람은 량심이란 자이로스코프가 있어 행동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절되고 통제를 받고있는것입니다. 량심의 판단처럼 예민하고 정확한것은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사람이란 결국 량심을 가진 이상 누구나 종당에는 좋아지고 아름다와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수는 자신을 확신시키려는듯이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 말이 자책에 잠긴 나의 속을 들여다보고 위안하기 위해 꺼낸 말처럼 들리었다. 그런속에도 나는 자신을 속박하는 피로운 자책에서 벗어나 신교수와 면식을 가지게 된것이 나의 생활에서 얼마나 의의있고 다행한 일인가 하는 기꺼움을 의식했다.

아마도 그것은 신교수가 40년전 전선의 잊지 못할 그밤 최장호(박사)에게서 깨우침을 받고 고마움을 느낀것과 비슷한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교수와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나 강한 자기마당속에서 자성체가 영구자석으로 화하듯이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자

나자신을 교수처럼 되게 만드는 과정이거나 한것처럼.

나는 내가 내려야 할 역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것 같아 조바심을 느끼었다.

어느새 인혁이도 돌아와 옆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그가 아버지는 물론 나까지도 점직한 기색으로 대하는것이 알리었다. 나는 그에게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가를 말해주지 못한채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느끼었다.

하지만 나는 강직한 교수가 이번길에 기어이 아들을 자기가 바라는 그런 길에 들여세우리라는 확신으로 자신을 위안하였다.

드디어 렬차가 내가 내려야 할 역에 당도하였다.

신교수부자는 승강대에까지 따라나와 작별을 아쉬워하며 손을 저었다.

렬차는 평행으로 이어진 두가닥 궤도를 뒤에 남기며 멀어져갔다.

신호등의 푸른 반사광이 어려 희미하게 번들거리는 레루를 따라 기차를 바래우던 나는 발밑의 땅이 앞쪽으로 움직이는것 같은 지속되는 운동의 착각속에 느닷없이 양양되는 정서의 작용을 의식했다. 참으로 그것은 메달랐던 가슴에 지하수의 분출을 느끼는것과 같은 청신하고 밝은 감명이었다.

다음순간 최장호의 모습과 겹쳐진 신창빈교수의 숭고한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며 새로운 높은 세계에로의 비약처럼 승화되는 자신속에 신념과도 같이 움터오르는 크나큰 사상의 확충을 의식했다.

세상에는 언제나 최장호나 신창빈교수와 같이 해불처럼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유명, 무명의 시대의 선구자들이 있기마련이다. 그들의 고결한 행동은 못사람들의 귀감이 되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본받고 그처럼 살도록 추동하고 이끌어주는것이다.

그리고보면 시대와 력사라는것도 강심의 흐름과도 같이 그런 굵은 축이 있어 굳건하고 건전하게 계승되어 도도하게 흐르며 발전해나가는것이 아니겠는가.

차표찍는곳을 향해 발걸음을 땀 나는 이제껏 알지 못한 환희의 태동을 느끼며 속으로 되뇌이였다.

우리가 사는 참다운 의미는 혁명을 위해 바친 전세대의 념원과 정신을 이어받아 후대에게 떳떳이 물려줄수 있게 그렇게 사는것이라고.

차표찍는곳에 다가가 두장의 표를 꺼낸 나는 차표를 내준 다음 쓸모없이 남은 침대표를 구겨켜쳐 거뜬한 마음으로 역구내를 벗어났다.

1991. 5. 23

## 시대의 넋과 시인의 심장

최길상

력사에 빛나는 시대에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정신과 의지, 시대의 넋이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심장속에 길이 남아있는 시를 낳은 시인은 시대의 넋을 심장으로 노래할줄 알았다. 시대의 넋이 시인의 심장의 울림으로 뜨겁게 고동치지 않는 시는 참다운 의미에서 시가 아니다.

시대의 넋을 심장의 세찬 박동으로 노래할줄 아는 시인만이 보다 새롭고 보다 무게있고 보다 빛나는 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생명력이 더욱 강해지는 시를 창작할수 있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파괴책동과 반사회주의적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우리 문학은 이 위대한 전진의 흐름에 합류하여 그를 추동하고 고무하며 격류하고있다.

이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과 창조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문학이 시대의 넋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시대의 넋을 가장 민감하게 대변하는 우리 시가문학이 선도적기치가 되어 세차게 펄럭이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그 어떤 시대의 변천과 정세의 파동속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우리 당만을 따르고 옹위하는 결사대가 되려는 충성의 맹세를 담아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최대의 믿음과 기대가 담긴 회답서한을 보내주신 격동적인 사변에 접하여 쓴 시들이 그 생동한 실례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시 《위대한 심장을 주다》(오영재),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김철민), 《위대한 스승》(백하), 《영원히 당을 따라》(김만영), 《주시는 사랑》(리금녀) 등 다섯편의 시가 특출한 모범으로 되고있다.

이 시들은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눌지 않으며 역경도 순경으로 만들며 무진장한 활력을 낳는 우리 당의 위력, 세월의 파동이 심할수록 오직 당만을 믿고따르며 생기넘치고 혈기 왕성해지는 우리 인민의 랑만에 넘치는 약동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생겨나는것이며 어디에 그 원천을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높은 시형상으로 밝혀내고있다.

이 위대한 철학적명제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백전백승하는 힘의 원천을 깊이 체득하게 하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힘의 원천, 그것은 당과 인민대중이 혈연적으로 련결된데 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끊을수 없는 련계는 우리 사회의 위력의 마를줄 모르는 샘이며 이런 련계로 당과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그 어떤 세상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이 위대한 기상, 이것이 우리 시대의 넋이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참다운 동행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우리 시인들의 심장은 우리 시대의 이 위대한 넋을 체득하고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이리하여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받은 시대의 영예와 긍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받고 그 감격과 환희와 격동을 노래한 시들이 이룩한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위대한 넋을 심장으로 뜨겁게 노래한 데 있다.

서정시는 시인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이다.

시를 낳는 시인의 심장은 저절로 뛰는것이 아니다. 시인의 심장은 자기 시대를 격동시킨 의의있는 사건과 현실생활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맥박을 같이 할 때 세차게 고동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참다운 시인은 언제나 동시대의 온갖 의의있는 사건과 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직접적인 체현자가 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삼았고 거기에서 시대의 울림을 심장으로 감수하고 노래하였다.

시인 오영재는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받은 격정을 심장에 직접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그것은  
글밭이 아니다  
말도 아니다  
우리 당이 인민에게  
심장을 준것  
자기를 다 준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회답서한을 시인은 《허물없는 벗에게 보내는 글월》, 《결의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리도 친근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그이의 숭고한 인민적인 풍모를 뜨겁게 새겨안으며 우리 당이 인민에게 심장을 준것으로 감수한다.

얼핏 보면 시의 첫련은 생경한것 같기도 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시의 세계를 파악할수록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고 믿음을 준 그 글발을 심장을 준것으로 노래한 그 의미가 깊어진다.

목메여 우러르노라  
너와 나  
우리모두에게  
자기의 심장을 준 당이여  
수천만 우리 인민을  
동지로 부른 우리 당이여

태양의 인력과도 같이  
우리모두의 심장을 끌어당기며  
가슴의 벽을 두드린다  
혁명의 먼길을 함께 갈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주길 바라는  
뜨거운 그 목소리가

생명유기체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심장이다. 심장이 없이 생명유기체의 존재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심장을 준다는것은 운명이 하나로 일치된 관계에서만 있을수 있다.

우리 당이 자기의 심장을 우리 인민모두에게 준것은 인민의 운명이 하나로 이어져 영원한 동행자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당과 운명의 공동체로 된 동행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깨끗한 량심과 의리, 진정을 가지고 당의 위업을 심장으로 받들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모습으로 더욱 빛나게 된다.

당이 준 심장을 가지고 당을 영원히 따르는 길이 《력사의 진리, 혁명의 생명선》임을 시대의 넓으로 체득하고 심장의 철학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여기에 이 시의 높은 시형상이 있다.

시인 리금녀는 시 《주시는 사랑》에서 녀성의 섬세한 감정으로 회답서한을 받은 환희와 감격, 자각의 세계를 노래하였다.

솟는 해발  
눈이 시도록 찬란합니다  
길가는 사람 모두 나를 축복하는듯  
높뛰는 가슴 진정할길 없습니다

시는 벌써 첫련부터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받은 시인의 기쁨과 감격, 크나큰 자부심을 토로하면서 환희로운 정서를 펴나가고있다.

그리고 그 어떤 비유나 사색깊은 명상보다도 서

정적주인공의 직접적인 감정의 촉발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높이 불러주신 당의 사랑과 믿음을 노래한다.

아 그 영광 받아안은 이 순간  
걸음도 달라집니다  
말소리도 달라집니다  
쓰는 시줄엔 뜨거운 피가 뿜니다  
시줄마다 격량이 입니다  
시련마다 활활 불길이 타오릅니다

보는바와 같이 시는 《몰아치는 세계의 회오리속에서 저무는 한해를 돌이켜보며》 당의 로고에 비해 볼 때 당의 가수로서 못다한 일을 두고 심심히 뒤우치면서 심중에 간직한 사연과 덧쌓인 소원을 삼가 적어올린 시인자신의 감회와 느낌이 직접 개방되어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시인자신의 문제로 유폐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당을 생각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의지로 뜨겁게 울리는것은 시인이 자기의 느낌을 시대의 호흡과 일치시켜 서정을 낳았기때문이다. 그리고

온 누리를 받아안은듯  
푸른 창공에 나래치는 이 마음  
태양의 빛발에 휩싸였습니다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을 노래할  
혁명의 필봉 높이 들고  
아 내 사랑 조국땅우에 다시 태어나  
첫 걸음 때웁니다

라는 매우 깊이있고 의미심장한 결구를 주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벌써 시인의 심장은 사랑과 믿음의 회답서한을 받은 시인자신의 심장만이 아니다.

시인은 회답서한을 받은 감격으로 높뛰는 가슴에서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와 뛰는 맥박을 감득하였으며 여기에서 시대의 고통과 의지를 느꼈다.

하여 회답서한을 받고 《온 누리를 받아안은》것으로 뜨겁게 고동치는 시인의 심장이 당의 사람과 믿음이면 더 바랄것이 없는 시대의 지향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세차게 뛰고있는것이다.

당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시인의 심장의 노래는 《아 내 사랑 조국땅우에 다시 태어나》 첫걸음을 댄다는 시의 결구에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이 세상에서 더 바랄것이 없고 더 이상 누릴것이 없는 최고의 명예, 최상의 높이에 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은 당의 심장을 가진 새로운 시인을 태어나게 하였다.

참으로 회답서한을 받은 서정적주인공이 내 사랑이 다시 태어난것으로 감수한것은 깊은 철학을 담고있다.

시를 창작하는것은 생명을 창조하는것이다. 생명을 창조하며 낳는것은 리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다면 내 사랑 다시 태어나 첫걸음을 땀다고 시인이 뜨겁게 읊조렸을 때 우리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참다운 동행자, 당의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첫걸음을 떼는 시인의 참모습을 보는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우리 당의 심장파 완전히 일치된 시인의 심장의 노래가 있다.

이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받은 감격을 노래한 시들은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시대의 의지를 시인의 불타는 심장으로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감동이 깊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회답서한을 받고 쓴 시들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또한 매 시편들에 시인의 깊이있는 사색이 깃들고 새로운 시적발견이 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시적대상에 대한 시인들의 사색과 탐구가 그 대상에 적응하게 되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노래하는것은 벌써 그자체가 사색적이며 철학적인 시를 탄생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적응하게 시인들은 회답서한을 받아안은 감격 그자체를 노래하는데 머물지 않고 보다 더는 감격한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노래하는데로 사색과 탐구를 깊이하였다. 이리하여 거의 모든 시들에 시인들의 깊은 사색이 깃들어있고 새로운 시적발견이 있다.

시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는 명상시적인 형상방법으로 우리 당이 내세워준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있는 주인공의 깊은 정서적체험을 통하여 시와 철학을 훌륭히 결합시켜나가고있다.

시 《위대한 스승》과 《영원히 당을 따라》, 《주시는 사랑》에서는 보다 더 서정적주인공의 정신적체험을 강하게 주면서 사색의 세계를 떠나가고있다.

우리는 흔히 사색적인 시, 철학적인 시를 말할 때 주인공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체험이 강하게 느껴지는 시를 념두에 두고있다.

시 《위대한 스승》의 서정적주인공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값높은 자리에 자신을 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삶과 운명의 자애롭고 위대한 스승으로 노래하고있다.

여기에서 시인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그 의미를 시적으로 포착한데 머물지 않고 그 뜻이 서정적주인공의 구체적인 성격속에 체현되게 하고있다.

이리하여 서정적주인공의 체험된 감정이 우리 시

대의 인민적인 감정, 전형적인것으로 되도록 이끌어어나가고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어린 학생이 되여 위대한 스승으로 가슴뜨겁게 부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나를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 길우에서》 서정적주인공은 맞으시는 찬비 한줄기 막아드리지 못했건만 오히려 충실한 방조자로 불러주시고 훌륭한 조연자로 세워주시니 사랑의 회답서한 글획마다 더운 눈물을 적시고 또 적시며 주정을 토로한다.

그 사랑의 먼길을  
다 밟아못본 사람은  
이 짧은 글을 길게 읽을수 없으리  
그 글발속에는  
자애로운 그 한품에 천만자식을 안아키우신  
아버이의 수십년 세월이 놓여있어라

놓여있어라  
그 짧은 글속에는  
바람사나운 시절에도  
전사들의 가슴속에 흠집 하나 남기지 않으시려  
보람찬 삶으로 이끌어주신 사랑의 바다가

어려울수록 인정깊은 어머니가 되시여  
나를 억세게 키워주신 친애하는 그이  
이제 믿음의 절정우에 나를 세워  
나의 뉘를 백배로 키워주시여라  
나의 심장을 백배로 불태워주시여라

이 시편들에서 느낄수 있는바와 같이 사랑의 그 회답서한에는 삶과 운명의 어머니가 되시여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이끌어주고 키워오신 친애하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가 담겨져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이 그이를 우러러 영원토록 부르고싶은 말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그 이름인것이 다.

그러나 아직 이것만으로는 이 시의 사색적이며 철학적인 세계를 참신하게 느낄수 없다. 보다 더는 이러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루적시켰다가 마지막결구에 이르러 위대한 스승이라는 그 의미를 더욱 새롭게 부각한데 있다.

하지만  
자신께선 전사보다 키를 낮추시고  
전사는 조연자로 높이 세워주시니  
자신께선 소박한 전사 되시고  
인민은 스승으로 높이 받드시니

오 우러러 끝이 없는  
세기의 향도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정녕 위대한 스승이시여라  
인민의 영원한 불세출의 스승이시여라

이 시의 핵이라고 말할수 있는 결구에서 받아안은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인민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보시고 최절정의 높이에 올려세워주면 주실수록 그이를 위대한 스승으로 우러르는 진정이 더욱 강하게 불타오르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 시의 사색적이며 철학적인 세계와 시적발견이 있는것이다.

시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는 인민과 혈연성을 이루고 참다운 인민의 정치를 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보다 더 구체적인 생활정서로 일반화하여 보여주고있다.

지금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의 최상의 자리에 서있는 서정적주인공은 진리도 인민속에서 찾고 힘도 신심도 인민에게서 찾으며 인민과 생사를 함께 하며 참다운 인민의 정치를 펴나가는 당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기며 사색을 펼친다.

아, 세상에 하늘이 높다 하지만  
당이여  
그대에게는 인민이 제일 높고  
사람에게는 혈육이 귀중하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인민이 혈육이여서  
피도 숨결도 인민과 잇고  
오늘의 일심단결을 안아왔거니

그대결에는 언제나  
인민이 동지로 함께 있고  
인민이 가는 길에는  
그대 늘 앞장에 서있어라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의 요구에 맞게 해결하는 복무정신을 가지고 군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책으로, 방침으로 만드는 우리 당은 인민을 박사로, 백과전서로 여기고 그들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다. 당이 아파하면 인민이 아파하고 인민이 안타까와하면 당이 시름을 놓지 못한다. 당과 함께 인민이 웃고 인민과 함께 당이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련계이다.

시인은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의 업적과 고마움에 취해 감동만 하지 않고있다. 《평범한 내가, 우리 당과 함께》 있고 《그렇듯 숭고한 자리에, 우리 인민모두가 서있음을》 자각하고 결의를 다진다.

당이여 위대한 당이여  
그대 크나큰 믿음으로 세워준 이 자리를  
우리는 세월의 끝까지 지켜가리라  
그대를 따라  
그대와 함께  
주체의 한길을 드림없이 가리라!

여기에서 시인의 사색은 우리 당이 세워준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에서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개방하는데로 집중되었다. 이리하여 시는 인민을 최상의 자리에 내세워주시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폭넓은 시적일반화로 깊이있게 노래하는것으로서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고있다.

시 《영원히 당을 따라》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된 감정이 생활세부적인것과 밀착되어 시세계를 펼치고있는데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시 《위대한 스승》이 주인공의 일생의 체험세계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자기의 서정세계를 인민적감정으로 승화시켰다면 시 《영원히 당을 따라》는 보다 더는 현시점에서 느끼는 감정세계를 통하여 당을 따르려는 인민적지향, 시대의 의지를 체현시키고있다.

언제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매없이 찾아오는 그대  
그 크나큰 가슴을 헤치고  
나의 말을  
스스럼없이 들어주는 그대

고르로이 쉬는 나의 숨결에서  
그대는 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고  
언듯 스치는 얼굴빛에서  
그대는 나의 소망도 다 알아보나니

우리 당이 이처럼 자애롭고 다심한 어머니, 천만가지 소원을 다 헤아려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기때 당과 함께 가는 길은 어려운 때도 즐거운 때도 언제나 보람차고 긍지로운 영원한 동행자의 길인것이다.

우리 당은 바로 그 인민의 마음을 진리로 알고 인민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정책과 로선을 세우고 인민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정치를 펴나간다.

그래서 우리 당이 펼치는 설계도우엔  
내 미숙한 생각도 다 있고  
내 소박한 희망도  
다 들어있어라

다 들어있어라  
불밝은 저녁 웃음속에 나누는

우리 가정의 그 이야기도  
아들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그 천진한 꿈도

참으로 이것은 인민의 지혜와 생각을 당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고 인민의 마음과 운명을 당의 마음과 운명으로 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우리 당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시의 사색적인 측면을 깊이 느낄수 있다.

그렇지만 시의 철학적인 세계는 한결음 더 전진한데 있다. 시는 서정적주인공의 당에 대한 체험을 시대의 의지로 일반화하면서 오직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숭고한 모습에 천만의 대오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 어떤 세상풍파도 다 이겨내며 전진하게 하는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여기에 강한 량만성을 체현시키고있다.

하기에 우리 당과 함께  
내 진펄길도 웃으며 건너리  
우리 당과 함께  
풍랑사나운 파도도 노래로 넘고  
불타는 강도 서슴없이 넘으리

정녕 우리 당과 함께  
서풍이 불건 남풍이 불건  
곧바로 천만리길을 달려가리  
세계를 휩쓰는 회오리바람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리리

우리의 심장이며 삶의 전부인 조선로동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나아가는 여기에 시대의 량만의 참다운 원천이 있다. 우리 시대의 량만은 우리 당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절대적인 신념에 기초를 두고있다. 우리 당이 혁명의 진두에서 령도하고있는 한 그 무엇도 두려울것 없으며 세월의 끝까지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며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인민이 신념으로 체득한 진리이다. 이 시대의 진리를 깊이 노래할 때 우리 시에서 참다운 량만적정서를 뜨겁게 체현시킬수 있다.

시 《영원히 당을 따라》는 이와 같이 시대의 진리로 체득한 진리, 참된 량만의 철학을 잘 노래하고있다. 하기에 우리는 이 시의 정서의 배후에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시대의 의지를 감득하며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의 충성과 효성, 그들의 모범을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기상, 세차게 일렁이는 량만의 물결을 보는것이다.

이것은 시인의 깊은 사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서적여운이다. 또한 새로운 시적발견이다.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노래한 시들은 시적발견이 새로운것으로 하여 참신하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것이다.

다섯편의 시는 하나의 시적대상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 시편들은 제나름의 정서 참신한 감정으로 되어있다.

생활과 시대에 대한 시인의 반향, 다시말하여 시인의 정서는 그야말로 각이하게 나타난다. 생활 그 자체속에 무궁무진한 온갖 종류의 음향이 있는것처럼 객관세계, 생활, 사회, 인간, 시대에 대한 시인의 반향도 그만큼 다양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노래한 각이한 시인들의 시를 놓고서도 결코 같지 않은 개성적인것, 참신한 시적발견에 대하여 말하게 되며 객관세계에 대한 시인의 반향 즉 시인의 정서를 시창작의 기초적인 생리로 증시하게 된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시창작에서 참신한 감정을 구현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신한 감정이 없을 때 시의 새맛을 느낄수 없다. 새맛이 없으면 벌써 시세계에로 사람들을 매혹시킬수 없다.

참신한 감정은 일반적으로 볼 때 새로운 사회적 주제의 발견, 새로운 사상의 천명 즉 새로운 시적발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창작의 실천적견지에서 볼 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개성적인 감수로 이루어진다.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노래한 시들은 하나의 시적대상을 놓고 그에 대한 시인들의 개성적인 감수로 하여 시의 참신성을 보장하고있다.

우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매개의 시편들에서 시대의 뉘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사색깊은 시적정서로 심장의 노래를 부른 시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것은 곧 시의 참신성이 비쳐주는 투영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더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상에서 필자는 시대의 뉘으로 되고있는,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받은 우리 시대의 감격을 노래한 시들을 심장의 문학(이렇게 부를수 있다면)의 견지에서 분석하였다.

시대와 생활에 대한 흥분과 공감과 격동, 총체적으로 우리 로동당시대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우리 시인들의 시정신에서 생명의 근본핵이다.

우리 시대를 뜨겁게, 열렬하게 포옹하라. 때로는 시인, 그대의 품에서 시대가 몸부림을 치며 모지름을 쓸 때에도 더 뜨겁게 더 열렬히 사랑하라.하여 시대가 기꺼이 그대, 시인에게 모든것을 《고백》할 때까지, 다시말하여 자기의 뉘을 다 줄 때까지



로동당시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심장으로 받아들여 심장으로 다시 노래하라.

참다운 당의 가수, 당의 영원한 동행자는 시대의 넋을 자기의 심장에 뜨겁게 받아들였다가 다시 시대의 심장으로 노래해야 한다. 다시말하여 당의 뜻과 당의 목소리를 최상의 시적높이에서 노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것이 언제나 새로운 울림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매일매일 창작한다는것, 한구절의

시행을 발견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자기 심장에서 울려나온 자기의것, 세상에 없는것을 자기가 찾아내여 첫 해빛을 보이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력사적인 회답서한에서 최고의 높이에 내세워주신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는 시인의 보람찬 삶과 영예가 있고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의 참모습이 있다.

## 나의 평양이어

황성하

누구나 너를 사랑한다고  
남에게 네 노래 맡겨두고싶지 않았다  
평양이어 거룩한 땅이어  
너는 다름아닌 내 고향이기에

오랜 력사에  
무훈의 전설과 아름다움으로 길이 남은  
모란봉기슭을  
뜨락처럼 뛰놀며 나는 컸고  
마음의 성지로  
승엄한 걸음들이 딛고 오르는 만수대언덕을  
학교길에 오르내리며 나는 자랐거니

누구나 한번 뵈아보기를 소원하는  
너의 거리엔  
동무들과 함께 심은 나무가 있고  
저기 개선문의 보이지 않는 석축엔  
스며있어라 너를 위해 바친 나의 땀이

쉬임없이 출렁이는 대동강물결이어  
네우에 마음없고 희망을 속삭였기에  
나의 꿈은 얼마나 푸르렀더냐 너처럼  
불빛 너울치는 밤거리의 은빛 가로수여  
네아래서 가슴 다는 첫 사랑의 노래 울렸기에

그 가락 또한 얼마나 황홀했더냐 너처럼

평양이어 나의 평양이어  
너처럼 밝은 창문들이 많은 거리 어디에 있고  
너처럼 나무들이 싱싱한 거리 어디에 있고  
너처럼 기념비들이 성스런 도시 어디에 있고  
너보다 더 높이 자랑할 고향이 어디에 있으랴

그 빛발 이 세상 끝까지 비쳐가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도  
봄이면 세계의 노래춤이 펼쳐지는 극장들도  
아름다운 공원들도 우아한 집들도  
나의 고향이라 부르는 이 영광 이 궁지

아름다운 그만큼 위대한 그만큼  
그대의 노래 내 다 못부른다 해도  
평양이어 이 몸에 가득찬  
너의 사랑 너의 숨결 너의 열정으로  
내 그대의 노래 부르고 또 부르려니

고향중에도 가장 위대한 고향  
노래중에도 가장 소중한 노래  
그대 품에 내가 있고 인류가 있는  
아 평양 나의 평양이어!

## 푸른 기슭에서

김철민

### 푸른 기슭

스무해... 세월이 흘렀다고는  
선뜻 믿어지질 않는구나  
내 사회생활의 첫자욱을 새긴 곳  
그립던 나의 옛 교정이여

하얗게 회칠을 한 단층교사  
숙인 추녀밑으로는  
낮익은 얼굴들 불쑥불쑥 나타날듯싶은데  
지금은 수업이 한창때  
어디선가 울려오는 풍금소리...

더듬더듬 찾아보는 나의 교실  
내 처음으로 섰던 교단우에도  
낮모를 처녀선생의 모습  
그래도 평하니 고이는 이 눈물  
긴 복도여, 너 조용히 받아다오

아, 갓 스물애  
파견장 한장 가버이 들고  
내 찾아왔던 학교  
조국이 불려준곳이길래  
꿈도 사랑도 열정도  
있는껏 퍼바친 교정

어느것 하나 무심하라  
벽에 걸린 그림판 한장한장  
저기 창너머  
해빛을 칠칠이 감은 교재림  
토끼사로 뻗은 한줄기 오솔길

예 비록 소문난교장이 아니고  
그 무슨 위훈의 일터가 아니였어도  
조국앞에 순결했던 젊은날의 자욱  
조용히 쓸어보는 이 가슴속에는  
찌릿한 공지가 차누나

나를 위해서는  
농가의 옷목에 트렁크 하나 놓았어도  
조국의 미래- 그 한 아이를 위해서는  
수십리씩 달그림자를 밟았고  
례사로운 한시간의 수업을 위해서도  
부피 두터운 참고서를 번지던 여기

아무런 타산도 요령도 거짓도 없이  
조국의 부름에 순진했고  
조국의 미래앞에 성실했던  
그것으로 하여 비록 소박한 교정이건만  
내 시줄에 담아 뜨겁게 노래부르나니

그리워서만 내 그리워서만  
예 다시 찾아온것 아니여라  
그 시절처럼 깨끗하게  
그때처럼 열렬하게  
어머니조국을 한생 받들고저  
떠나서도 아, 떠나서도  
마음의 닳을 언제나 드리우고 사는  
내 인생의 푸른 기슭이여!

### 나는 백양나무아래 서있네

이제는 어른들이 되었을  
나의 첫 제자들이  
여기 어디 있을것만 같아  
휘휘 둘러보는 옛 교정

해빛이 교루 누운 운동장에는

공을 차는 조무래기들  
낮설은 나를 홀끔홀끔 바라보고  
나는 그만 서있을곳을 잃고

다만 백양나무  
울담결에 줄지어 심은 백양나무들이

푸른 아지 정겨이 펼치고  
그들 한자리 내어주네

그 어느해 봄인가  
아이들과 함께 옮겨심은 이 나무들  
끼끗하게 자라오른 그 한그루한그루를  
나도 모를 걱정애 쓰다듬노니

선생님!- 겨끔내기로 소리치며  
매달리곤하던 나의 사랑동이들  
이제는 이 나무들처럼 자랐겠구나!-  
불시에 눈앞이 흐려지네

출석부에 그 이름들 올리기전에  
조국이 맡겨준 그 아이들  
내 심장속에 사랑으로 정으로 간직하고  
저기 교문가에서 맞이했거니

정녕 이렇게 자랐으리라

참으로 섭섭하였네  
그렇게도 만나고싶던 교장선생  
이제는 칠순이라니  
이래전부터 집에 들어갔다니

믿어지질 않아 우뚝 서버린 내앞에  
별스레 허전해진 교정  
운동장에는 있어야 할것이 다 없는듯  
교사의 복도에는 무엇인가 큰것이 빈듯

참으로 섭섭한 마음 안고  
나는 찾아갔네  
리에서도 제일 막 끝인 5작업반  
교장선생이 사는 낮은 집을

내 교원생활 10년간에  
그 집에서 열번 생일을 쇠었고  
그 프락에 아이들처럼 꽃꽂이 서서  
때로는 꾸중도 들었나니

그리고 무던했던 교장선생  
그리고 엄했던 교장선생  
지금 바로 내앞에서 교수안을 검열하는듯  
두터운 안경알이 얼른거렸네

제교장의 물고기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자가 무슨 소용이냐고

기울인 정성이 떨어지고  
들인 땀이 밀거름 되며  
졸업할 때는 하나같이 툼툼하던 그네들

이제는 조국의 대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푸른 아지 대공에 기운차게 뻗었을  
그 모습들 안아보며  
가슴은 그냥 들먹거리...

아, 자기의 청춘이 헛되지 않았음을  
중년이 되어서 느낄 때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인가를  
백양나무아래서 나는 안아보네

내가 키운 제자들 같아서  
내 청춘의 자랑같아서  
늘씬한 백양나무줄기  
자꾸만 자꾸만 쓸어보며 서있네

## 교장선생

제 먼저 바지가랭이 걸고  
저 두무레 물역에 침방이던 모습이 보였네

그리고 열정이던 교장선생  
그리고 뜨거웠던 교장선생  
정녕 나이란 어쩔수 없는것인가  
피로움을 씹으며 나는 찾아갔네

-아니 이게 누군가?!  
부여잡는 늙은이의 떨리는 손  
집안으로 나를 이끄는데  
나는 다시 우뚝 서버렸네

열어제긴 두칸방에  
병아리떼처럼 오구구 모인 아이들  
옛 교장선생 하는 말이  
이제는 동네 아이들의 학습반장이 됐다고...

코물이 훌쩍거리는 조무래기들  
때문은 숙제장을 무릅없이 내들고  
교장선생더러 수표해달라네  
로인의 얼굴은 금시 함박이 되네

그랬네 정말 그랬네  
한생 조국의 미래를 위해 고동친 그 심장  
늙을수 없어 늙을수 없어  
오늘도 내 삶의 변함없는 교장선생이였네

까만 눈동자들이 바라본다

귀익은 수업종소리  
지금 막 울린듯  
옷매무시 바로잡으며  
그날의 교단에 나는 선다

창으로 비쳐든 푸른 달빛이  
부드러이 쓰다듬는 교실은  
이밤 텅비여 고요하건만  
나에게는 별처럼 별처럼  
까만 눈동자들이 보인다

마음은 금시 그날에로 돌아가  
출석을 부르듯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  
천수, 세영이, 이남이...

너희들의 맑은 눈동자에  
거울인듯 비치는 나를 두고  
흥정할수 없던 시절이여  
엄해야 했던 나날이여

땀들여 준비한 수업을  
너희들의 눈동자는 잘 알아  
그리도 생생히 평가했고  
때로 설치는 한마디 설명을  
실망한 그 눈빛으로 용서치 않았거니

늘쌍 새둥지에만 마음 가있던  
장난꾸러기 세영이  
너 지금 여기 앓았다면

내 얼마나 따뜻이 일깨워주랴  
그때처럼 말고 좀더 친근하게

그리고 까다로운 수확문제앞에  
늘쌍 뒤더수기를 굶던 천수  
지금이라면 내 지금같다면  
결코 성내는 일 없이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련만

지금은 내앞에 너희들이 없구나  
때늦은 후회는 마음 아픈것  
조국의 미래를 위해  
더 기울이지 못한 사랑이 가슴친다

허나 내 이 교단을 떠나지 않으려니  
비록 초소는 바뀌었어도  
마음은 이 소박한 교단우에 서서  
너희들의 그 눈동자앞에  
솔직한 평정을 받고싶다

제자들이여 평정해달라  
너희들이 어릴 때 말하듯이  
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대도  
거울처럼 맑은 그 눈동자에 나를 비쳐  
그때처럼 숨김없이 평정해달라

아, 한생 후회없이 살기 위해  
순간순간을 조국앞에 깨끗이 살기 위해  
마음을 이 키넛은 교단에 영원히 세우고  
내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리라  
까만 눈동자들이 나를 바라본다-

## 조국의 첫 아침을 맞으며

강명숙

대동강반 버들과도 악수 나누고  
지나가는 구름에도 손저어보네  
아, 조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  
첫인사 드리는 이 마음 설레네

지저귀는 새들과도 속삭여보고  
이름모를 들꽃에도 입맞춰보네  
아, 조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

첫사랑 그때처럼 이 가슴 높뛰네

꽃밭의 나비따라 어깨춤 추어보네  
이역살이 맺힌 시름 다 풀리네  
아, 조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  
이 땅의 딸이 된 기쁨이 나래치네

(재일본문학예술동맹 이바라기현 맹원)

## 잡지 《조선문학》과 45년

좌담회 참가자

정서촌: 《김일성상》계판인, 문예출판사 사장

김병훈: 《김일성상》계판인, 조선문학창작사 사장

김병두: 시인

현희균: 소설가

김문화: 소설가

본사기자

본사기자: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역사와 더불어 창간 45돐을 맞는 잡지 《조선문학》을 놓고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여기 모이신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행복한 새 삶을 안겨주신 그때로부터 《조선문학》과 함께 시대의 첨단에 선 작가로서의 자기 희망을 활짝 꽃피워오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망국노의 설음안고 모태기던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글에 정의와 진실을 담을수가 없었고 설사 그런 글을 쓴대도 발표할 지면이 없었습니다. 민족적지조를 버리지 않은 문인들끼리 잡지를 내보자고 입었던 옷까지 전당포에 맡기면서 푼전을 모아도 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빗더미위에 올라앉거나 설사 책을 찍는 경우에도 일제의 검열과 탄압으로 말미암아 압살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자기들의 참된 조직을 가지고 그 기관지인 《문화전선》(《조선문학》전신)을 받아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세월과 더불어 《조선문학》은 자기의 창간 45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문예출판사는 문학예술작품을 전문적으로 편집출판하는 유일한 출판기관입니다.》**

정서촌: 《조선문학》 창간 45돐을 맞고보니 생각되는것이 많습니다.

나라가 갓 해방되어 진국열의로 들끓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련맹(그후 《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을 결성하시고 그 기관지로서 잡지 《문화전선》을 발간하도록 하여주시고 그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수 있는 출판사인 문화전선사까지 내오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습니다.

여기 창간호가 놓여있지만 그때 잡지 편집성원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나 나라를 찾아주시고 진정한 인간의 참된 권리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만은 가슴가득 안고살았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잡지의 맨 첫머리에 정중히 모시자는 한결같은 소망을 안고 달라붙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출판일군들의 심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새로 창간되는 잡지에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옆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 만세!》의 구호를 주었으며 아래에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사를 받쳐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수령님께서 발포하신 《20개조정강》을 게재하였습니다.

잡지가 나오자 우리 잡지를 제일 처음 보아주신 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습니다.

본사기자: 말하자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선문학》의 첫 독자이신셈이였군요.

정서촌: 그렇습니다. 1946년 9월 2일 문학예술부분의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습니다. 여러가지 책들과 서류들이 쌓인 책상앞에 앉으시여 무슨 책인가 보고계시다가 일군을 맞아주신 수령님께서 《문화전선》 창간호를 보았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원고단계에서만 보았던 일군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올리는데 그만하면 내용도 괜찮은것 같다고 치하의 말씀부터 하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창간호로서는 책이 좀 작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잘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고무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출판사의 편집력량을 잘 꾸려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었으며 잡지의 운영방법과 잡지의 형식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해서, 잡지를 매달 정기적으로 출판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줄데 대해서와 내용이 풍부하게 글을 잘 쓰고 편집을 다양하게 하여 독자들의 기대와 흥미에 맞게 출판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특히 출판기일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습니다.

또한 잡지 《문화전선》을 문예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 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내용과 형식을 발전

시켜나갈수 있도록 당에서 방조를 주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앞으로 잡지의 부수와 페이지수도 늘이고 책장정도 잘해서 인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할데 대해서와 단편소설집, 시집들을 비롯한 단행본들도 출판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문화전선사에 대한 경제적방조를 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한편 그곳 일군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 강요한 의지로 곤난을 극복할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습니다.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화전선사에 대한 방조문제를 친히 재정국에 위임하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문화전선사구좌에 운영자금 10만원을 등기로 보내도록 하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10만원! 그것은 당시의 어려운 형편에서 눈물없는 받을수 없는 귀중한 자금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속에서 문화전선사는 1946년말부터 《문화전선》만이 아니라 단편소설집, 시집을 비롯한 단행본들을 출판하게 되었으며 문예총출판사를 내오고 각종 문예도서들을 발간하는 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후 문화전선사는 문예총출판사와 합하여 조선작가동맹출판사로 되었다가 1961년 가을에 이르러서는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조선예술사를 비롯한 여러개의 문예부문출판사를 통합하여 문예출판사로 공화국의 유일한 문학예술출판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길은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본사기자: 그때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병두: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은 전쟁이 일어나던 때의 일입니다.

본사기자: 참 선생님은 1949년 가을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직전까지 편집부에서 일하셨지요.

김병두: 그렇습니다. 스물한살에 해방을 맞은 저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그중 글을 써보고싶은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의 하나였는데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덕에 앞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스물세살나던 해에 기자생활을 시작했고 49년 가을부터 《문학예술》(《문화전선》 후신) 기자로 편집활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집사업도 전시체제로 넘어갔고 많은 기자, 편집원들이 종군하러 전선으로 달

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명 남지 않았지만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의 심정으로 잡지편집을 계속해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개시와 관련된 첫호에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를 잡지에 인침 게재하여 싸우는 인민군전사들과 후방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김병훈: 이자 종군문제가 나오니 우리 작가들이 받아안았던 사랑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전쟁이 일어난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승리를 위한 작전문제를 벌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학예술부문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요새 작가들이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 그들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였습니다. 그 일군이 작가들이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전선종군을 열렬히 탄원하고있는데 대하여 보고드리자 수령님께서서는 만족하신 표정으로 작가들이 성스러운 싸움마당에 나가서 적과 싸우면서 글을 쓰겠다는것은 참 훌륭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이 전투훈련을 받지 못했으니만큼 가렬한 전투마당에서 무의미한 손실을 입을수 있으니 작가들의 신변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군사행동과 전투상식에 대하여 배워주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에게 신임장도 내주어 그들의 사업에서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며 가족들도 안전한 후방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겠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자신의 친필종합이 모셔진 종군파견장을 수여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수표를 하시여 보내주신 전선종군파견장을 받아안은 작가들은 이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싸울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본사기자: 불같이 뜨거운 이런 사랑을 받아안았기에 승리의 개가높은 대전거리에, 피어린 락동강물결우에도, 남해가 바라보이는 무명고지에도 작가들의 발자국은 무수히 찍혀졌고 인민군전사들의 위훈은 그들의 취재수첩과 원고지를 거쳐 전투적인 작품으로 되어 출판사에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정서촌: 그렇습니다. 종군작가들은 날마다 기적같은 위훈을 담은 작품들을 보내며 그것이 하루빨리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바랬는데 그때 출판사의 조건은 정말 간고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 편집부에서 일하던분들이 계시지 않고 술한 편집원들이 세대교체를 했지만 우리는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라고 요구하군한답니다.

당시 편집부는 평양시 강동군 송학리에 있었고 인쇄공장은 그곳에서 얼마쯤 떨어진 대천리에 소개되어있었습니다. 편집부의 인원도 얼마 안되었지만 그보다는 인쇄공정때문에 더 애를 먹었습니다.

대피도중에 인쇄기를 실은 자동차가 적비행기의 폭격을 받다보니 부속들이 적잖게 마사지고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편집원들이나 기계를 다루는 인쇄공들이나 그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짐을 옮겨놓자마자 폭격받은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흩어진 기계부속들을 하나하나 주어모아다가 밤을 새워가며 때고 붙이고 줄칼로 쓸었으며 모자라는 부속은 시내에 들어가 폭격받은 공장구내들을 찾아다니며 해결해왔습니다.

그때는 무서운것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는 든든한 배짱들이 있었고 해방후 5년간의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참된 삶을 누려왔기에 다시는 식민지로 될수 없다는 신념이 불같은 의지를 낳게 했습니다. 소개한지 열흘도 못되어 지붕도 없는 공장부지에 평판기 한대를 조립하였고 동력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손으로 피대를 당겨가면서 기어이 첫 인쇄물을 찍어냈었습니다.

본사기자: 그야말로 싸우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의지로 일을 해나갔군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문학예술을 싸우는 인민의 무기로 보시고 작가들을 인간정신의 기사로 높이 불러주셨는데 출판일군들이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병훈: 옳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2년 여름 당시 강동군 시죽면 송학리에는 문예총산하 각 동맹의 창작가들과 그 가족들이 소개되어있었습니다. 무더운 8월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의 폭격이 우심하던 그때 몸소 백마를 타시고 장수원호수가의 오솔길을 따라 송학리에 오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호수가언덕에서 말을 멈추시고 나무밑등에 말을 대신채 밤나무숲속에 자리잡고있는 한 기와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ㄷ자형으로 된 이 기와집의 원채에는 한 기관의 일군들이 있었고 사랑채에는 작가들이 살고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창작세계에 묻혀있다가 달려나오는 작가 최명익선생을 반갑게 맞아

주시며 산골에 와서 고생을 한다고 위로의 말씀부터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날씨가 더운데 방안보다 서늘한 나무밑이 더 좋다시며 호수가언덕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호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언덕의 큰밤나무밑에 이르시여 풀밭에 허물없이 앉으시면서 따라선 사람들도 편히 앉도록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시며 작가에게 지금 무슨 작품을 쓰고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작가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국놈들의 군용렬차를 전복시키는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을 쓴다고 말씀드리자 만족을 표시하면서 그런 작품을 많이 써서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용감성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창작가들이 이런 산골에 와서 곤난한 일이 많을텐데 어서 말하라고 거듭하여 물으시였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의 식량과 부식물을 승호리에 가서 받아오는데 거리가 근 40리나 되며 게다가 놈들의 폭격에 수송에 리용하던 소마저 잃어 애를 먹고있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왜 수송문제만 걸리겠는가고 하시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날이 오래지 않았는데 그때에는 작가들의 창작조건을 잘 보장해줄수 있을것이라고 행복한 래일의 전망을 펼쳐주시였습니다. 또한 전선과 후방을 령도하시느라 바쁘신 몸이었지만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허물없는 청을 기꺼이 받으시여 오래도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백마를 타시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시며 떠나가시였습니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직후 송학리창작실로는 새 화물자동차와 함께 많은 원호물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들의 생활을 념려하시여 보내신 사랑의 선물이였습니다. 그후에도 많은 량의 목재와 벽돌을 보내주시여 문예총의 전시청사와 창작가들의 합숙을 짓도록 해주시였습니다.

본사기자: 인류전쟁사상에는 군마에 올라 보병과 기병의 대군을 사열한 사령관은 수많이 알고있으나 정녕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몸소 백마에 오르시여 작가들을 찾아준 령장, 인민의 사령관이 있음을 력사는 기록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원썬들의 발악도 더욱 우심해졌지만 해빛보다 따사로운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인민모두를 보살피고있었기에 패전을 몰랐다면 미제국주의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고 승리를 안아올수 있지 않았습니까.

현희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승리한 우리 조국땅우에 찾아온 환희는 이루 말할수 없이 컸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우에는 벽돌 한장 성한것 없이 다 파괴되었으나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희망과 희열이 넘쳤으며 우리 평양, 우리 조국을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려는 욕망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정전직후부터 잡지 《조선문학》 편집부에서 일했는데 당시 우리 편집원들의 열의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 시기에 전쟁승리를 위하여 싸워온 인민군전사들과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전후복구건설, 농업협동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나온것은 작가들의 높은 창작열의와 함께 우리 편집일군들의 노력도 컸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 《평남관개시초》와 단편소설들인 《직맹반장》, 《빛나는 전망》,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등이 당시 우리 잡지에 편집된것들이였습니다.

김병두: 정말 그 시기에야 누구나 다 허리띠를 조여맸고 옷도 좋은 옷을 못입었지만 누구나 그것을 타할줄 몰랐고 오직 조국을 위해 뛰어다녔지요.

현희균: 그때 사는 재미를 투쟁속에서 찾았습니다. 날마다 새기적이 일어나 어제일이 낡은것으로 되고 오늘의것만이 새것으로 되군해서 기자들이 글을 쓰기 바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어느날 평양역사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편집에 여념없던 우리였으나 하던 일을 제껴놓은채 모두가 평양역사로 달려갔지요. 그때 평양역사가 왜 그리도 커보이던지 모두 입을 벌린채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고 어린애들처럼 들떠서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아래층에서 웃층으로 떠들며 오르내렸습니다.

김문화: 방금 여러 동무들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신은 천리마대고조시기에도 다름바 없었습니다. 하루일이 끝나면 모두가 건설장으로 달려가 땀을 흠뻑 흘렸고 다시 달려와서는 편집사업으로 새벽을 맞이하곤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적같은 현실을 작품에 담는 작가들을 찾아 떠나없이 달려다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시기에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편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

셨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문학예술인들의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워주시였으며 우리 문학에서 큰 형식의 수령형상작품들과 함께 짧은 형식의 단편문학들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 몸소 그 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작가들은 송가문학과 더불어 수령형상단편문학을 활발히 창작하기 시작했으며 편집원들은 최상의 수준에 이른 위대한 수령님 형상 단편소설들을 편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60년대말부터 잡지 《조선문학》은 수령형상 단편문학들을 본격적으로 편집하기 시작하였는데 단편소설들인 《조선의 힘》, 《큰 심장》, 《눈석이》, 《꼬마보초병》을 초기 대표작들로 꼽을수 있을것입니다.

본사기자: 그러니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문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자기 수령의 위대성에 감복한 작가들과 그들과 일심동체가 된 편집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60년대에 수령형상문학이 문단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군요.

김문화: 그렇습니다. 또 천리마운동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고있던 때에 천리마기수들을 형상한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편집해가는 과정에 우리 《조선문학》편집부는 출판사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녀 천리마기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다름바 없지만 그때는 우리 나라 문학발전이 《조선문학》을 중심에 놓고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습니다.

본사기자: 그러고보면 《조선문학》편집부는 출판사의 기둥이였고 문학발전의 제1선에 서있는 셈이군요.

일동: 그렇다고 볼수 있지요.

정서촌: 《조선문학》은 1960년대, 70년대에 이어 80년대, 90년대에도 우리의 문학발전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히 가지고 우리 문학을 당의 의도에 맞게 옹게 반영하여왔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올수 있는것은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 시기시기 당적출판물들이 나아갈 길과 출판사의 사명과 임무를 뚜렷이 명시하여주시곤하시였습니다.



잡지 《조선문학》도 그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키를 키워왔습니다.

보기도 시원하고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조선문학》의 표지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깃들어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잡지 《조선문학》의 표지를 새롭게 하도록 친히 도안까지 보아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또한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때에는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많이 편집하도록 편집방향을 가르쳐주시었고 잡지편집이 고정격식화되지 않게 고전문학작품들과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외국문학작품들도 편집함으로써 문학잡지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그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잡지의 정주번호인 400호와 500호 기념보고회를 크게 하도록 배려하여주시고 한일도 없는 우리 편집원들에게 높은 국가수훈과 함께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었습니다.

김병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에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지난해 말에는 우리 시인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작가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고 세상에 돌도 없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었습니다.

본사기자: 세계에는 정녕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지만 어느 나라, 어느 수령, 어느 령도자가 한갓 창작과 출판업에 종사하는 전사들을 이처럼 아끼시고 키워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신 일이 있습니까. 하기에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를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의 행복한 삶을 말할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병두: 그래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위대한 스승,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라는 걱정의 웨침을 절로 터치고있는것입니다. 이 뜨거운 찬가는 우리 작가, 편집원들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찬가인것입니다.

일동: 참말 옳은 말입니다.

본사기자: 은혜로운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그 자양분을 받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조선문학》 역시 그 품에서 태어나 그 품을 노래하며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길 역시 우리 머리우에 빛나는 찬란한 해와 별이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이 불어온대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곳곳이 나아갈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모여앉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의 잡지편집에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45년이라는 긴 역사를 놓고볼 때 잡지 《조선문학》은 우리 작가들이 한시도 떼놓고 생각한적 없는 친근한 길동무였습니다. 해방후 북반부에 손가락으로 꼽을만큼밖에 없던 작가들이 오늘은 우리 문단에서 작가동맹 맹원만 해도 수천명으로 자라나 문학대오가 강화되고있습니다.

앞으로 편집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회답서한을 받아안은 작가들의 양양되고 고조된 창작활동을 잘 뒤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렬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 우리 문학은 또 한단계 발전할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현희균: 지나온 생활이 증명해주는바와 같이 탄광을 실패들어본다면 작가는 한 막장에서 탄을 캐는 탄부와 같고 편집원은 탄광전체의 생산물을 살펴며 종합하는 사령원격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편집원들은 작가들에게 작품들을 포치하고 그 정형을 수시로 료해하며 원고작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문학운동을 더 활발히 벌려나가는 데 이바지해주었으면 합니다.

김문화: 잡지가 독자들의 흥미를 끝자면 평론들을 신되 선도적인 평론을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평론운동을 몇몇 전문가들에게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문학발전을 위한 평론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본사기자: 좋은 말씀들입니다. 우리 편집사업에서 참작하여 잡지 《조선문학》을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문학》창간 45돐을 맞는 뜻깊은 좌석에 모여앉아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창작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 사회주의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본사기자 리종성**

# 당을 따르는 길에

리종덕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한없는 궁지와 자랑으로 부풀어  
하늘이 들리도록 높이 올리는  
그대의 노래 들을 때면  
그대를 따라온  
나의 작은 발자욱도 밟혀오더라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것은  
전쟁의 그 엄혹하던 나날  
아직은 걸음도 채 못배웠던  
나는 철부지였건만  
어머니등에 업히어서도  
그대를 따라 걸었으니

흰 무명적삼의 어머니  
정든 트랙을 떠나  
어찌하여 그렇게도 어려운 길을  
고무신의 그 걸음으로  
서슴없이 시작했던지

생각해보면  
성인학교에서 갓 글을 배웠던 어머니  
당이란 그 깊은 뜻을 어찌 다 알았으랴만  
당을 따라가야만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그 한가지 생각뿐이었으니

어려워도 힘겨워도  
한걸음 되돌아설줄 몰랐던 그 걸음이  
위대한 당과 한걸음이였음을  
나의 어머니는 미처 몰랐어도  
당과 함께 한생을 걸어온 어머니  
후날-  
이 아들의 무릎을 베고 한생을 마칠 때  
얼마나 조용히 눈을 감을수 있었던가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그대는 참으로 무엇이기에  
그대의 품 그대를 따르는 길에서는  
죽어도 행복에 눈굽을 적시고  
말못할 궁지와 자랑으로  
이렇듯 가슴이 부푸는것이냐

오, 그대의 위대한 뜻  
나도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으랴만  
그대를 따르던 첫걸음부터  
그대를 따르는 길밖에는  
내 운명의 또 다른 길이 없음을  
피로 심장으로 체험했나니

그래서  
나의 신념  
당을 따르는것이라면  
인민을 위해서는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대의 좌우명이거니

그대를 따라서라면  
설사 사막이 막아설지라도 가리라  
사막우에도 꽃을 피워줄 그대이거니  
날바다가 막아서도 가리라  
암초도 비켜주고 풍랑도 잠재워줄  
위대한 향도자이거니

그대를 따르는 길에  
어려움도 있음을 어찌 모르랴  
강철의 의지인 그대  
폭풍이 막아서도  
서슴없이 헤쳐갈 그대거니

그대 지닌것은 오직  
황금도 재부도 무색케 하는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뿐

그 사랑으로  
그대와 인민인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의 영원한 생명체로 되었거니

오, 조선로동당이어  
어머니를 따르듯  
내 그대만을 이렇듯 따르는것은  
나 하나만이 아닌  
수천만 인민대중의 운명인  
사회주의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오직 그대만이 이끌어주기때문이어라

## 강변의 버드나무

손광영

련광정을 등지고 웅벽을 따라 뻗어간 유보도에 잠깐 서면 강변의 그 버드나무가 바라보인다. 운치 좋은 대동강 기슭의 어디를 가나 만다들리게 되는 것이 수양버들이지만 그 나무가 유독 나의 눈길을 끄는것은 제물리에서 떨어져나와 인적드문 옛성벽 아래 외홀로 서있기때문이다.

이른봄, 그믐에 우뚝 서서 성돌썰미로 내번지는 눈석임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축축하고 미끄러운 옛성벽과 그우에 깊숙이 들어앉은 련광정의 검푸른 지붕을 삼단같은 아지사이로 목아프게 바라보느라면 한쪽의 훌륭한 풍경화를 마주한듯 경탄을 금할 길없다. 마치도 이 땅우에 흘러간 세월의 흔적이 자기의 촌촌한 년륜속에 다 머물러있는듯 리갈라진 검고 툇툇한 껍질을 아름드리밑동에 둘러감고 서있는 강변의 버드나무... 강바람이 높아진 물결을 기슭쪽으로 밀어갈 때면 그 버드나무는 세차게 훑날리는 아지사이로 좌아-장쾌한 파도소리를 내는데 나에게서는 그것이 단순히 자연의 음향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자기를 두고 떠나간 누군가가 그리워서 발돋음하며 애타게 소리쳐부르는것 같기도 하다. 하여 이 버드나무아래 설 때마다 지난해 가을날에 들었던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사랑과 리상의 표본처럼 생각되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르곤한다.

내가 그들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바로 그 버드나무아래서였다. 한세기는 자랐을 수양버들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곳-대동강 기슭을 웅위한 옛성벽 아래 서있다. 나는 퇴근후나 일요일 서재에서 작품창작에 전념하다가도 생각이 트이지 않으면 다리쉽도 할겸 여기로 나온다. 옥류교밑으로 빠져 대동문을 바라고 걸느라면 자연히 그 옛날 고려의 산수사인 김황원이 지었다는 시 한수가 떠오르곤한다.

긴 성 한쪽에는 늑실늑실 강물이요

넓은 들 동쪽머리엔 띄엄띄엄 산들일세

웅벽우에 휘늘어진 버들가지들에서 버들씨가 하얗게 날린다. 안개처럼 가볍고 민감한 그 《눈송이》들은 강반에 유정한 정서를 안겨주며 내리다가는 옥류교를 지나는 전차의 진동에도 놀란듯 머뭇거린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련광정 기슭의 버드나무근방으로 가는 나의 걸음도 자연히 머뭇거리게 되었다. 나보다 먼저 버드나무를 차지한 알지 못할 처녀와 총각때문이었다. 초록빛 원피스의 처녀는 가름한 얼굴이 무척 맑고 명랑해보였다. 그것은 살

빛때문만이 아니었다. 내부로부터 어쩔수없이 발산되는 젊음과 건강의 빛발때문이었다. 그 빛은 류달리 검고 웅심깊어보이는 눈동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연회색봄양복의 앞섶을 헤쳐놓은 청년의 희어털끔한 얼굴은 력기선수처럼 건장한 체력과 호인다운 성격을 은근히 강조해주는듯싶었다. 넓은 이마아래 자리잡은 술많은 눈썹과 어글어글해보이는 두눈, 약간 두툼한 입술, 우뚝한 코마루... 처녀라면 누구나 쉽게 반해버릴수 있는 젊은이었다. 그들은 강변의 버드나무와 인연이 깊은듯 날저물도록 떠날줄 모르고 기슭의 잔디나 뻘취우에 앉아 이야기에 열중하는것이였다. 때로는 청년이 무슨 우스개소리를 하였는지 처녀의 맑은 웃음이 물우로 달음쳐가기도 하였다. 어떤 날은 무엇때문인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처녀가 나한테 다가와서 협력해줄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는 그들이 어찌하여 세월향이나 연개소문같은 력사적인물들의 일화를 화제에 올리게 되었는지 다는 알길 없어도 별다른 문제때문에 다투게 된 젊은이들의 중재자로 나서는것이 싫지 않았다. 하여 나는 처녀의 청탁보다도 두사람의 관계를 풀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은근히 원심을 쓰곤했는데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곤하였다. 그러건말건 나는 다시 화해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한번은 강변에서 봄소나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우산을 못가지고 나왔었다. 그래서 비 그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그 버드나무아래 서있던 두 젊은이가 소리쳐부르는것이였다.

《아바이, 빨리요.》

나는 마주 달려나온 처녀의 부촉을 받으며 버드나무밑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총각이 우산을 내밀었다.

《이건 아바이가 쓰십시오.》

《허- 그럼 자네들은...》

워낙 진달래무늬의 작은 양산이여서 둘이 받을 형편은 못되나 이들에게엔 오히려 그 면적이면 충분할것이다. 내 마음을 어느새 알아챘는지 처녀는 수태를 머금은 얼굴로 말하는것이였다.

《아이, 우린 일없어요.》

《어째서?...》

《아직 젊거든요. 참 이것보세요. 이 버드나무도 비를 맞고 있지 않나요.》

《웁습니다 아바이, 류경동문 자기도 한그루의 버

드나무라고 했습니다.》

《어마나!》

청년은 처녀의 당황한 모습을 보는것이 유쾌한듯 비물이 미끄러져내리는 버들가지들을 올려다보며 절절 웃었다.

(버드나무란말이지. 강변의 버드나무...)

어쩐지 그 표현이 마음에 들어 나는 처녀한테서 버드나무와 흡사한 그 어떤 상징적인것을 찾으려고 하였다. 처녀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호수처럼 맑고 웅심깊어보이는 두눈이 검은 수풀같은 속눈썹에 가리워진다. 물결우에서 얼른거리는 은회색반사광이 처녀의 자태를 신비롭게 비추주고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류경이란 이름과 호리호리한 몸매의에는 버드나무와 흡사한것을 끝내 찾을수 없었다.

그해 여름을 나는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에서 보냈다. 청년광부들의 생활을 취급한 새로운 중편소설을 쓰기 위한 현실체험의 나날이었다. 때로 나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착암기로 암반에 발과구멍을 뚫기도 하고 작품의 주인공과 더불어 그들의 생활이 시작될 소박한 주택지구를 미리 거닐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고산지대의 정열적인 여름이 가고 나의 현지생활도 끝났다. 내가 정든 대흥땅을 떠나는 날 그곳에는 온 나라의 관심속에 첫 지원자들이 도착했다. 군복차림 그대로인 수백명의 끝끝한 제대군인들, 정성대학 학생들과 재봉공처녀들, 은물의 세쌍둥이... 그런데 나는 그들을 환영하는 역두에서 뜻밖의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 처녀는 류경이와 신통히도 모습이 같았다. 혹시 정말 류경이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아니 그럴수 없지) 하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달포전까지도 대동강변이 그 버드나무밑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처녀가 이 대흥땅에 그것도 첫 지원자들의 대오속에 끼여올리 없는것이다. 그저 호리호리한 몸매에 키며 생김새가 비슷할뿐이지 류경이는 아니라고 자신을 납득시키며 차에 올랐다.

수도로 돌아온 나는 그새 체험한 생활을 토대로 하여 초고집필에 들어갔다.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습관을 쫓아 대동강변에 나가 산보를 하며 김향원의 시를 중얼중얼 외워보기도 했다.

긴 성 한쪽에는 늑실늑실 강물이요

...

나의 모든 생활은 다시 현지체험이전으로 돌아갔다. 변화된것은 체질뿐이었다. 아니, 달라진것이 또한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강변의 저 버드나

무밑에서 사귄 두 런던-류경이와 그의 애인 총각을 더는 볼수 없는것이였다. 웬일일까? 잊지는 계절이라 이 강변이 정담을 나누기에는 철이 늦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새 벌써 결혼을 해서 이제는 강변의 이 버드나무가 필요없어졌는가?...

열흘가까이 지나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련광정아래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강변의 외로운 버드나무는 또다시 나를 위한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강변으로 나왔던 나는 그 버드나무아래서 낮익은 청년을 보게 되었다. 진회색코트를 입은 그 젊은이는 기슭이 탄탄한 포석우에 형체가 분명치 않은 그림자를 던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 묵묵히 서있었다. 어쩐지 외로와보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무작정 반가웠다.

《이거 오래간만이구만! 젊은이...》

청년은 나를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마침내 기억을 더듬어냈을 때에도 그의 눈가에는 한줄기 어색한 미소가 언뜻 스쳐지나갔을뿐이였다.

《아바이시군요.》

그저 그게 다였다. 비로소 나는 청년의 표정에 어린 번민과 고독의 그림자를 포착하였다.

《그런데 왜 혼자뿐인가?》

《...》

청년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대신 고개를 돌려 멀리 강건너 동평양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것이였다. 나는 그 어떤 상서롭지 못한 예감을 느끼며 룡담삼아 물었다.

《이보게, 어찌된 일인가? 혹시 처녀에게 배반이라도 당한게 아닌가?》

그래도 여전히 말이 없던 청년은 한참만에야 나를 향해 돌아서더니 입을 열었다.

《아바이의 눈은 속이지 못하겠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반당한건 제가 아니라...》

청년은 가슴을 높이 들었다놓았다.

《?!...》

머리우에서 철새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떨어져 내린다. 석양의 빛이 다 지워지지 않은 불그레한 하늘가로 기러기 한마리가 끼룩끼룩 구슬프게 울며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어찌하여 외로운 저 기러기는 이제야 제무리를 찾아가는가?

《제가 그 동무를 처음 알게 된것은 지난봄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그날 저는 동평양에 사는 형님께 집으로 가느라고 려객선편으로 대동강을 건너갔더랬습니다. 선보러 가는 길이라고도 할수 있었지요. 나이 스물여덟이 되도록 미혼인 저때문에 은근히 속을 태우는 형님이 좋은 처녀를 하나 물색했다는 기별을 보내왔던것입니다. 휴식일이라 유보도에는 쌍쌍이 거닐거나 사진을 찍는 청춘남녀들이 많

있고 강변의 버드나무 숲속에서는 들놀이를 나온 어느 직장사람들의 오락회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모든 강안풍경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둘러보며 나는 대동교쪽으로 천천히 내려가고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갑자기 뒤에서 〈동무! 동무〉 하고 찾는 소리가 들리어 무심히 돌아다보니 넥타이를 날리며 내 나이또래의 웬 청년이 처녀의 손을 쥔채 달려오고있었습니다.

〈저를 찾습니까?〉

어안이 병병한속에 제가 묻자 앞에 와 선 청년이 헐떡거리며 대답하는것이었습니다.

〈오, 옳소. 바로 동무를 차, 찾았소.〉

급하면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 모양이었습니다.

〈? ? -〉

〈이, 이 처녀가 오락회에서 지명됐는데 도, 동무와 같이 2중창을 부르겠다는단.〉

(일인즉 그렇게 된게로군.)

저는 내심 당황하면서도 얼른 처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녀는 보통기에 초록색원피스를 입었는데 몹시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외로 숙인탓에 자세히 볼수는 없으나 얼굴 생김새가 단정하고 얌전하다는 인상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내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다 까짓거 이런 얌전하고 고운 처녀하고라면 노래아니라 춤이라도 출수 있다 하는 배짱으로 제깍 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락회장내에 들어서고보니 무슨 노래를 불러야할지 몰라 저는 멍청히 처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처녀 역시 결심이 서지 않은듯 얼핏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처녀의 밝고도 시원한 눈빛에 저는 머리가 핑- 도는듯하였습니다. 비로소 알게 됐지만 처녀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있는것이 보기 딱했던지 오락회책임자가 옆에 오더니 귀뜸해주는것이었습니다.

〈아 저 있잖소? 《좋은 때 좋은 날》 하는 노래말이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축복하노라〉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었던지 저는 곁에 선 처녀가 어떤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지 하나도 가려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혼자 목청을 뽑다가 웃음소리가 쏟아지기에 노래가 끝났나부다하고 둘러선 구경군들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강변을 떠나 형님네 집으로 가면서 저는 함께 노래를 부른 그 초록빛원피스의 처녀를 생각했습니다. 그 시원하고 아름다운 눈을 그려보고는 그런 처녀를 애인으로 가질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랴하는 어리석은 욕심까지 부려보았습니다.

그날저녁이었습니다. 미리 약속된대로 저는 형님

과 형수를 따라 아파트 옷층에 산다는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녀의 부모님들과 형님네외간에 혼사말이 오간 뒤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모두 자리를 피하는것이었습니다. 맞선을 보라는거지요. 그런데 전실에서 떠밀려들어온 처녀가 누구였겠습니까? 뜻밖에도 낮에 강변에서 노래를 함께 부른 그 초록빛원피스의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원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는가?...

처녀의 이름은 서류경, 나이는 스물넷, 시악기공장에서 설계원으로 일하고있었는데 생산공정을 단축할수 있는 가치있는 설계를 내놓아 발명권도 받은 재능있는 준기사였습니다. 악기공장에 다녀서인지 처녀의 목소리는 홀류트소리처럼 무척 맑았습니다.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강변에서 이미 반해버린 그 처녀에게... 나는 대번에 마음이 끌렸지만 처녀의 의향이 어떻게겠는지 다만 그제 걱정이었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는 오히려 나를 존경하고있었습니다. 두 집 사람들은 오랜 의논끝에 우리의 성례를 오는 가을에 치르어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련광정밀의 이 버드나무는 우리들이 즐겨 만나는 장소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버드나무밑에서 만날 시간을 약속했고 만나서는 유보도를 거닐거나 거리며 극장으로 가곤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이 버드나무밑에서 우리가 만나 함께 모란봉에 올랐던 그 여름날을 잊을수 없습니다.》

휴식일이였다. 새들이 우짖는 숲숲너머로는 그네뛰는 처녀들이 바라보고 청류정부근의 넓다란 공지에서는 오락회가 한창이였다. 해빛이 바둑무늬를 놓으며 와닿는 소로길엔 일요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그들은 청류정을 지나 여름날의 진한 해빛이 덮인 산성을 따라 걸어갔다. 걷다가는 가끔 걸을 멈추고 색이 바래고 세월의 먼지오른 성돌들을 유심히 더듬기도 하였다. 희철은 가슴이 설레였다. 유서로 이름난 모란봉에서 처녀와 함께 거니는 자신이 마치도 행복의 절정우에 서있는듯이 생각되였다.

(내가 탄광에서 돌아온것은 얼마나 잘한 일인가. 만일 제때에 그런 용단을 내리지 못했던들 나는 이 처녀를 만나지 못했을것이 아닌가!)

한달전까지만 해도 희철은 탄부였다. 흔히 말하는데, 리상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만 아니었던들 아마 그는 지금도 탄부령장이 달린 제복을 입고 막장에서 석탄을 캐고있었을것이다.

울밀대아래 숲속에서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녀성의 부드러운 노래가락이 들려왔다.

이름다운 평양 너는 나의 요람

그 어디를 봐도 가슴 설레이네

《…우리는 울밑대에 서서 련광정기슭의 버드나무를 찾아보았습니다. 울창한 록음속에 파묻힌 강변에서 그 버드나무는 끝끝내 찾을길 없었지만 그 대신 우리는 푸른빛 어우린 대동강 기슭에 그와 같은 버드나무들이 무척 많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놀랐습니다. 룡라도와 저 멀리 양각도에 이르기까지 강기슭의 어디서나 다복다복한 머리를 수집게 수그린 버드나무들을 찾아볼수 있었습니니다. 처녀는 격동된 심정을 다잡을길 없는지 저를 돌아봅니다. 〈중학시절에도 모란봉에 오르면 전 언제나 여기에 먼저 서보곤했어. 그러면 날마다 변모되는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곤하였지요. 정말 평양을 떠나서는 한시도 못살것만 같으니 왜 그럴까요?〉 〈그건 나서자란 고장이여서 정들었기 때문이지.〉 처녀는 도리머리를 젖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그럼 복잡한 대답은 무엇인가? 옳지, 그건 이 평양이야말로 우리의 사랑과 리상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수 있는 터전이고 활무대이기때문이지. 틀리오?〉 스스로도 자신이 번진 그 말이 너무 뜬뽕것 같아 별스럽던차에 처녀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자 저도 웃어버렸습니다. 한바탕 웃고 난뒤에야 처녀는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동무의 대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고… 〈그럼 동무가 말해보라구〉 처녀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말못하오?〉 나는 재차 따지고들었습니다. 〈아이 지금 당장은 대답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때문만은 아닐거예요. 평양은 단순히 나서자란 고향이나 사랑과 리상의 터전이기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우리 조국의 수도이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것은 성스러워요. 제 생각엔 우리 평양에서는 가장 참되고 깨끗하고 숭고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들만 살아야 한다고 봐요. 여기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량심에 빚을 지고있는 사람들은 살지 말아야 해요.〉 처녀는 어딘가 자신없이 말하고있었지만 나는 슬며시 질문의 고삐를 사리였습니다. 류경동무의 그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울려주었던것입니다.》

지금 희철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그 번민을 조금도 찾을길 없다. 모란봉의 아름다운 추억이 마음을 가볍게 해준듯 눈가에는 한가닥 안도감마저 어리여 있었다.

《그래, 그후에는 어찌 되었나?》

청년은 섣뚱 입을 열지 못한다. 다만 강물을 향하여 고개를 떨굴뿐…

…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대기가 그대로 활활 불붙는듯 몹시도 무더운 여름이었다. 그무렵 희철은 까닭모를 초조감에 휩싸였다. 한것은 요즘 눈에 띄게

나라나는 류경의 석연치 않은 행동때문이었다. 처녀는 만날 때마다 꼭 무엇인가 몹시 묻고싶은 표정이나 헤여질 시간이 되도록 종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하여 처녀의 그 주저와 머뭇거림이 희철에게는 의혹과 오해의 줄기를 치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것이였다. 무엇때문인가? 혹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아닐까?

어느날 희철은 공중전화로 류경을 찾았다.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강변의 그 버드나무밑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처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때는 저녁무렵… 처녀는 옥류교쪽 유보도를 따라 자박자박 걸어오고있었다. 이윽고 버드나무앞에 이른 그는 눈빛을 흐리며 물었다.

《왜 만나자고 하였어요?》

희철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 말을 어떻게 할수 있으랴. 《동문 정말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그 물음이 막 목구멍에 달라붙어 끝내 떨어지지 않는다. 처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더듬어보았다. 그러더니 그만 부끄러워진듯 빨개진 얼굴을 청년의 한쪽 어깨우에 묻었다. 순간 희철은 온몸의 피가 심장속으로 콕 몰려드는듯 가슴이 빠근해지고 눈뿌리가 화끈거렸다. 처녀의 전에없는 그 행동은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인것이다. 그는 어느새 벌써 희철의 마음을 알아차렸던것이다. 처녀는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정을 다 기울이며 온몸으로 말하고있는듯 하다. 사랑한다고… 뜨겁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불안의 얼음덩이는 순간에 녹아버리고 감동의 소용돌이가 머리를 현훈시켰다. 그는 저도 모르게 처녀의 손을 그러쥐었다.

《고맙소, 류경이, 내 영원히 동무만을 사랑할테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이 두손으로 동물 둥둥 떠받들고 다니겠어.》

처녀는 그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설레이는 그의 마음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듯 꼭잡은 두손을 통하여 희철의 온몸에도 불줄기처럼 흐르고있었다.

그들은 날저무는줄도 모르고 기슭의 벤취우에 앉아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흥분의 떨기가 지나가자 둘의 심장은 고르로와졌다. 류경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저- 한가지 물어도 좋아요?》

《뭇데…》 처녀를 마주보는 희철의 눈가에 그 어떤 불안이 언뜻 내비친다.

《듣자니 동문 원래 탄광에 있었다던데…》

(옳지, 그때문이였구나!) 희철은 처녀의 주저와 머뭇거림이 무엇이었던가를 비로소 짐작하는듯 싶었다.

《알고싶은것이 그게 다요?》

애써 대범한 표정을 꾸미였으나 한쪽눈시울이 푸

들거리는것을 다잡을수 없었다.

《네, 언제든지 한번은 꼭 묻고싶었어요. 전 아직 동무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걸 모르지 않아요.》

에인앞에서 지난날의 즐겁지 못한 일을 이야기한다는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처녀가 알고싶어하는 이상 말해야 하는것이다. 한데 경력을 말한다는것은 좀 빛하긴 해도 그닥 힘든 일은 아니었으니 류경이도 당시 그의 립장에 서보면 그때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할것이다.

…그런데 고향-평양으로 돌아온 그가 자동화중합공장에 배치받았을 때 수급지도원은 노동수첩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었다.

《그러니 탄광에 있었었구만. 6년씩이나… 동무 그동안 석탄을 캐느라고 고생을 했겠소.》

순간 희철은 그만 코등이 시큰해났다. 고생! 그것도 고생이라 한다면…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탄부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조금도!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허구한 세월을 막장에서 석탄을 켄수 있으랴.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긍지로 여긴다. 보람으로 감수한다. 만일 누가 탄부인까닭에 동정할라치면 그들은 대번에 그의 뺨을 후려칠것이다. 탄부들은 그렇듯 자부심이 높다. 허나 희철은 오래동안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자부심을 키우지 못했다. 전문학교시절 탄부가 되리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그의 희망은 커다란 늪창으로 해살이 버그러지게 들어오는 깨끗하고 정갈한 설계실에서 복잡한 프로그램도 척척 작성해내는 전자공학전문가가 되는것이였다. 그런데 시대의 비등된 열의, 젊은 혈기의 일시적인 충동이 그를 탄갱속에 떠밀어넣었다. 그가 탄광으로 진출하던 해는 온 나라의 관심이 석탄전선으로 쏠리던 시기였다. 바로 그해에 전문학교를 졸업한 희철은 탄광으로 진출할것을 결의해나선 학급동무들과 함께 수도에서 70여리 상거한 독골탄광에 배치되었던것이다. 탄광에 와서야 자기의 일시적인 충동이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지를 깨닫고 무척 놀랐다. 지압에 눌러 쇠동발이 하루밤새에 한뼉씩이나 내려앉고 탄벽을 허무는 발파의 진동이 때없이 줄달음치는 땅, 모든것이 검은색갈을 띤 탄전은 참으로 류다른 땅이다. 여기서는 석탄과 버럭처럼 참과 허위가 쉽게 갈라진다. 희철은 날이 갈수록 이 탄광에서는 자신의 리상을 실현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그 생활에 정들고 익숙되여보려고 애써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반 소득이 없었다. 지하의 엄혹한 자연앞에서 뒤걸음치려는 그의 마음은 석수가 질척거리는 막장길을 더듬어갈 때면 어느덧 수도의 화려한 거리를 거닐고있었다. 깊은 밤 합숙호실창가에서 멀리 버럭산우에 반짝이는 외등을 볼 때면 인민대학 습당의 조용한 전자계산기강의실에 앉아있는 자신

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여섯해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희철은 더는 견디어내지 못하고 부르짖었다.

(탄광에서 이만큼 일했으면 족하다. 난 이제는 나의 리상을 실현해야겠다!)

그날부터 희철은 련합기업소 로동과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석달만에 채취공업위원회에 있는 형님의 도움밑에 희망이 성취되였다. 누구보다도 그를 위해주던 갱장은 작별인사를 하러온 희철을 생각깊은 눈길로 보며 무겁게 말했다.

《리상이 전자계산기에 있단말이지, … 가요. 그런데 동문 혹시 탄부가 되는걸 두려워한건 아니요, 그래서 가려는것이 아니요?》

희철은 대답을 못했다. 무엇이라고 말하랴…

그는 평양에 돌아와서도 응당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으니 탄광을 떠나올 때 들은 갱장의 그 의미심장한 말이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때없이 되살아나 마음을 괴롭혔던것이다. 물론 그는 애인한테 그 모든것을 다 터놓을수는 없었다.

《그러니 정말이었군요. 난 그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동무가 그곳에 그냥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가요?》

《그러면 류경이를 만나지 못했겠지. 하고보니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것이 운명인것 같소.》

《운명이라니요?》

《그리고 또 연분이겠지.》

《아이참 연분?!…》

처녀는 그제야 자기들사이를 이미 떼어놓을수 없게 칭칭 감아놓은 보이지 않는 동아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듯하였다.

희철은 안타까웠다. 확실히 류경은 무엇인가 이해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난 원래 탄부로 한생을 살려는것이 아니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진출하게 된것은 당시 환경이 그것을 요구했기때문ियो. 그만큼 석탄을 켜면 이제는 리상을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했소. 류경이, 난 청춘시절을 남다르게 보낸 자신의 경력을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해.》

《자랑으로 생각한대구요? 하다면 동문 왜 그 자랑을 끝까지 지니지 못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의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구가 더 높아졌을뿐이예요.》

희철은 일순 말문이 막혔다. 약혼녀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론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적이 없었다.

《그럼 동무는 내가 탄광에 그냥 있었으면 하오?》

《차라리 그게 더 좋았을걸…》

《허허허…》 희철은 그만 어이없이 웃고말았다.

웃고나서 물지각한 어린 녀동생을 타이르듯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봐 류경이, 난 자진해서 탄광으로 진출했던 사람이야. 시대앞에 지닌 의무에 충신했던만큼 개인적인 리상을 이를 권리도 가질수 있단말이요. 알겠어.》

《동무의 리상이란 대체 뭐가요?》

류경의 목소리는 랭정하고 매몰차기까지 했다.

《아니, 내가 아직 그걸 말하지 않았던가? 하긴 그 령군, 나의 리상은 말이요, 전자계산기전문가가 되어 새로운 프로그램작성법을 완성하자는거요.》

《자기 량심을 속이고 탄광에서 도망한 대가료요?》

《뭐라구?...》

끝내 참지 못하고 일어난 희철은 처녀를 노려보았다. 다음순간 그는 저으기 난처해졌다. 뒤따라 일어난 류경의 눈가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혀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깨를 낮추며 후- 한숨을 내쉬었다.

《됐소. 그만하기요. 이러다간 나중에 싸움이 되 고말겠는걸...》

처녀는 진정으로 말하고있었으나 그는 룡담으로 결속지어버렸다. 그들은 사친후 처음으로 서로 하지 못한 술한 말들을 가슴속에 품은채 헤어졌다.

류경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그날부터 처녀는 강변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나오는 경우에도 늘 늦어와서는 덤덤히 서있는 때가 많았다. 미술박물관에서 새로 열리는 전람회나 극장구경을 가자고 해도 마지못해 응하는 정도였고 거리를 거닐 때도 어쨌선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처녀는 분명 그와 함께 다니는것을 부끄러워하는듯싶었다.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동아줄에 매였기에 어쩔수없이 끌려다니는것 같았다.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녀의 동요는 그에게도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하여 류경이와 함께 있는 순간에는 자기도 그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것이였다. 인내성에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희철은 끝내 참지 못했다. 처녀를 불러내어 따져물었다. 처녀는 그제야 애인의 눈에서 자기 행동의 변화를 알아차린듯 얼굴을 붉혔다.

《희철동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나무람하지 마세요. 동무의 경력을 안다음부터 전 왜그런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한번두 없었는데...》

《어째서?》

희철은 후들거리는 감정을 허끝에 눌러버리며 격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일찌기 한번도 당해본적 없는 쓰거운 모멸감이 얼굴을 화끈 달구어주는 것이였다.

《전 며칠을 두고 생각해보았어요. 하지만 그때 동무가 한 말들을 아무리해도 리해할수 없었어요. 동문 리상때문이라지만 그게 아니였어요. 만일 동무의 리상이 달랐더라면 과연 거기 탄광에 뿌리내릴수 있었을가요? 결국 동문 그 리상이란것때문에 지금도 자기 량심을 속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지 않았나요.》

희철은 피가 꺼꾸로 흐르는듯한 감정을 체험했다. 류경은 그가 평양으로 돌아와서도 숨겨야만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을 말하고있었던것이다.

《류경이, 말이라구 다하면 되는줄 알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있는거요. 나는 자신의 리상을 탄경속에 물어버릴수 없었던 말 이요.》

《탄경속에 묻히다니요?》

처녀는 의혹어린 눈길을 치켜들었다.

《그렇소. 난 막장속에서 덧없이 보내는 세월이 아까웠소. 동무도 한번 막장길을 걸어본다면 내 심정을 리해하게 될거요. 인차에 앉아 십리도 넘는 사갱의 컴컴한 어둠속을 한참 달려내려가느라 다시는 밝은 해빛을 보지 못할것만 같은 생각조차 드요. 그런데 탄부들이란 정말... 그저 석탄, 석탄밖에 모르지. 그때문에 웃는가 하면 불시에 다투기도 하고.》

《제발 그만하세요.》

류경은 세차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동문 그런 말이나 하자고 저를 불렀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지두 않아요? 어쨌면 탄부였던 동무가 다름아닌 그들을 모욕할수 있어요.》

마치 그 모욕을 제가 당하기라도 한듯 류경은 입술을 깨물며 뺨 돌아서서 천천히 버드나무에 이마를 눌러대었다.

처녀의 그 돌발적인 언행에 희철은 격해졌던 마음이 대번에 사그라졌다. 참말이지 그는 자신을 변명하자고 처녀를 불려냈것이 아니였다. 자기들사이에 엉켜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주서기만 하면 그들의 감정은 량극단으로 달리기만 하는것인가...

희철은 짝 굳어져버린듯한 처녀의 어깨우에 한손을 얹었다.

《류경이!》

《날... 다치지 마세요.》

처녀는 그 무슨 불결한것이 와닿기라도 한듯 흠칫 몸을 떨었다.

《전 동무가 그런 사람인줄은 몰랐어요. 아, 내가 어쩌다가 동무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가.》

말할수 없이 큰 슬픔과 후회와 절망이 비낀 안타까운 그 목소리는 머리우의 버드나무잎새속으로 속절없이 잦아들어버리고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옥류교쪽으로 달려가는 처녀의 고르지 못한 발걸음 소리만이 어스름내리는 강변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었다.

어느날 희철은 전화로 류경을 찾아 강변의 버드나무아래서 만나자고 하였다. 처녀는 뜻밖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당장 시제품 생산에 넘겨야 할 설계가 있어 나갈수 없다고 하였다. 며칠이 지나서 또 전화를 하였더니 이번에도 전번날과 비슷한 사정이 있었다. 희철은 송수화기를 손아프게 그러쥐었다가 맥없이 놓아버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는 처녀를 찾지 않았다.

한편 그들사이에 맺어진 상스럽지 못한 일을 두고 두집에서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듯 떠들어댔다. 석탄공업부에 다니는 희철의 형은 형제간의 의가 상할 정도의 과격한 말로 동생을 호되게 닦아세웠으나 그들사이에 일어난 분규의 원인을 끝내 알수 없었다. 그것은 처녀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희철이가 그 원인을 설명할수 없는것처럼 류경이도 어머니에게 그것을 차마 말할수 없었던것이다. 희철은 희철이대로 번민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그날도 그는 무거워진 머리를 숙이고 강변유보도를 걸어갔다. 발길은 저도 모르게 련광정아래로 향해졌다. 그런데 버드나무근방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기슭의 벤취우에 앉아있는 낯익은 처녀를 보게 되었던것이다. 오후의 해빛이 휘휘청청한 버들가지들사이로 미끄러져내려 처녀의 자태를 선명하게 비쳐주고있었다. 희철은 그만 가슴이 뭉클하였다.

《류경이!》

분명 입속으로 나직이 불렀는데 처녀는 핵- 고개를 돌렸다.

《어마나!》

처녀의 흐려졌던 얼굴이 밝아지고 눈가에는 반가운 웃음발이 피어났다.

《사람의 애간장을 그렇게 말려주는 법이 어디 있어. 글썽 여기로 나오면 만나는걸 공언히...》

《난 정말... 일감이 밀렸했어요.》

변명하듯 중얼거리는 처녀의 얼굴에 또다시 그들 한점이 드리운다.

《희철동무!》

류경이가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으나 희철은 손짓으로 제지시켰다. 처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그래 저먼저 입을 열었다.

《류경이, 전번에는 내가 너무했소. 글썽 동무를 잊으려 하다니... 우리가 헤어져 지낸 이 며칠동안 나는 피로왔소. 동무 없인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깨달았단말ियो. 난 류경이가 그 어떤 가혹한 말을 하더라도 탓하지 않을테요.》

《정말이예요?》

《맹세하오. 우리들의 사랑을 결코.》

《아이참...》

처녀는 저으기 명랑해진듯싶었다. 희철을 마주보는 그윽한 눈가에서 한줄기 웃음발이 장난치듯 사물거렸다. 강반에는 뽀트들이 점점이 떠있었다. 산들바람이 푸르고 흰 돛폭들을 활짝 펼친 산개대형의 요트들을 대동교쪽으로 밀어간다. 류경은 한없이 격동된 눈길로 검푸른 물결을 바라보더니 뽀트를 타자고 제기했다. 희철은 거리에 나서도 종시 고개를 들지 못하던 처녀의 달라진 행동을 두고 다소 의아하게 여겼으나 깊이 음미해보지 않았다. 그들은 뽀트에 올라 강물위로 유유히 떠갔다. 이 며칠사이에 류경은 확실히 달라져있었다. 처녀는 그리 우습지 않은 이야기에도 방긋 웃는가 하면 그닥 심상치 않은 말을 듣고는 별로 눈빛을 흐리는것이였다. 옥류교너머로는 푸르른 모란봉이 강물속에 깊숙이 발부리를 잠그고 솟아있다. 아직도 식지 않은 강바람이 그쪽으로 건들건들 불어가고있다.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해빛이 락타등같은 물결우에 부딪쳐 수천조각으로 빛나는데 배전에 걸터앉아 물속에 한손을 잠그어보는 처녀의 얼굴에서 그 반사광이 어리광친다. 희철은 노를 쥔 손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강물은 돌로 가를수 없는 그들의 사랑처럼 배머리에 부딪쳐 량쪽으로 갈라졌다가는 선미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며 흐느끼듯 출렁거렸다. 희철은 그만 의혹을 금할수 없었다. 강랑쪽대안에 펼쳐진 수도의 아름다운 풍치를 바라보는 처녀의 눈이 축축히 젖어있었던것이다.

《류경이 왜 그러오?》

《아이참. 제가 뭐 어쩔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주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무는엔 눈물이 어울리지 않소.》

《어마나!》

그제야 처녀는 나약해진 자신을 발견한듯 손가락으로 눈굽을 찍었다.

《희철동무, 동무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이런다고 나무람하지 마세요. 전 대흥으로 갈것을 결심했어요. 래일 수도의 첫 진출자들이 평양을 떠난답니다.》

첨병! 손에서 놓여난 노대가 등싯거리며 물흐름을 따라 빙그르르 돈다.

《대흥으로 가다니?!... 어째서, 어째서 동무가 부디...》

희철은 아래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그제야 비로소 영문을 깨달은것이다. 그는 저속 갈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았소. 왜 하필 동무가 가야 하오? 여기서도 얼마든지 충

실히 일할수 있지 않소. 류경이, 이제라도 결심을 돌려주요.》

《희철동무!》

처녀는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처럼 큰 용단을 내린 처녀의 얼굴은 이 순간 오히려 평온해보였다.

《저도 저의 생활에서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전 조금도 동무를 타하지 않아요. 동무가 평양으로 돌아온데 대해 그 누구든 시비는 하지 않을거예요. 하지만 개인적리상을 실현한다고 당의 요구를 외면한 동무가 아무리 새로운 초소에 충실한들 그 생활이 참될수 있을가요. 동무와 사귀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저조차도 죄의식을 느끼게 되니 설사 남들앞에 떳떳하다 해도 자기 량심앞에는 부끄러울거예요. 전 동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 동무가 결심하지 못하는 이상 저라도 그 빈자리를 메꾸어야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의 량심이... 우리는 사랑을 약속하지 않았나요.》

《...》

희철은 눈물이 글썽해진 처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짓속인채 노를 힘껏 젓기만 하였다. 노대에서 튕겨난 물방울이 배전을 치고 수면을 누비는 하늬바람에 옷자락이 세차게 나뭇겼다.

희철은 문득 무엇인가 강렬한 색채가 비발치듯 날아옴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석양을 받아 감빔으로 물든 강변의 버드나무가 망막을 아프게 자극하며 안겨왔다. 저 버드나무와 더불어 맺어진 사랑의 추억이 물결처럼 가슴노리를 적시며 흘러왔다. 그 정다운 추억들은 잊을래야 잊을수 없건만 처녀는 소중한 그 모든것을 다 버리고 대흥땅으로 가려는것이다. 대흥으로! 류경의 이 결심은 그의 마음을 불시에 다른곳으로 돌려놓았다. 희철은 가슴을 파고드는 애석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물결너머로 눈길을 띄워보냈다. 련광정기슭의 푸른 버드나무는 그에게 무척 멀어보였다.

처녀는 갔다. 정다운 고향도시-평양을 떠날 때 류경은 달리는 북행렬차의 차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수도의 모습을 영원히 새겨두려는데 고운 눈에 이슬을 담고 이윽도록 내다보았을것이다.

희철은 류경이가 대흥으로 진출하게 된 경위를 더듬어볼 때 얼굴을 붉히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자신의 잘못때문이었다. 그때문에 처녀는 그처럼 뜨겁게 사랑하던 평양을 떠나 대흥으로 진출한것이다. 희철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다. 류경이와 헤어지던 그날이... 그때 뽀트에서 내린 그들은 버드나무아래 잠시 마주서있었다. 마치 생면부지인듯... 처녀와 그사이에는 불과 두어걸음 차이밖에 없었으나 희철은 이 몇시간동안 자기들사이

를 갈라놓고있는 그 차이점이 너무도 커졌음을 발견했던것이다. 그 차이는 대동강의 량쪽대안보다도 더 넓었다.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와 립장, 인식에서의 차이만이 아니었다. 인생관의 차이였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 류경이가 자기 결심을 철회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련광정의 고색질은 지붕우에서 엮어져가는 석양이 처녀의 초연한 눈동자에 비꼈다. 호수처럼 그윽하고 아름다운 눈이라고 그는 얼마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가. 그 맑은 눈이 차오르는 눈물에 흐려지고있었으나 처녀는 용케도 마음을 다잡고있었다.

《류경이, 과연 우리의 사랑이 이것으로 끝나야 한단말이요?》

그래, 그것이 누구때문인지 희철은 정녕 알수 없단말인가... 이윽고 류경은 고개를 젓고나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희철동무, 전 우리들사이에 있는 일들을 언제까지나 추억으로 간직하겠어요. 부디 절 잊어...》

《류경이!》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런 순간조차 처녀의 걸음을 사랑의 목소리로 멈춰세우려고 한것은... 그랬었다. 류경의 간절한 심정을 외면한 그때에도 그는 자기의 그러한 행동은 수치스럽게 여겼던것이다. 희철은 그때 자기의 표정 하나 말마디 하나하나를 더듬어보기조차도 역겨웠다...

날은 빨리도 흘렀다. 그들이 올랐던 모란봉에 단풍이 질어가고 그들이 거닐던 대동강가에 놀란 새 떼처럼 락엽이 흩날릴 때 희철은 가지가지 추억이 사무치게 그리워 유보도로 나오곤하였다. 습기찬 강바람에 옷자락 날리며 오래도록 강변을 거닐곤하였으며 련광정밑의 그 버드나무앞에 이윽히 못박혀있기도 하였다. 그러면 버드나무를 그러안고 흐느끼던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보이는것만 같았고 강물을 누비던 안타까운 목소리가 줄기차게 쏟아져내리는 버들아지들의 장쾌한 폭포너머로 금시 울려오는듯하였다.

얼마나 기다리던 이 계절인가. 바로 그 계절에 그는 활기를 잃어버린것이다. 자연의 어길수 없는 법칙을 따라 희망의 가을이 때맞추 찾아왔건만 그는 더욱 높고 푸르러진 하늘을 마주보지 못했으며 대지에 차넘치는 황금빛환희속에 휩쓸리지 못했다. 거리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것이 부끄러웠고 그들의 묻는듯한 눈길이 두려웠다. 나서자란곳이라고 그처럼 자부하던 평양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리라고 과연 생각이나 했던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탄광에 진출하여 보냈던 그 나날들이... 분출하는 지하수를 맞받아 동발목을 얼싸안고 육박하던 위태로운 그 순간마저도 지금은 이 땅에 바쳐진 그 어떤 영웅적인 소행처럼 돌이켜진다. 누구도 모르는 천길

막장속에서도 궁지가 있었다. 자부심이 있었다. 허나 고향으로 돌아와 보낸 날들은 한조각의 자부심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애인한테까지 자기의 경력을 말하기를 저어했던 그 생활은 삶이나 영위하며 살아온 리기적인 나날이었다.

희철은 문득 꽃피는 어느 봄날, 모란봉에 올랐을 때 올밀대에서 하던 류경의 말이 되살아났다. 그때 벌써 류경은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 평양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참된 마음을 지닌 사람들만 살아야 한다고… 얼마나 지당한 말인가.

청춘의 리상이란 조국과 함께 불리울 때 더욱 신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법이다. 그렇다. 청춘이 이처럼 아름다웠것은 참된 사랑과 리상을 지녔기 때문이며 탄광에서 보냈던 그 나날들이 지금에 와서 궁지높게 추억되는것은 당이 부르는곳-조국의 룡성과 번영을 위한 거창한 위업속에서 청춘의 리상을 꽃피웠기때문이다. 그런데 그 숭고한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자신을 정당화해보려던 나에게 그 무슨 참된 생활이 있을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 있을수 있었겠는가 그러자 그는 자기가 여직껏 잊고 살았던 참다운 리상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격동된 감정에 후두둑! 심장이 놀뛰었다. 세차게 뛰노는 심장의 그 박동으로 하여 생각은 또다시 류경이한테로 돌아갔다.

보고싶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지령점, 의지의 언덕이 있다면 대흥으로 떠나간 류경이었다. 그 처녀에 대한 눈물겨운 미련이 텅-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것이였다. 그는 터슬터슬한 버드나무줄기우에 한손을 얹으며 처녀와 속삭이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류경이, 너무하오. 동무가 그렇게 가버리면 난 어찌하란말이요. 어제밤에도 나는 동무를 보았더랬소. 강변의 이 버드나무아래서… 그런데 깨어나보니 꿈이었지. 그만 울적한 심사를 금할길 없어 밖으로 나왔더니 고요한 달밤이었소. 이 땅을 차별없이 비쳐주는 등근달은 뿔뿔치 못한 나에게도 밝은 빛을 주고있었소. 아마 동무도 잠 못 이루었다면 고요한 그밤의 그 달빛을 보았을거요. 류경이, 저 하늘을 좀 보우. 우리들이 것처럼 기다리던 가을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방도를 좀 가르쳐주요.)

그러자 저 멀리 하늘가에서 류경의 목소리가 아스런히 들려오는것 같았다.

(저도 기다렸어요. 사람마다 축복해주던 그 계절이 아니나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헤어져 가을날의 밤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요. 희철동무, 자신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오세요. 여기 대흥땅으로, 이곳의 하늘은 한결 더 질고 푸르답니다.)

희철은 분명 보았다. 대흥의 높은 산정에서 손저음하는 처녀의 모습이 고향의 하늘가에 거울처럼

비쳐진것을… 드디어 용단을 내린 희철은 대흥땅을 향해 떠났다.

렬차는 온종일 북쪽을 향해 달렸다. 산세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공기도 차츰 차가워졌다. 흐르는 산발너머 피어오르는 저녁노을이 술래잡이하듯 들여다보던 차창가에 검은 장막이 드리워지고 높아진 차륜소리에 합세하듯 눈까비가 엇비스듬히 창유리를 후려갈기기도 했다. 대흥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었으나 사랑하는 처녀를 찾아 떠난 희철에게는 조금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흥땅은 각지에서 달려온 청춘들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산기슭의 아늑한 분지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다층주력들… 광석을 가득 싣고 오가는 배부른 전차의 경적소리… 또 한차례 광석을 떨구는듯 발밑으로 줄달음치는 발파의 장쾌한 메아리… 류경이가 일하는 고장이여서 그 모든 전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것인가. 처음 밟아보는 고장이지만 대흥은 전혀 낯선 땅이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진것은 그가 탄광에 있을 때부터 몸에 익힌 너무도 친숙한 전경이였다. 광산지대에 차넘치는 그 평범한 음향의 하나하나가 것처럼 큰 감동과 감회를 자아내리라고 희철은 정녕 생각지 못했었다. 하여 대흥땅에 들어서자마자 받아안은 그 감동은 반가운 구면친구처럼 편지결봉에서 익힌 주소를 찾아 사갱건설장으로 가는동안 내내 떨어질줄 모르고 온몸을 열썩안았다. 그러나 사갱건설장에서 류경이를 만날수 없었다. 방금 나붙은듯 류경을 소개하는 대형속보가 권양기가 설치된 나지막한 구릉우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색감냄새를 풍기는데 그 처녀는 관리부건물에 있는 기술과 설계실로 가야 만날수 있다는것이였다. 마침 그리로 가는 시공지도원을 만나 처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류경은 그가 왔다는 전갈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수도의 수려한 강변이 아닌 여기 대흥땅에서 희철을 만나게 된 처녀의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이 한가득 어려있었다. 그들은 산정의 맑은물이 조잘거리는 시내가 버드나무기슭으로 걸어갔다. 놀라운 일이다. 서로의 만남이 그래야만 자연스러운지 두 사람의 눈은 이곳에서도 자연히 버드나물을 찾게 되지만 여기 대흥땅에서도 대동강변과 똑같은 버드나무들이 자라고있다는 사실을 그는 여태껏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저…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는 함함한 머리술을 감췄던 감빛나이론수건을 풀어 두손으로 만지작이며 이렇게 물었으나 곧 자기의 물음이 공연한것임을 깨닫자 수줍게 고개를 숙이였다. 고산지대의 류다른 별과 바람은 처녀의 희맑던 살결을 가무스름히 그슬려주었다. 그 살빛

이 류경에게는 오히려 더 어울려보였다.

《편지를 받았소.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싶어서 왔소.》

《거짓말!》

처녀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고개를 약간 외로 틀었다. 맑던 눈이 안개처럼 어리는 이슬에 뽀얗게 흐려진다.

《정말이요. 류경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먼고장을 찾아올 엄두를 냈겠소… 그래 여기서 무슨 일을 하오?》

이윽고 마음이 진정된듯 류경은 수건매듭으로 눈썹을 훔쳤다.

《전 어제 련합기업소기술과로 조동됐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권양기운전공으로 일했답니다.

참 평양소식이나 전해줘요.》

《평양은 지금 가을이 한창이요. 우리가 오르던 모란봉엔 단풍이 질고 대동강도 훨씬 맑고 푸르려졌지. 난 련광정아래 그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류경이와 함께 약속하던 그 가을을 생각했소.》

《여기에는 벌써 눈까비가 내렸어요. 이곳 대흥땅은 항상 절기를 앞당긴다더군요.》

《그러니 우리 문제도 서둘러 결속지어야 하겠구만.》

《우리 문제라니요?》

처녀는 짐짓 모르쇠를 대며 굳어진 눈길로 그를 쳐다본다.

《동문 그렇게두 내 마음을 모르겠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류경은 두근거리는 가슴에 두손을 꼭 가져다대며 바르르 속눈썹을 떨었다. 나무아지사이로 드리운 해빛이 처녀의 하얀 목덜미를 빨갭게 물들여주고있었다.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가슴을 두근거리며 서있는 처녀의 의혹비긴 눈길을 보자 희철은 흐느낌 같은것이 가슴을 터치며 나왔다.

《왜 내 말을 믿지 못하오… 동무가 떠난후 나는 고통스러웠소. 류경이, 우리의 사랑을 둘로 나눌수 있다고 생각하오?》

《…》

처녀는 갑자기 입술을 떨더니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낀다.

《왜 그 말을 이제야 하세요. 왜 이제야 그 말을… 동무만이 그런줄 아세요. 저도 그리웠어요. 저녁마다 퇴근길을 걸을 때면 동무가 꼭 앞서가는 대흥사람들속에 있을것 같아 안타깝게 살펴보기도 했지만 끝내… 그런날 밤이면 잠인들 제대로 잔줄 아세요.

동문 안타깝던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나해요. 돌아가세요. 동무가 것처럼 외우던 그 리상을 실현하러!…》

《아니요. 난 리상과 함께 왔소. 동문 나에게 진정한 리상을 찾아주었던말이요. 내 리상은 류경이와 함께 여기 대흥에 있소. 당에서 것처럼 관심하는 바로 이 대흥땅에…》

《…》

《류경이!》

뜨겁게 포옹할듯 다가서는 청년을 눈물너머로 그냥 보기만하던 처녀는 그만 벅차오르는 걱정을 다 잡을길 없는지 뻥-돌아섰다. 시내가를 따라 휘친거리며 달려가는 처녀의 발부리에서 놀란 조약돌들이 사방으로 튀어났다.

희철은 처녀를 따르지 않았다. 뜨거운 마음의 애무인듯 버드나무를 짹 그러안았다. 여직껏 한번도 체험해본적이 없는 강렬한 기쁨이 가슴을 들먹거리게 하였다… 문득 그는 온몸을 휩싸는 광휘로운 빛발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머리위에서는 한결 가까워진 고지대의 태양이 조용히 흐느끼는 아지사이로 굽어보고있었다. 그 해빛아래자란 시내가의 버드나무는 이미 대흥의 거철은 풍토에 익숙되어있었다.

봄이 왔다. 눈석이에 흐려졌던 대동강이 다시 맑아지고 강변의 버드나무는 연두빛단장을 하기에 분주하다. 화창한 이 봄날에 결혼식을 한 류경이와 희철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으나 그런들 어떠랴. 나는 온 고향, 온 조국의 축복속에 뜻깊은 새 가정을 이룬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생각되었다.

강변의 버드나무는 자기의 밑둥에 또 한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겼으나 지난해의 그 봄보다 더 푸르러지고 무성하게 아지를 드리운것 같다. 요즘은 그 장쾌한 《버들폭포》아래서 새로운 처녀총각이 무엇인가 속삭이군한다. 의좋은 젊은이들이다. 나는 저녁산보를 나왔다가 그들과 맞다들리면 그 어떤 그리움과 기대를 안고 이윽히 바라보군한다. 그러면 강반을 뽀얗게 뒤덮던 열정적인 봄소나기가 금시 가슴을 두드리는듯하고 저 버드나무아래서 손저음하던 류경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보이는것이였다.

그렇다! 강변의 버드나무처럼 저들도 이땅에 나서 자란 청춘들이거니 그들의 뜨거운 심장속에서도 류경이와 희철이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리상이 꽃피고 있음을 나는 굳게 믿어의심치 않는다.

# 청춘기

김만영

겨울의 흑한을 다 이겨내고  
강산에 온갖 꽃이 만발하는  
봄시절  
이것이 청춘기다

허나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그런 인생의 한 시절만은 아니다  
우리의 청춘기는

거기엔 눈부신 창조물들이 비좁게 일떠선  
어제와 오늘이 있고  
인류가 황홀하게 내다보는  
광명한 미래도 다 있다

인간이 향유하는 푸른 숲과 바다  
환희로이 퍼덕이는 희망의 억센 나래  
기적같은 발명과 인류의 재부도  
너와 떨어져 생각할수 없나니

청춘이여  
분출하는 화산과도 같은 그 힘을 생각한다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은 그 열정을 생각한다  
한번 나아가면 주춤할줄 모르는  
대바르고 굳센 그 성미를 생각한다

사랑을 해도 불같이 하고  
우정을 나누어도 뜨겁게 나누며  
공상을 해도 하늘가에 내려쳐올라  
네 가슴 온 우주를 안거니

일이라면 혁신을  
창조라면 기적을  
그리고 전진이라면  
번개같은 비약을

이것이 있어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있어도  
너는 것처럼 아름답고  
천길지하막장에 있어도  
너는 것처럼 높이 보이고  
질척이는 감탕속에 있어도

너는 것처럼 빛을 뿌리는것 아니더냐

아, 조국이여  
기꺼이 우리를 세워달라  
힘이 요구되는곳에  
지혜와 열정이 요구되는곳에  
무비의 용감성과 담력이 요구되는곳에

버려놓은 강철마냥  
아끼면 녹이 쏘고  
쓰면 빛을 뿌리는 청춘기  
안온하면 오히려 시들고  
비바람속에서 더더욱 억세여지는 청춘기

피가 펄펄 뛰는 그 시절  
불같은 그 시절 무난히 보낸다면  
그것은 청춘에 대한 모독이노라  
자기 삶과 어머니조국앞에  
그이상 큰 죄악이 있으라

한번 가면 다시 올수 없는  
보람찬 시절의 청춘들아  
그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 맛잡이로 살자  
걸음걸음 발밑에서  
불꽃이 일게 소리내며 살자

당이 결심하고  
당이 부르는곳에서  
언제나 어김없이 회답하는  
우리 당의 메아리가 되자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조국은  
우리의 청춘기를  
시대의 기념비인양 세워  
후세에 길이 전하리니

아 그때문에 우리의 청춘기는  
별처럼 빛나야 할 시절이다  
우뢰처럼 떨쳐야 할 시절이다  
번개처럼 달음쳐 살아야 할 시절이다

## 우리의 행복을 두고

리래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가 있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정권이 있는 한 우리 인민들의 사회주의 생활은 날로 더욱 훌륭히 꽃피나게 될것입니다.》**

아침마다 나를 꿈속에서 깨우는것은 밤지으며 부르는 안해의 나직한 노래소리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었네  
...

사방은 고요에 잠겼다. 애들은 아직도 머리를 맞대고 평화롭게 풀무를 불고 아득한 하늘끝에서 들려오는듯 장작불 튀는 소리가 탁탁거린다. 새벽녘의 아득한 가정적정서, 언제까지나 그 세계에 잠겨있고싶다.

허나 나는 일어나야 한다. 저녁에 물높이를 조절해놓고 들어온 물고들이 밤새 무사한지 근심스럽다.  
《좀더 설겄 그랬어요.》

달게 하품을 하며 마루에 나서는 나에게 안해가 건네는 첫말이다. 나는 묵묵히 마루밑에서 신발만 더듬어 신을뿐이다. 늘 듣는 소리여서 이제는 대꾸하기조차 싱거워졌다.

창고에서 자루 긴 물고삼을 찾아들고 돌아섰을 때 안해는 벌써 마루우에 깨알이 동동 떠도는 쿵국사발을 올려놓았다. 이것 역시 해마다 이맘때면 늘 보게 되는 우리 집의 《풍속》이다. 식전 논고물을 보러 나가는 남편을 위해 기울이는 안해의 이런 정성에 마흔고개를 넘어서 오늘까지 고뿔 한번 모르고 사는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쿵국 한사발을 단숨에 들이키고 마을길에 나선다. 미명의 들판대기는 차다. 흰 연기 솟구치는 굴뚝들을 사열하듯 지나 날듯한 걸음으로 대자연의 품에 뛰어드는 나의 가슴속에는 새삼스레 내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가 그들먹이 차오른다...

한배미 또 한배미... 직기를 순회하는 직포공마냥 논물관리공한테도 정해진 순회길이 있다. 이상없는 논고들을 돌아보며 마음 내키는대로 물높이를 조절하는 나의 손발은 날개가 달린듯하다.

내가 맡은 구간은 분조의 논면적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절반 돌고났을 때 불그레 달아오른 동산마루에 아침해가 불끈 솟아오른다. 제일먼저 빛을 반겨 해사하게 웃는것은 푸른 잎의 이슬방울들이다.

령롱하게 반짝이는 그 빛에 채색되어 온 들이 삽시에 생기를 띠며 명랑해지는데싶다. 줍이 벌게 아지를 친 벼포기들은 산들바람에도 키를 솟구며 새실거리고 그 사이로 목을 버쩍 솟군 물닭이란놈은 의뭉스럽게 암놈을 부르느라 《똥-똥-》 거린다. 그에 질세라 자기의 고운 《목청》도 합류하여야 한다는듯 파악파악 울어대는것은 샘터논에 사는 소발통만한 왕개구리이리라.

거세게 기지개를 켜며 움썰거리는 대지, 생의 희열로 약동하는 자연, 그속에 창대마냥 기다란 삽자루를 비껴잡고 우뚝 선 나는 참으로 만물의 《명장》이라는 뿌듯한 긍지를 느낀다. 이 벌이야말로 진정으로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농민들에 의하여 가꾸어지고있지 않는가.

물닭이며 벼포기며 개구리며 이제는 바람마저 이벌의 주인인 나와 낮익어졌다.

이쯤되면 나는 꺾꺾한 목구멍을 지지느라 독초한대를 두툼하게 말지 않고서는 못견딘다. 삽자루를 깔고앉아 두발을 논물에 잠그고 눅눅하게 젖은 아침대기속에서 폐장깊이 들이켰던 담배연기를 코와 입으로 슬금슬금 내보내며 포전길끝에 잇닿은 마을을 이윽히 바라보느라 마치 이 아침의 광휘로움이 내 손끝에서 이루어진듯 흐뭇하기 그지없다.

김매는 기계가 달려나온다. 하얀 비료포대를 실은 소형트랙토르가 그뒤를 물었다. 벌이 풀기 시작한다. 걸음먼저 웃음소리를 앞세운 녀인들이 걸어오는데 그뒤로 느낌이 따라선 사내들의 걸음걸이는 오리무리를 거느린 계사나마냥 장히 거드름스럽다. 청높은 목소리로 요즘 한창 유행인 새노래를 뽑아제끼는것은 아마도 앞에 선 어느 처녀인가를 홀리는 트리나무집 둘째의 소리리라.

《분이 아버지-분이 엄마가 걱정해요. 조반 잡수래요오-》

처녀 하나가 콩알처럼 툭 튀어나오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손끝에서 나뭇기는 머리수건이 유난히 불길처럼 빨갳다. 아닌게아니라 출출하다.

나는 논고바자에 걸린 검부레기를 슬금슬금 걸어내면서도 눈만은 논두렁을 따라 이쪽으로 다가오는 안해에게서 떼지 못한다. 이제 오면 또 지칭구일것이다. 농장일은 혼자서 다 하는가, 늘 밥심부름을 시킨다는 등... 참 녀자들이란 정을 쥐도 저렇게 톡톡거리며 쥐야 제맛인가.

따뜻한 기대속에 앞에만 정신을 파느라 나는 분조장이 다가오는것을 몰랐다.

《작황이 어드레?》

웅글은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분조장이 시물시물 웃으며 서있었다.

《또 그 소리, 분조장은 늘 첫 인사가 그저 그소리지.》

그러자 분조장은 허리를 제끼며 청높이 웃었다. 뽀내고싶을만치 잘된 작황에 웃음이 헤쳐진 분조장을 보느라니 나 역시 웃음집이 흐물거렸다.

한바탕 웃고난 분조장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뜨직 뜨직 터놓았다. 네벌김매기, 비료치기, 두령콩사리... 그것은 분조의 작업계획이었다. 나는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자기 소견을 덧붙였다. 이를테면 두령콩사리는 어디가 급하고 비료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논물관리공의 《견세》란 이런것이다.

하늘에서는 7월의 폭양이 내려쬐이고 부그그 끓어오르는 논물에서도 확확 열기가 풍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속에서 김을 매고 풀을 깎으며 비료를 뿌려야 한다. 보다 진지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터-여기에 불꽃튀는 건설장이나 용해장과 다른 농사일의 영웅성이 있는것이다.

기나긴 하루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하루일을 마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간다. 붉게 타는 노을, 거뭇한 산그림자 반짝이며 미소짓는 집집의 창문들, 황소의 긴 영각소리가 들판에 흐르고 어둠을 불러내는 들의 《가수》들이 《안삼불》을 맞춘다. 그무렵 나는 나의 친근한 《가수》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유아등을 켜다. 그다음에야 논머리를 나선다. 그때면 마을의 창가마다에 파아란 형광등빛이 흐르고 숨박꼭질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골목에서 울린다.

불밝은 창문,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노라면 하루의 피곤이 씻은듯이 사라지고 또다시 온몸에서 약동하는 청춘의 새힘이 솟는다.

나는 정다운 안해와 아이들이 기다릴 내 집 문턱을 넘어선다.

《아버지, 형이 2등했어요, 2등.》

언제보나 나를 제일 반가와하는것은 인민반 2학년생인가 하는 막내이다.

《형이 학과경연에서 2등했어요. 그래서 래일 도에 간대요.》

누가 가로첼세라 둘째가 목청을 돋군다. 전국학과경연을 앞두고 군에서 예선을 한다더니 큰놈이 당선된 모양이다.

《저 이왕이면 1등을 하지 못하구.》

《원 욕심두, 2등두 크잖우, 중등반 5학년 수학문제가 나왔단데.》

《그럼 그애가 5학년인가?》

《쫓쫓, 장한 아버지 다 보우, 그애가 지금 4학년 아니요.》

《허허허.》

나는 웃고만다. 사실 나는 셋뿐인 자식들의 학년을 삭갈리군한다. 그런들 어떠리. 애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공부 잘하는데야 누가 날더러 아버지구실 못한다고 책망하던가.

저녁상에서 물러난 애들은 숙제를 한다고 책상에 마주앉고 나는 베개에 비스듬히 기대여 텔레비존 화면을 바라본다. 화면에는 학교와 일터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자본주의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이 엇바뀌어 나타난다. 지하도바닥에 누워있는 거지, 보석으로 치장한 애완용개가 그열을 지나간다. 껌을 질경거리며 한때의 소년들이 몰려서있다. 생의 목적도 희망도 의욕도 없는 그들의 눈빛은 공허하기 지없다.

《야, 저애들은 학교두 안가나? 길바닥에서 어물거리구있구.》

텔레비존화면에 유심히 눈길을 주고있던 작은놈이 심드렁하게 뇌이는 소리다.

《자본주의사회의 거지애들이야.》

딸애가 되알지게 소리치자 작은놈은 찔끔해서 목을 움츠리면서도 제 할 말을 다 한다.

《체, 저만 아는것처럼. 돈이 없어 학교에 못간다는거 나도 알아.》

《너희들은 왜 또 으르렁거리니. 얌전하게 공부나 하지 않구.》

설것이를 끝낸 안해가 문턱을 넘어서며 하는 소리다.

《교양시간이야요. 계급교양.》

딸애의 소리다. 누이라고 이젠 말도 체법 씨먹게 할줄 안다.

《공부를 잘해야 대학에두 가구 박사두 될게 아니야요. 오빠처럼. 그렇지요, 엄마?》

《야, 형 빨리 박사됐으면 좋겠다. 난 그럼 박사네 동생이 될텐데.》

작은놈이 주르르 달려가 엄마 치마자락에 매달리며 웅석을 부린다. 저건 키만 엄부럭하게 크지 속은 아직 유치원아이다.

《엄마,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하지요?》 딸애가 두손으로 턱을 받친채 하는 소리다.

《그래 특별한건 없지만 행복하지.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있지 않니...》

(특별한게 없다구?)

나는 생각에 잠긴다. 남다른 만족만이 행복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일할 걱정, 살아갈 걱정 없고 맘놓고 애들 키우는 우리 집, 아니 우리 분조, 우리 마을, 온 나라 어느 집을 가보나 우리 집과 조금도 다름없는 생활이다. 여럿이 똑같이 누리는 만족이여서 더구나 마음 편하고 즐거운 우리네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인 행복이다.

그렇다. 안해가 그것을 모를리 없다. 아침마다 밥지으며 부르는 노래만으로도 그는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있다. 그것이 공기처럼 몸에 익어서 그 존재 자체를 망각할 때는 종종 있어도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고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의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마음이야 어데 가랴. 그래서 일육십 많은 나를 남달리 위하여 애쓰고 자기 역시 밤낮 없이 뛰여 다니는것이 아닌가.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 좋아 지리라는 확신이 달리는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게 한다.

잠자리에 들며 나는 안해에게 부탁한다.

《여보, 아침일찍 깨워주오. 벼가 알설이를 시작했어.》

마음 폭 놓고 두발 쪽 펼수 있는 이런 밤이면 뒤

동산의 소쩍새 울음소리도 유난히 밝게 들려온다.  
가뭇가뭇 잠이 실려온다.

래일 아침이면 안해는 늘 부르곤하는 그 노래를 또다시 흥얼대다가 시계를 보고 놀라며 나를 깨우겠지.

잠결에 그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듯하다.

...

세상에 두려운것 하나도 없네  
산이라도 옮기고 바다라도 막으리  
**김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언제나 힘이 솟네 오직 한마음

## 불 빛

장혜명

하던 일 마저 끝냈고  
밤깊이 돌아오는 길  
반갑구나! 불꺼진 아파트에서  
내 집 창가에 반짝이는 불빛 하나

늦어지는 이 아들을 기다려  
어머님 잠못들고계시는가  
아니면 젊은 안해  
무릎우에 책을 펴놓고  
마음속 기다림을 읽고있는가

불빛이 흐르는 저 집에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  
아무때 들어서도  
미안할 사람 없고  
무슨 일로 늦었는가를  
루루이 설명해야 하는것도 아니다만

왜 이리도 마음은  
고마움에 사무치는것인가  
불빛이여, 너를 보니  
피곤은 순간에 사라지고  
온몸엔 거쁜 힘이 솟누나

저 불빛아래서  
간절한 마음들이 잠못들고있으리  
잠못들며 믿고있으리  
나의 일터에서 나 아니면  
누구도 대신 못할 일 있어

늦도록 돌아오지 못하는게라고...

아, 내 만일  
순간이라도 그 마음들을 저버린적 있다면  
고개들어 저 불빛을 마주볼수조차 없으리  
나의 어머니, 나의 안해, 어린 아들 앞에  
나는 나그네보다 더 먼 사람으로 되고말리

기다려다오  
기다리는 사람 없다면  
그 무슨 집이라!  
기다리는 저 불빛이 없다면  
어찌 기꺼움없이 지새우는 이런 밤이 있을것인가!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도 좋다  
허나 불만은 끄지 말아다오.  
먼 출장길에서 문득  
기별없이 돌아올 때도  
저 불빛이 마중케 해다오

그러면 내 심장은  
삶의 희열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리  
안락의 불빛 명멸하며 손짓한다 해도  
내 걷는 혁명의 길엔 쉽터가 없으리니

언제나 빛나다오  
천백마디 말보다 더 뜨겁게  
가슴 가득히 사랑을 채워주는  
불빛이여 아, 조국이여!



## 우리 시대 여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

김해월

청춘들의 가슴속에 봄날의 새싹처럼 움트는 참된 사랑은 끝없이 소중하다.

그것은 사랑이 믿음과 행복과 위훈, 아니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창조하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하나의 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오늘 청춘남녀들의 사랑이 어떤 도덕관에 원천을 두어야 청춘의 희망과 포부를 실현하는데서 진정한 힘으로 될수 있는가를 해명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된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정윤리는 혁명동지들간에 맺어진 동지애에 기초를 두고있다. 그러므로 청춘남녀간의 사랑을 련애를 위한 련애로 그려서는 안되며 당과 혁명이 준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사상정신적으로 공감되고 결합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애정윤리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리는가하는 문제는 곧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을 어느 위치에 세워놓고 어떤 자세와 관점에서 대하는가 하는 작가들의 미학적안목과 세계관의 높이, 현실에 대한 립장과 태도에 많이 달려있다.

물질생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의 빈궁화, 정치생활의 반동화로 특징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청년들이 부화타락한 애정관계가 판을 치고있으며 근로청년들의 참사랑마저도 사회적모순과 정신적빈곤 속에서 심각한 비극적운명을 겪고있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의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에는 청춘남녀들의 사랑이 서로 화합할수 없는 사회계급적차이나 빈부의 차이, 개인적인 알뜰관계에 놓여있는 부모들의 장애에 부딪쳐 말할수 없는 생활의 심연속에서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다가 마침내 결렬되고 무참히 짓밟혀 비극적인 길을 걷는것으로 그려지고있다.

이와 달리 인간의 애정윤리를 속박하고 유린하던 각종 사회악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으로 하여 혈연적뉴대로 련결된 우리 사회에서는 청춘남녀들의 사랑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참다운 애정윤리로 활짝 꽃피우고있다.

최근시기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위업을 충실히 받들어가는 길에서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결합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애정윤리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해내고있다.

이 작품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랑을 그 어떤 인간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부선으로 취급한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데서 좋은 시도와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편소설 《들장미》(박태수 작) 《이 나라 녀인들》(김홍익 작) 《조선문학》1990년 7호) 영화문학 《나의 행복》(오혜영 작)이 그 대표작들중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우리 시대 여성들의 참된 사랑관, 미학관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중편소설 《들장미》와 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에는 영예군인들을 사랑하는 이 나라 녀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시대 여성들의 가장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감동적으로 비껴있는것으로 하여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고있으며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무엇을 아름답게 보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처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아름답게 보고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따라 사회의 정신적풍모와 조국의 위력, 그의 미래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청춘시절은 바로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뿜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닦아지는 때이다.

사람이 인생총화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것도 구경에는 이 일생의 출발점을 어떻게 떼며 꽃피우는가에 달려있는것이다.

중편소설 《들장미》와 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은 인생의 출발점을 떼는 우리 청년들이 지녀야 할 집단주의생명관에 기초한 주체의 미학관과 사랑관을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다.

집단주의생명관에 기초한 주체의 미학관과 사랑관을 훌륭하게 보여주는데서 이 작품들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 비결은 이 작품들이 영예군인들을 사랑하게 된 여성들의 정신적요인과 미학관을 옹계 포착하고 깊이있게 그린데 있다.

진숙임과 심유순이 영예군인들을 사랑의 배우자로 선택하고 열렬히 사랑하는것은 그들이 남보다 못하거나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남자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영예군인들과 사랑을 맺은것도 아니며 영예군인들을 동정하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희생정신과 의무감을 발휘하는것도 아니다.

영예군인들을 사랑하는 이 두 소설의女主角들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들이다.

그들이 평범하고 소박하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매력없는 여성들은 더욱 아니다.

그들은 한없이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높은 자존심을 가진 도고한 여성들이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평범성이 말그대로 보통적인것이 아니라 성실성과 진실성의 표현이며 소박성은 품위가 낮거나 불품이 없는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고상함의 높은 발현이기때문이다.

두 작품의女主角들을 높은 자존심을 가진 도고한 여성으로 그리고있는 여기에 작가들이 영예군인들을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들에게서 찾아낸 성격적발전이 있는것이다.

그들이 가지고있는 자존심과 도고함은 어디에서 온것인가.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옳은 인식과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공민적의무를 높이 자각하고 끝없는 헌신성을 발휘한 인간의 기쁨과 긍지로부터 오는 자존심이며 도고함이다.

과거 우리 여성들의 대부분은 남편과 자식을 잘 돌보고 내세우는것을 자신의 생의 기쁨의 전부로 사랑으로 여겨왔다.

생의 기쁨과 사랑에 대한 우리 시대 여성들의 견해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여성들에게 참다운 자주적권리를 안겨주신 때로부터 개인의 운명과 가정의 행복을 조국의 운명과 행복과 결합시켜 승화시키게 되었다.

진숙임이나 심유순, 이들모두는 연약한 여성의 몸이지만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용감히 싸움으로써 깨끗한 량심으로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공민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긍지높은 처녀들이다.

이들은 녀전사로서의 이런 긍지와 함께 높은 이상과 아름다운 꿈도 있고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불타는 욕망과 열정, 굳은 각오와 의지에 넘쳐있는 처녀들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미모와 여성다운 성격적매력까지도 가지고있다.

이것으로 해서 이들은 못사나이들의 류다른 이목속에 사단군의소의 《꽃》으로, 《너왕》으로 또는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맹동한》녀자로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인기속에 떠받들려있는 자존심이 몹시 강한 도고한 처녀들이다.

아무나 감히 접어들 생각을 못하고 용기를 내어 접어든 그꼴한 총각들의 청도 뿌리칠 정도로 도고하고 자존심이 높은 처녀들의 가슴속에 뿌리내려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같이 영예군인들이였다.

이 세상에 남편에게 자기 희망과 아름다운 이상과 단란한 행복을 의탁하지 않는 녀자가 없듯이 애인의 건장하고 억센 육체를 바라지 않는 처녀또한 없는것이다. 정신세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육체적으로 불구인 사람을 두고는 아무래도 몸이 성한 사람들보다 못할것이라는 녀자본능적인 《리기》가 작용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여성으로서 어쩔수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인것이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이런 일반적인 감정으로 보나 이들이 사랑의 배우자로 택한 영예군인들모두가 그들과 언제한번 사랑을 약속한적도, 더우기는 애뜻한 정 한번 나눈적도 없었다는 사실로 볼 때 그들이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어떤 도덕적의무나 연고관계가 없는것이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되어 이 모든것을 초월하여 영예군인들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피동적인 자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에 서게 되었는가.

동정심때문인가, 아니면 희생했기때문인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곧 동정도 희생도 아니며 동정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곧 사랑하게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조국을 위한 성전에 피를 바친 영예군인들을 동정 하나로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 대한 모욕으로 될것이다.

또 사랑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감으로 하여 가지게 되는 희생의 감정으로만 출발한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예군인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의 고통으로 되고말것이다.

동정심과 희생, 도덕적의무감은 아직 사랑이 아니며 사람의 감정이 싹터날수 있는 기초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 도고한 처녀들의 심장을 사랑으로 불타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영예군인들이 이 처녀들의 높은 이상에 맞고 또 그 이상에 만족을 줄수 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중편소설 《들장미》의 진숙임이 근석이를 사랑하게 된것은 사단의 반타격전의 승리를 위해 자기들의 임무에도 없는 적들의 포진지를 습격하다가 중상을 당하여 다리 하나를 잃고도 사랑은커녕 너무나도 응당한 일로 치부하는 그의 검소하고 고상한 정신세계, 자기를 위한 좁은 세계가 아니라 조국을 위한 그 어떤 크고 의의있는 일에 성실한 노력

을 바치는데서 인간다운 긍지와 행복을 느끼며 사는 숭고한 정신세계에 있었던 것이다.

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의 심유순이가 단 한번의 약속도, 단 한마디의 다정한 말도 건넌 적이 없는 리벽을 그토록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고 전선에서 한다리를 잃고 돌아왔지만 그의 품에 서슴없이 자신을 맡기게 된 것은 무엇때문인가.

리벽이가 전보용지에 몇자 남기고간 기다려달라는 글때문인가. 전선으로 떠나는 열차에서 자기에 게 흔들던 그 손저음때문인가.

이 모든것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자그마한 돌덩이가 일으킨 파문과도 같이 그의 잔잔하던 가슴속에 이성에 대한 감정의 첫물결을 일으켜놓은데 불과한 것이다.

심유순의 잔잔하던 가슴에 삼단같은 사랑의 불을 지퍼올린 것은 처녀에게 향한 것처럼 소심스러운 발걸음과 대조되어 울려오는 조국의 부름받고 전선으로 달려가는 리벽이의 다급하고도 힘찬 발걸음소리가 그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며 5.1절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가게 된 보물찾기경기때 리벽의 손에 쥐여져있는 망치를 빼앗아 들고 달려가는 자기를 그토록 높이 보는 그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크게 감복했기 때문이다.

자기와 자기 가정만이 아닌 후대들의 행복까지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조국을 위해 한목숨바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 바로 이것이 삶의 모체인 당과 수령 앞에 자기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처녀들의 심장을 틀어잡은 비결로 되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직위나 재산이나 생김새와 같은 사람의 외적요인에서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사상정신적높이에서 찾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닌 주체의 미학관이고 사랑관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지닌 높은 자존심과 도고함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인간의 아름다움도 보고 사랑도 맺는 집단주의생명관에 기초한 미학관과 사랑관에 뿌리를 두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주체의 미학관과 사랑관을 훌륭하게 구현하는데서 이 작품들이 성공할수 있는 비결은 이처럼 영예군인들이 지닌 사상정신세계가 자기들이 지닌 높은 이상과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처녀들의 정신세계를 포착하고 분석적으로 그린데 있을뿐 아니라 사랑이 사랑으로 되게 하는 미적감정을 영예군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느낄 줄 아는 우리 녀성들이 간직하고있는 높은 미감과 정신력을 감동깊게 그린데도 있다.

사상적지향과 이상이 같다 하여 그것이 곧 남녀간의 사랑으로 애정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아무리 똑같은 높이의 정신세계에 서있는 사람일지라도 제나름으로 별로 끌리는 사람이 있다.

왜냐면 인간을 제나름의 미적감정, 미학관을 간직하고있기때문이다.

사랑은 이상이 일치되고 미적감정, 미학관이 일치될 때 생겨나는 감정이며 열정이다.

진숙임이나 심유순이가 근석이와 리벽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들의 사상정신적아름다움과 함께 그들이 간직한 인간적향기에 매혹되었기때문이다.

류달리 아름답진 못하지만 소박하고 은근한 아름다움, 화려하진 않으나 기막힌 짙은 향기를 풍기는 들장미와 정향꽃의 아름다움, 이는 바로 진숙임이나 심유순이가 좋아하는 미적감정인 것이다. 물론 진숙임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장미를 사랑해온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근석이를 안다음부터 이 꽃을 사랑하게 되고 아름다운 한송이의 들장미로 피어나게 된 것은 그가 지닌 미적감정이 바로 들장미와 같았기때문이다.

어느 남자가 사귀고싶어하더라 말만 들어도 처녀의 순결을 잃은것처럼 여기며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순진성, 아무리 용감하고 위훈이 높다 해도 희뽀고 싱거운 사람은 질색인 그의 소박성과 순결성,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의 가슴속에 상처를 입힌 대가로 나혼자만 행복을 누린다면 무슨 인간이며 그렇게 얻어진 행복을 값지고 아름다운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높은 정의감, 이것이 바로 숙임이의 인간적미이다.

이는 사랑에서는 비록 실패했으되 《인간으로는 승리하고싶다》는 마음을 간직하고있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누가 얼마만한 노력을 바쳤는가 하는데서가 아니라 누가 더 깨끗하고 사심없는 량심을 바쳤는가 하는데서 찾는 들장미와 똑같은 인간적향기를 지닌 근석이와 신통히도 같은 것이다.

하여 숙임이는 마침내 근석이를 사랑하듯 들장미를 사랑하게 되고 이 꽃처럼 진한 향기를 풍기며 이 땅위에 또 한송이의 들장미로 되는 것이다.

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에서 남자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간절한 청도, 사랑의 고백도 거들떠보지 않는 심유순이를 두고 《맹동한》 녀자라느니 《성난 고양이같다》느니, 《지뢰원》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질투적야유를 섞어가며 시비하고있지만 이것은 그에 대한 리해부족에서 오는 착오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정향꽃과도 같이 소박하고 순결하고 내성적이면서도 열정적인 녀성이었다.

그는 전선으로 떠나는 열차에서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리벽을 향해서 들었던 손조차도 흔들지 못하며 리벽에게 끌리는 마음을 자기의 친한 동무인

레언에게조차 터놓지 못하고 혼자서 선전화를 보면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처녀이다.

이런 유순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리벽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체신소에 매일 오다싶이하면서도 말 한마디 건너지도 못하고 우표만 사갈뿐이다. 전쟁이라는 돌발적인 사변속에서도 그는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며 전선으로 떠나는 날조차도 전보용지에 기다려달라는 몇마디의 글자밖에 적어 놓지 못한다.

어찌보면 전혀 남자다운 맛이 없는 소심한 인간처럼 보이는 리벽이었다.

하지만 심유순은 리벽이가 2년만에 전선에서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보낸 편지를 보고 그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정향꽃과도 같이 소박하고 순결하고 열정적인것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이라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숙임이나 유순이 간직한 이 미학관은 평범한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소박성에 깃든 아름다움, 평범한것속에 있는 인간적매력을 찾을줄 아는 뛰어난 녀성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간의 아름다운 세계, 영웅적인 특질을 그 어떤 특이한 생활에서나 비범한 기질을 가진 걸출한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보고 대하는 벽찬 현실의 주인공들인 평범한 인간들속에서 아름다운것을 발견하고 영웅적인것을 찾아볼줄 아는, 영예군인들을 불구자로 생각지 않고 영웅으로 존대하며 그들에게서 자기 심장에 충격을 주는 아름다운 감정을 느낄줄 아는 이 미감과 정신력은 주체의 생명관에 기초하여 높은 정신생활을 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서만 보편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미학관이고 사랑관인것이다.

이처럼 높은 리상과 아름다운 미학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던 영예군인들에게 아름다움을 리성적으로뿐만아니라 감정적으로 발견할수 있는 높고 풍부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근석이나 리벽이가 지닌 숭고한 정신세계와 그속에 비껴있는 고상한 미적감정은 유순이나 숙임에게 있어서 말그대로 매혹된 감정을 낳게 하는 원천인것이다.

억지로 끌어당길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또한 스스로 매혹되고 떨어질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매혹이란 말그대로 그 어떤 도덕적규범이나 론리적구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것을 초월하여 순간에 이루어지고 깊어지는 숭배감정인것이다.

이 매혹된 감정은 호랑이분대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 근석이 자기에게 보낸 연애편지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접수과 병동휴식장에 붙여놓아 그에게 망신을 토폴록 주었던 숙임이 오히려 그가 한다리를 잃은 그때에 부모들의 강경한 반대도, 운

경제의 유혹도 물리치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며 자기의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찾아가서까지 설복하고야만한다.

심유순이 또한 빠웰같은 사람을 사랑의 배우자로 사모하던 생각도, 분도기모양으로 따낸 접수구로 들어오는것과 같이 범박한 사랑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속다짐도 다 잊고 분도기모양으로 따낸 전보접수구를 사랑의 대문으로 여기면서 그의 편지가 어서 날아들기를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며 리벽이가 성한 몸도 아니고 한다리를 잃고 돌아왔지만 그의 품에 안기는것이다.

중편소설 《들장미》와 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을 창작한 작가는 진숙임이나 심유순이의 사랑의 세계를 통하여 사랑이 그 어떤 동정이나 희생이 아니라 집단주의생명관에 기초한 높은 리상과 고상한 미적감정을 지닌 인간들에게 끝없이 매혹되는 감정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진숙임이나 심유순의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영웅적인 인간에 대한 완전한 매혹인것으로 하여 불구자인 남편을 섬기는 안해가 때때로 겪게 되는 슬픔도, 괴로움도, 웃음으로, 의지로 이겨낼수 있게 되는것이며 자기의 애정을 깡그리 다 쏟아만 사람이 부러워할만큼 행복의 꽃을 피우는것을 궁지로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것이다.

아름다운 인간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그 아름다움을 다 알수 있는것은 아니며 또 누구나 그에 끌려들어가는것은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준비된것만큼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기때문이다.

이 두 소설의 작가들은 영예군인들의 참된 삶의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가장 정확히 보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시대 아름다운 인간들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 가장 숭고한 높이에 있는 인간들이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문학에 이바지한 이 작품들의 기여가 있는것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애정분리를 그리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다음으로 우리 녀성들이 지닌 사랑이 집단주의생명관에 기초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데 있다.

사랑의 힘은 무한히 크다. 사랑한다는것은 곧 심장을 바친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영화문학 《나의 행복》과 중편소설 《들장미》는 사랑문제가 서로 상대방을 리해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이 맺어지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인간들의 사랑의 힘에 떠받들려 어떻게 영원한 행복속에 빛나는 인생을 꾸며 장식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특히 이 두 작품에서 수정이나 숙임이의 성격형상이 점차 집단주의생명관을 지니고 성장해나가는

것으로 그려진것으로 하여 그들의 사랑의 세계가 정말 진실하고도 매력적이다.

영화문학 《나의 행복》의 녀주인공 수정이는 우리들이 흔히 보아오는 수집음을 잘 타는 부드럽고 얹전한 녀성들과 달리 생각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때가 많고 이성적인 면보다 감정적인 면이 강하고 일단 무슨 일에 달라붙으면 온 정신을 거기에만 쏟는 정열적인 형의 녀성이다.

중편소설 《들장미》의 녀주인공 숙임이도 그냥 보기에는 쌀쌀한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감성적이고 달아오르면 거세차게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정열과 높은 자존심을 지닌 그런 형의 녀성이다.

이런 개성특질을 소유한 그들의 사랑은 정말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다.

박영이를 만나기만하면 투정도 부리고 어리광도 피우곤하는것은 수정이가 어린시절부터 사랑에 주려온 자기를 몹시 사랑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한것은 박영이에게 부모나 형제에게 주지 못한 자기 사랑의 전부를 다 쏟고있기때문이다. 렬차안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것도, 사람들이 자기보고 무엇이라고 하리라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선으로 떠나는 박영이를 바래우는 그의 모습과 수리봉계선에서 애인이 싸우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임무도, 포탄이 우박치는것도 아랑곳않고 달려가는 그의 행동세계에서 그의 열렬한 사랑을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그의 개성적인 성격의 표현으로서 장점이기도 하고 제약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중편소설 《들장미》에서 숙임이는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남편이 조국에 바친 피와 세운 공로로만도 충분한데 다른 일이라면 몰라라 늙은이들이나 하는 신발수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만 실망하여 고민속에 모대긴다. 또 남편이 수양이 없는 《멋쟁이》 녀자에게서 수모를 당하고 더우기 자기가 차버린 덜된 인간인 윤경재에게서까지 모욕을 받을 때에는 영예군인인 남편이 뭐가 부족하고 빛진것이 있어서 그런 욕을 봐야 하는가고 하면서 더는 참지 못해 《맹전》으로 지내기도 한다.

수정이나 숙임이의 이런 행동은 그들이 정열적이고 용감하고 자존심이 강한데도 있지만 그보다도 애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본의 아니게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먼저 생각한데로부터 나타난 행동인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높은 리상을 지니고있는 인간들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된 인간들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박영이나 근석이를 자기들의 사랑의 전부로 여기는 수정이나 숙임이의 감정이 아무리 열렬하다 해도 이 사랑이 숭고한 지향과 의지와 결부되지 못할 때 그들의 사랑은 서로 생각하고 위해주는 인정적

인 감정으로 끝나고마는것이다.

영화문학과 중편소설은 수정이와 박영, 숙임이와 근석의 이 사랑을 집단주의생명관에 원천을 둔 사랑으로 끊임없이 끌어올려 심화발전시켜야만 그들의 사랑이 퍼내고퍼내도 끝없는 샘처럼 영원하고 또 크나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생활과 성격을 통해서 보여주고있다.

수정이나 숙임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는 데 청춘의 빛나는 삶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 앞에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바쳐가는 녀성들로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의 품에 자기 생명의 원천을 두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지 사업이나 생활에 들어가서는 때때로 개인의 요구의 견지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약점을 성격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그들이 자기분위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하며 개인의 요구를 집단주의적요구보다 우에 놓고 사색하고 행동하는 개인주의적생명관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영화문학이나 소설은 수정이나 숙임이가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 개인주의적의식의 잔재를 깨끗이 극복하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체현해가는 성격발전과정을 그 누구의 교양으로가 아니라 동지들과 남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고 스스로 깨닫고 고쳐나가는 인간들로 그리고있다.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것처럼 정이 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깊고도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듬뿍 맛보게 하고 깊은 여운속에서 오래도록 가슴속에 새겨두게 하고있다.

영화문학 《나의 행복》에서 수정이자신은 전투임무도 다 잇고 애인을 만나러 정신없이 뛰어가는 하지만 그도 조국과 동지들에 대한 사랑을 귀중히 여기는 녀성인것으로 해서 자신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조차도 등에 업은 지휘관을 먼저 생각하는 애어린 전사의 모습에서와 또 부상병을 구원하기 위해 몸뚱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함을 까부신 영속간호장의 영웅적행동에서 무언의 자극을 받게 된다.

중편소설 《들장미》에서 숙임이는 근석이가 자기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수령님께서 현지도길에서 맨발로 서있는 아이들을 보시고 것처럼 가슴아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직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릴 한가지 일념으로 자기 몰래 신발을 수리하는것을 보게 된다.

숙임이는 윤경재에게서 받은 모욕을 삭이지 못해 며칠째 서리친 낫색으로 《맹전》을 하는 자기의 행동을 보고 근석이가 생활의 주인공이 되는가 아니면 구경군이 되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속에 모대기다가 태동무에게 자기의 이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을 하소연하여 쓴 편지를 보게 된다.

안해이기전에 생명의 은인으로 떠받들던 자기의

간절한 청도 끝내 마다하고 신발수리를 계속하는  
근석의 모습과 태동무에게 보내려고 쓴 그의 편지  
는 숙임이에게 커다란 자극으로 되었다.

이렇게 수정이와 숙임이에게 자극을 주는 인상깊은  
장면들은 그들의 성격발전을 비약으로 이끌어올  
린 중요한 계기들이었다.

영화문학 《나의 행복》에서 죽었다던 남편이 살아  
있다는 심장이 터질듯한 기쁜 소식을 듣고도 찾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부상병들을 수술하는  
데만 몰두하는 수정이의 이 행동은 때때로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 정반대로 격동된 감정의 크  
기를 표시하는 심리적과정의 특성에 있는것이 아니  
라 자기 임무에 충실한 세련된 모습, 혁명의 원칙적  
요구앞에 사사로운 감정을 누르고 개인의 사랑을  
집단의 사랑으로 높이 올려세우려는 자각에 기초한  
고상한 정신세계에 뿌리박고있는것이다.

수정이는 동무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며 학  
위론문을 완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될 때면 자  
기는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시기에도 계속 군복을  
입고있는것으로 하여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깨가  
쏟아지게 살아보지도 못하는것은 물론 어찌다 모  
처럼 마련된 상봉의 기쁨도 나눌수 없고 학위론문  
조차 쓰지 못하게 된다는 서운한 생각속에 휩싸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안해는 다른 녀자들과 달리 수많은 군  
인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혁명의 전초선에 선 대  
단한 녀자라는 소중히 긍지를 언제나 안고산다는  
남편의 말. 그의 이 말은 그의 가슴속에 생의 보람  
과 활력을 복돋아준것으로 하여 수정이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사랑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한없이  
뜨겁고 크나큰 사랑인 집단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  
될수 있었다.

중편소설 《들장미》의 숙임이도 직업의 귀천에  
대한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로부터 남편이  
신발수리공이 되는것을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나  
라의 어려운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행복에 그  
늘이 질세라 원심을 쓴데로부터 남편을 고민속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숙임이는 자기의 이 행  
동을 두고 이때까지 자기야말로 조국을 위해서 남  
달리 희생정신도, 정의감도 강한 녀자라고 자부하  
며 살아온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고 커다란 후  
회와 자책 속에 모태기며 채찍질함으로써 그의 사

랑 역시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인 사랑으로 될수 있  
었다.

바로 수정이와 숙임이의 이 집단주의생명관에 원  
천을 둔 크나큰 사랑의 힘에 떠받들려 박영이는 초  
소에서 달려드는 적함을 까부시고 영원히 빛나는  
삶을 장식할수 있었고 근석이는 영예군인들로서 구  
두공장을 건설하고 구두연구에서 《왕고집》을 부  
릴수 있었으며 생의 마지막순간에조차도 아이들에  
게 전투담을 이야기해줄수 있었던것이다.

이처럼 남편들이 영생의 위훈속에 시대의 영웅으  
로 참된 삶을 빛내일수 있는것은 다름아닌 바로 우  
리 안해들의 가슴속 깊이 간직되어있는 가장 순  
결하고 고결한 사랑의 힘이 있었기때문이다.

또 혁명적동지의 관계로 맺어진 이들의 사랑이  
둘로 합쳐짐으로서 숙임이나 수정이는 전화의 나날  
이나 오늘에나 변함없이 혁명의 전초선에 억세게  
서서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큰 행  
복속에 살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이처럼 이 두 작품은 그들모두에게 정열과 투지  
를 남게 하고 환희와 영원한 기쁨을 안아오게 한  
마음의 전부, 삶의 전부, 아니 모든 행복인 사랑이  
집단속에 원천을 두고 꽃필 때 무궁하다는것을 빛  
나게 확인하고있다.

이 두 작품은 또한 사랑의 힘에 대한 송가이면서  
도 조국을 위해 피를 바쳐온 오랜 세 세대들을 영  
원히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날수 있게 하고 혁명을  
체험해보지도 못한 오늘 우리 세 세대들에게 사랑  
과 행복이 어떻게 될 때 진정 아름다운 생을 꽃피  
울수 있는가에 혁명적해답을 준 좋은 작품들인것이  
다.

이처럼 중편소설 《들장미》와, 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 영화문학 《나의 행복》은 전쟁시  
기나 갓 전쟁이 끝난 시기에 맺어진 우리 녀성들  
의 사랑의 세계를 그리고있지만 그것을 현시대정신  
의 견지에서 깊이 파고들으로써 오늘 우리 청년들  
이 지녀야 할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미학  
관과 사랑,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깊이있게 해명해  
주고있다.

작가들이 우리 문단에 훌륭히 피워놓은 탐스러운  
들장미와 정향꽃은 떨기떨기 피어나 꽃다발이 되  
고 화원이 되어 이 땅에 짙은 향기가 영원히 차넘  
치게 할것이다.

# 승 리

차영도

너무도 많은것을  
우리는  
여기에 바쳤다  
승리!

목숨과  
시련과  
참으로 참기 어려웠던  
온갖 준엄함...

오, 우리는 결코  
걸어온 혁명의 먼먼길우에서  
헐값으로  
승리를 얻지 않았다

이 나라 공민이 아니고서는  
알수 없으리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것과  
승리를 바꾸었는가

해마다 이 땅의 7월은  
추억하리라  
불속에서, 연기속에서 재가 된 이 땅,  
하지만 끝끝내 이기고야만  
그 성스러운 조국해방전쟁을,

추억하리라 승리의 그 7월은  
원쑤의 불구멍 가슴으로 덮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애젊은 전사들을,  
락동강 모래불에 더운 피 뿌리며  
멸적의 노래높이 원쑤를 격멸한  
이 나라의 그 모든 용감한 아들딸들을,

오, 추억하리라 추억하리라  
혁명의 1세들이 백두에서 안아온  
피어린 승리의 그 전통을,  
이 나라, 우리 인민이  
준엄한 50년대우에  
어떻게 피줄처럼 이어놓았는가

그 피줄은  
복구건설의 재더미우에 소리치며 엮여지던  
땀젖은 한장의 벽돌에도 맥박쳤고  
무섭게 달아오른 강선의 압연기에도  
뜨겁게 이어졌더라

승리!  
그것은 오늘날  
조선의 상징과도 같은것  
그것은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은것,  
일심단결의 나라-주체조선의 상징

승리의 진가를 모르는  
이 세상 온갖 가련한 족속들이  
자본주의 시궁창속에 코를 박고  
패배의 쓴맛을 들이킬제  
세계여, 보라!  
오늘도 붉은기 높이 나아가는  
승리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금지가 있노라,  
자부가 있노라,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걸음마다 백전백승해온  
우리 혁명!

하지만 그것은  
프랑카드에 글로 쓰는것과 같이  
시인들이 붓으로 쓰는 노래와 같이  
그렇게 쉬운것 아니었나니

우리 혁명이 피로써 쟁취한  
승리! 승리!  
여기엔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 깃들어있다  
오, 그때문에 우리 당이  
만대에 이어갈 불멸의 전통이어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이어!

# 1 분간을 위하여

- 《시인》의 의미에 대한 간략한 고찰 -

김상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에서 독창성은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뚜렷할 때라야 이루어진다.》**

문단에서 흔히 쓰이는 《신인》이란 말은 보통 《기성》이라는 말과 대치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다. 그러나 그 두개의 말마디사이에 엄밀한 계선이 그어져있는것은 아니고 비교적 오랜기간 창작생활을 한 사람을 《기성작가》라고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창작생활 년조가 짧은 작가를 가리켜 《신인작가》 또는 《신인》이라고 부르고있는것 같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와 다를바 없지만 실제적으로 좀더 말뜻을 좁혀서 즉 제한된 의미에서 《신인》이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인》이란 처녀작 또는 그 부류에 속하는 첫 작품으로 문단에 갓 등장한, 말그대로 새사람, 새작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따라서 독자대중은 물론 문단자체도 그에게서 기성작가들에게는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것, 독창적이며 개성적인것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한 새로운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창작기량의 측면에서만 거의 기성작가들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조건만으로 새 사람들이 문단에 등장한다면 문학은 량적으로 확대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양하고 풍부한 개화발전을 기대할수 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문학창작행위는 공업이나 농업과 같은 생산행위가 아니기때문에 단순한 량적 증산이나 확대는 별로 큰 의의가 없는것이다.

《신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것도 아마 이러한 사정을 념두에 두고있는상실다.

《신인-그것은 새로운 경이, 새로운

전롤이어야 한다.》

《신인은 혜성처럼 나타나는것이다.》

신인은 기성문단에 없는 무엇인가 새롭고 독창적인것을 들고나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신인과 관련한 그러한 말들은 다소 과장되고 지나치게 상징적인 경향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옳은 규정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인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절대적인것도 전적으로 정당한것도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두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첫째로, 설사 어떤 신인이 혜성처럼 찬연하게 솟

아올라 기성문단에 경이감과 전롤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것에 그치고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지고만다면, 다시말해 그가 가지고 등장한 새로운것, 개성적인것이 그대로 지속되고 더욱더 발전되어 성숙되지 못함채 곧 기성문단의 틀속에 용해, 동화돼버리고 만다면 그들의 혜성같은 출현도 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별로 의의가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와 실례는 실지에 있어서 적지 않은것이다. 지어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처녀작으로 혜성처럼 문단에 등장하여 기성문인들의 경이를 자아내고 장래를 촉망받았던 신인이 그후로는 이렇다할 주목을 끌만한 작품을 내놓지 못하여 작가생활 수십년에 걸치는 한생을 총화해보면 결국 처음 문단에 등장한 처녀작이자 출세작이 그의 대표작품으로 되고말았다는 비극적인 실례도 있는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밝히는것은 간단치 않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 유망한 신인이 나타났을 때 그의 출현에서 신선한 인상을 받으면서도 흔히 성급한 찬사를 삼가면서 《좀더 두고보아야지》 하는 여유를 둔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것은 바로 그러한 사정과 관련되는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차후의 그의 창작과정과 활동에 대한 검토의 자세이며 눈초리라고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새로 문단에 진출한 신인들은 자기들이 독자들과 기성세대에게 준 신선한 첫 인상을 보존하면서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자신의 재질과 기량을 더욱 성숙시켜나감으로써 그러한 검토를 이겨내야 할것이다.

최근년간 우리 시대에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 작품들을 가지고 등장하여 독자들과 기성시인들의 주목을 끈 몇명의 신인들이 있다. 《렬사릉시초》로 등장한 장혜명, 《주체사상탐시초》의 홍문수, 인민군렬사탐시초를 쓴 김철민, 농촌생활을 노래한 시편들을 들고나온 정인길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모두 각이한 개성과 참신성으로서 주목을 끌었고 기대를 가지게 했다. 장혜명은 높은 지성도와 세련되고 함축된 표현으로, 홍문수는 그야말로 탐의 무거운 대석을 안아올려 쌓는것 같은 심중한 사색의 무게와 축조의 견고성으로, 김철민은 조국수호에 젊은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절절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그리고 정인길은 이제야 진짜배기 농촌시인이 탄생하는가부다싶게 진한 물냄새, 흙냄새가 풍기는 전원서정으로 저마끔 자기들의 《신인》 자격증을 주장했다. 그들의 《신



인》 자격은 《6.4문학상》과 기타로 확인되었고 그후의 활동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김철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후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있는것 같다. 그들은 이미 첫 작품들로 경이에 가까운 큰 인상을 주었는데 아마 그보다 더 큰 경이와 전율, 더 강력한 《제2탄》들을 준비하고있는지 모른다. 그들이 자기들의 빛나는 첫출발을 어떻게 이어나갈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다만 우려되는것은 그들중 유일하게 그후도 계속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 김철민이 그 다작에도 불구하고 첫 등단시의 참신하고 개성적인 인상들이 점점 모호해지고 모난 모서리들이 어느틈에 닳아없어지면서 기성인들의 작품들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고있는듯한 감을 느끼게 하는 사실이다.

필자가 《신인》과 관련하여 앞에서 인용한 《규정》들을 전적으로 옳은것이라고 믿지 않는 두번째 근거는 비록 처음에는 경이와 전율로 문단을 뒤흔들며 혜성처럼 떠오르지 않고 누구의 주목도 끌지 못한채 문단에 나섰으면서도 그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점차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을 가지게 되고 문단에 뚜렷하고 확고한 자리를 잡는 작가, 시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특수한 개별적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문학창작수련은 보통 기성의 모방으로부터 시작되는것이기때문이다. 얼마나 긴 수련기간을 거쳐 모방에서 벗어나 자기의 개성과 독창성을 찾는가 하는것은 사람에따라 각이하겠지만 만약 그가 진정한 작가라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것이다. 그런 실례는 적지 않다.

필자의 파민탓인지는 모르지만 시인 오영환이 언제 어떤 작품을 가지고 시단에 등장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으로 여겨진다. 등단후에도 그는 분명한 편집일과 신인지도사업을 하면서 여가에 한편두편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작품을 썼던것 같다. 어느 평론가도 지어 어느 동료시인들도 그에게 주목을 돌리거나 그를 화제에 올린적이 있는것 같지 않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시집을 묶어내자 우리 시단에 재능있고 개성있는 좋은 시인이 있다는것이 마치 신기한 새 발견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흔히 사용하는 주제별 편집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묶어진 그의 시집 《숨쉬는 땅》에서는 《20대작품편》으로부터 시작하여 30대,

40대, 50대 작품편 등 년대순으로 작품들이 배열되어있다. 그래서 시인 오영환이 어떤 시작품들을 가지고 시단에 등장하여 어떤 성숙과 발전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한눈에 알수 있게 되어있다.

《20대작품편》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라는 세련짜리시가 있다. 그 전문을 인용한다.

어머니 슬하를 멀리 떠나면  
그 얼굴이 더욱더 생생하여라  
나를 키운 깊은 주름 하나하나에  
기울인 사랑이 새겨있어라

백발을 잊으시고 보살피시는  
그 모습이 꿈에도 어리어와라  
내 어머니 세상에 살아계실제  
어엿한 한사람 되고싶어라

언제면 어머니의 사랑 본받아  
나라 위해 한몸 모두 바치랴  
자나깨나 아들은 머리 숙이고  
걸음걸음 그 사랑을 꽃피우리라

보다싶이 이 작품에는 독특하게 포착된 시상이란 별로 없다. 다만 어머니 슬하를 멀리 떠나니 어머니의 모습이 더 그리워지고 그 사랑이 더욱 사무쳐와서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어엿한 사람이 되고싶다는 소원이 소박하게, 너무도 소박하게 서술되어있을뿐이다. 그렇다. 시로 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소박하다. 그러나 그대신 진실하고 다감하고 따뜻하다. 그러한 다감하고 따뜻한 감정은 같은 시기의 다른 작품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길에서》에서도 엿볼수 있다. 행군도중 우연히 이전 평화시기에 온적이 있는 정양소앞에서 휴식하게 된 소감을 노래한 시인데 시인은 지금은 마당에 풀만 길게 자란 인적없는 정양소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여기서 사귀 정양생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조국에 위협이 닥쳐오면 병자도 허약자도 모두 펼쳐나서서 조국을 사수하는 우리 인민의 위대성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그러한 소박성과 다감하고 따뜻한 감정과 정서로 시창작을 시작한 오영환은 7~8년후인 30대 어구에 와서는 그 소박하고 다감한 감정을 보다 폭넓은 생활현장으로 개방하는 경지에 이른다.

어느 눈내리는 저녁 한 중년사나이가 모자와 어깨의 눈을 털면서 우편국 문을 열고 들어와 뜨거운 입김으로 수화기를 후후 불고는 자기 조합을 불러서 천정과 창문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큰소리로 웨쳐댄다.

《...양무린 어느 골짜기에 있소?》  
런이어 그는 물고 또 묻는다  
수도에 출장은 그사이  
《길호의 입당은 결정됐는가?》  
《복순이 첫아기 순산했는가?》

그 다음 회계장을 바꾸어달라는데  
발에들 나가고 없다는 대답  
들에 실어낼 엄청난 퇴비무지를  
그는 보는듯 껄껄 웃어대누나

우편국 콩크리트바닥을  
 체고장 벌인듯 그는 거닌다  
 이렇게 쉽없이 그는 걸었으리  
 보둑과 오솔길과 집집의 문전을  
 (《우편국에서》의 일부)

열핏 보면 하치 않은듯한 생활의 한장면을 포착한 이 소박한 시를 읽노라면 우편국에서 자기의 협동조합에 전화를 거는 조합의 호주담게 세심하면서도 호방하고 활달히 관리위원장의 생동한 모습과 함께 그 조합에서 영위되는 분망하면서도 활기에 넘친 생활모습이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지면서 저도 모르게 즐겁고 밝은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쳐서 그로부터 4년후에 오영환은 서정서사시 《류다른 한해》를 썼는데 여기서 이미 시인 고유의 개성적자질이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있다. 개개의 작품들을 분석평가하는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때문에 길게 론하지는 않겠지만 작업반장 분녀아주머니와 제대군인 명진이, 도무지 두 인물이 등장할뿐이고 아무런 복잡한 이야기거리도 설정돼있지 않은 이 길지 않은 작품에서는 착하고 인정깊은 우리 농촌사람들의 소박하고 화목한,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 높고 순결한 생활이 펼쳐지고있으며 그것을 미소를 머금은 지혜롭고 따뜻한 눈길로 조용히 바라보고있는 시인의 모습이 보이는데다.

오영환은 50고개를 넘은 최근시기에 연령으로 보아서는 너무 이른듯싶은, 자기 생애를 총화하는 《나의 고백》이라는 시를 쓰고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노라  
 너 이 땅에 태어나서  
 밟은 땅 얼마이고  
 사귄사람 얼마인가

정든 사람이 인민이고  
 마음붙인 고장들이 조국일진대  
 너 거기에 남긴것 무엇이고  
 너 그들에게 바친것 무엇인지

시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끝에 가서 매우깊은 철학적의미를 부여한 시적언어로 자신에게 명령한다.

살아라 살아라 네 모습에  
 너를 낳은 어머니의 모색이 남아있듯이  
 어머니조국의 불멸할 모습속에  
 네 사랑 영원히 살아있도록!

오영환은 혜성처럼 떠오른 신인이 아니였고 그의 시창작 전과정에서도 그 어떤 기발한 표현이나 현

관화려한 말마디를 찾아볼수 없다. 더러는

형상력의 부족이 느껴지는 대목도 있다. 그대신 소박하고 진실하고 다감하다. 그런데 시단에는 그러한 시인이 앓을 의자도 있다. 오영환은 자기 의사에 앓아있는것이다.

이왕 《신인》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바에는 좀더 많은 실례를 들고싶지만 유감스럽게도 필자에겐 그럴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았다. 문학현장의 장기결석생인 필자에게는 현재 활동중인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 서신교환으로 사귀게 된 한 시인을 청년시인이라고 불렀다가 50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청년이란 웬말이냐고 항의를 받고 당황한적까지 있다. 하긴 예민한 현실조율력과 건실한 력사의식을 소유하고 체때에 폭넓게 현실을 수용하여 기능공과도 같은 숙련된 솜씨로 기념비적시의 대견축물들을 련속 정력적으로 축조하고있는 오영환이 좀 어리고 가냘프나 섬세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서정적노래를 부르는 김석주 그리고 때로 난잡한 경향에 빠지면서도 철저하게 개성적이며 비판복적인것을 지향하면서 복잡하게 굴절된 사고와 표현방식으로 독자적인 시의 경지를 개척하는데 힘을 기울이고있는 동기춘 등을 비롯하여 그외에도 각이한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현시단을 떠메고나가는 적지 않은 핵심적중진시인들이 있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첫 등장과 그후의 창작경력,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바가 없으므로 이 글의 성격과 그가 설정한 과제로 보아 취급대상에서 제외하는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도 필자가 첫 등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작의 거의 전과정을 지켜볼수 있었던 한 시인이 있는데 그는 많은 독자들, 특히 젊은세대들인 청년학생들과 근로청년들속에 많은 독자를 가지고있으며 사랑을 받고있는 김철이다.

김철의 시단으로의 첫 등장은 오영환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화려했었다. 앞서 이미 창작한 작품들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가 실지로 손에 들고 첫 등장을 한 작품은 서정시 《기뻐하노라!》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의 첫 등장이 이 글의 허두에서 인용한것과 같이 문자그대로 새로운 경이와 전율, 혜성같은것이었던가 하는것은 론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작지 않은 충격과 청신한 인상을 기성문단에 안겨준것은 사실이었다. 그러한 충격과 인상은 그 작품을 창작한 신인이 스물한살의 년소한 청년이라는 사실로 해서 더욱 가중되었다.

시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것이다. 훈훈한 봄바람이 들에서 불어오는 이른아침 프락프락들이 포진으로 떠날차비를 하고있는 마을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처녀들이 내달리고 한집문이 열리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웨침소리와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온 마을과 사람들의 가슴을 뒤흔들어놓는데 시인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끝없

이 살고싶은 고향땅》에 또 하나의 귀중한 우리의 미래인 영웅의 출생을 기뻐하면서 아기를 위해 이 땅에 백화가 만발하고 종달새의 노래소리가 하늘을 덮으리라고 축복하는것이다.

이 시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것은 그 밝은 색조와 시 전반에 흘러넘치는 청춘의 랑만과 락관, 그리고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중한것은 현실을 시적으로 파악하고 시적으로 형상할줄 아는 그의 재능의 싹이었다. 전후 첫 봄을 맞이하는 인민들의 활기와 의욕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주제로 한 이 시에서 젊은 시인은 단 한련반, 도무지 여섯행의 정황설정을 주었으뿐 한마디의 서술이나 설명도 없이 인간생활에서 별로 희귀한 현상도 아닌 어린애의 출생이라는 사건 하나를 백마디의 서술이나 설명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주제를 해명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 나 어린 전쟁참가자였던 김철은 전후 맞이하는 첫봄에 새 생명의 탄생을 구가하는 시 《기뻐하노라!》를 들고 시단에 등장했다. 그리고 시단은 또 시단대로 한 시인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시인이 새 생명의 성장을 확신하고 기대했듯이 시단과 독자들도 이 《신인》의 성장을 믿고 기대했다. 김철은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는 그후 불과 몇해어간에 련이어 두권의 시집 《갈매기》와 《철의 도시에서》를 묶어서 세상에 내놓았다. 당시로서는 아마 가장 년소한 청년시인으로서 시단에 확고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김철은 자기의 처녀작에서 보여준 현실에 대한 커다란 긍정 즉 청춘의 랑만과 기백,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등의 감정을 더욱더 전면개방하는데로 나아갔으며 이와 아울러 첫 작품의 단순성과 소박성을 극복하면서 참신한 착상과 신선하고 개성적인 표현, 감각적인 시어의 구사 등을 찾아냄으로써 자기 고유의 시풍을 형성해나갔다.

시집 《갈매기》에 수록된 시들중에서 몇편을 부분적으로 인용해보자.

내 나이 오늘 스물다섯살  
이제 또 반세기는 더 살리니  
친구들이 불같은 술을 사양치 않겠노라  
먼길에 심장이 일찍 식으면 어찌하랴

원하노니...  
즐거운 삶의 길 더 멀고 멀었으면!  
잔을 높이 들자  
잔속에 비친 작열하는 해를 마시자  
전신 참호속에선 야전밥통으로  
신년축배 들던 우리 아니냐

...

오, 할일도 많구나, 우리가 젊었으매  
할일도 많구나, 조국도 젊었으매  
우리의 어깨우에 떠메고가야 할  
세대의 짐은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 언제면 락동강 전우들의 원한을 씻으랴  
우리 어느 새벽이면 공산주의언덕에 신들메를 늦추랴  
우리 몇살때이면 보조선 없는 온 지구를  
제집 트랙 다니듯 다녔을것인가

우리 나이 오늘 스물다섯, 스물여섯...  
이대로 몇세기를 살고싶나니  
친구들아, 잔을 들자, 단숨에 들이키자  
먼길에 심장이 일찍 식으면 어찌하랴!  
(《새해축배를 들며》 중에서)

이 시를 거의 전부다싶이 길게 인용한것은 바로 이 시에 김철의 시작 전과정을 관통하고있는 그의 독특한 시풍과 형상수법 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있다고 생각되기때문이다.

마치 스물다섯살 젊은 나이를 시위하듯이 첫줄을 시작한 이 시에는 부러울 정도로 청춘의 정열과 랑만이 넘쳐흐르고있으며 커다란 역사적사명감과 보람있는 삶에 대한 의욕과 기백이 북을 울리듯 힘차게 고동치고있다. 지어 가렬한 전쟁에서 잃은 전우들에 대한 추억이나 애상조차도 그 열렬한 주정토로의 밝은 색조속에 용해되어버릴 정도다. 또한 잔속에 비친 작열하는 해를 마시자라던가 보조선 없는 지구를 제 집트랙다니듯 다녔고싶다던가 그 착상과 표현도 매우 기발하고 청신하고 감각적이다. 이러한것들이 독자들, 특히 젊은 독자들을 매혹시킨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같은 말을

물안개 걷히는 아침바다우에  
잠을 깬 어린 갈매기 한마리  
흰 날개 파도 스쳐 날으는  
너는 자유로운 바다의 새

라는 련으로 시작되는 시 《갈매기》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이 시의 마지막 3련은 다음과 같다.

갈매기! 너는 이 바다의 청춘을,  
한없이 깊고 넓은 이 바다의 가슴을  
그리고 이 바다 영웅들의 전설을 노래하는  
정열의 가수, 동해의 딸!

이제 다시 네 노래, 네 날음을 막지 못하리니  
날으자! 나의 새야, 저 하늘 끝까지...  
흰 날개 훨훨 창공에 펴고

아득한 수평선을 단숨에 넘날으며

너와 나 목청껏 노래부르자!  
짜워지킨 우리의 바다, 우리의 자유  
나서자란 기슭에 또다시 피어나는  
새 생활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너무 요란스럽다고 이마살을 찌프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기질이 다른 시인은 어색해서 도저히 그렇게 쓸 엄두를 못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철의 경우에는 그 정열과 랑만이 그러한 것들을 모두 휩싸아 가리워버리고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요소들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시인이 특징적인 개성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물론 진실로 랑만과 정열로 심장을 불태우지 못한 상태에서 씌여진 그의 일부 시들에서 그러한 음향이 큰 표현들이 공허하게 과장된 들뜬 소리로 울릴 때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할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가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창작과정을 자기의 그러한 개성적 특질을 계속 견지하면서 그가 애용하는 말을 빌리면 《넓은 보폭》으로 꾸준히 걸어왔다는 사실이다.

시집 《철의 도시에서》 시절의 김철의 시들 속으로는 로동현장이 들어온다. 보다 현실에 밀착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로동현장이 나라의 거대한 숨결로 숨쉬는 대야금기진인 것으로 해서 시인의 목소리 역시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함께 타며 뛺자, 새벽이여! 아침이여!  
심장을 그대로 뿔아올린 듯  
창공을 가득 채운 불같은 태양이여!  
너를 머리에 이고 오늘 또 하루  
땀의 전선, 승리의 진군은 시작되나  
(《건설장의 새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들끓는 로동현장은 그의 시의 양상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시집 《갈매기》에 수록된 《갈매기》, 《동해선》 등과 시집 《철의 도시에서》 중의 《포구의 저녁》, 《바다의 저녁》 등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전자가 주로 바다를 두고 한 주정토로였다면 후자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진한 색채와 굵은 선으로 선명하고 생동하게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세태적인 묘사우에서 역시 해학으로 채색된 랑만과 락천성이 울려나오고 있다.

처음엔 건설장, 다음은 광산, 김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한 로동현장과 생활현실은 그를 사상정신적으로 더욱 성장시키고 조국과 그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활과 인간들에 대한 애정을 길러주어 그로 하여금 폭넓은 시야와 사색의 깊이를 가지게 한다. 그는 책상머리에서는 미처 몰랐던 생활들이 있다는 것과 그 생활들이 가지는 귀중한 의미를 깨닫게 되

며 그것을 시적감동으로 수용한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건설자의 길》, 《저 하늘아래》, 《내 눈에는...》을 비롯한 여러편의 우수한, 그러면서도 종전과는 양상이 좀 다른 작품들이 창작되는데 이 작품들에서 그는 초기의 시들에서처럼 시적감동을 성급히 뜨거운 랑만의 열기에 실어 소리높이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을 거쳐 저으기 가라앉은 사려깊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으며 로동생활체험속에서 얻어낸 참신하면서도 생활적인 언어와 재치있는 표상으로 시의 주제사상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형상하고 있다. 그는 내려쫓는 사다리 한단한단에 혁명을 책임진 자각을 실으며 땅우의 락원을 빛내기 위해 더 깊이깊이 수직갱을 누르며 땅밑으로 내려간다고 쓰고 있으며 천길지심속 만년을 잠자던 돌우에 나의 땀방울이 떨어지자마자 그 모든 돌들이 일시에 숨을 쉬며 노래부른다고 표현하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이 시기의 그의 작품에서는 감정의 직접적이며 개방적인, 때로는 폭발적인 토로보다도 생활적이면서도 참신하고 감각적인 언어구사와 상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만큼 기발하고 환상적인 표현수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이며 표현수법의 단순성과 일면성을 극복하고 형상가능성의 확대와 풍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된다.

하긴 가끔 그것이 지나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재치만이 먼저 신경을 자극하고 지나치게 번쩍이는 언어와 표현들이 눈으로 뛰어들어와 현혹증을 일으키며 그때문에 시의 진실성이 모호해지고 그 내용이 언어에 가리워져 뒤전으로 밀려나고만다.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현혹되어버린다. 이것은 어쩌면 시인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있는 함정일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경계해야 할 그의 한 측면일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은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극단, 다른 함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어쨌든 재간이나 재치는 귀중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더욱 소중히 이겨야 할 것은 김철이 첫 등장에서 가지고 나온 자질의 싹을 수십년에 걸치는 창작생활에서 잘 키워왔으며 부단한 노력으로 성숙시켜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김철이 도달한 지점을 그의 원숙한 경지를 보여주는 시집의 마지막편 《나는 우리 조국을 다 보지 못했다》의 시편들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편들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이 글이 설정한 과제가 아닐뿐 아니라 그럴 지면도 없다. 다만 한가지 꼭 말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시 《어머니》가 창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는 시인이 귀밀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슬하에 장성한 자식들을 둔 나이까지 마

른날이나 꽃은날이나 변함없이 믿고 따르며 모든 운명을 기탁하고 살아온 우리 당, 친어머니도 주지 못한 뜨겁고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그를 안아키워준 위대한 당에 드리는 열렬한 송가인 동시에 영원한 동행자로서 생의 끝까지 따를것을 다짐하는 충성의 맹세이기도 하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시 《어머니》는 시인 김철이 수십년에 걸치는 성장과정에 도달한 하나의 정점이며 시창작 전과정의 총결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김철은 자기의 온 생애를 오직 시와 결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그자신이 최근작 《가고가는 길우에》라는 시에서 시는 자기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은것이며 생존과도 같은것이어서 시와 헤어져서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고있다. 이러한 자각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자질을 부단히 연마하여 오늘 다른 시인이 대신할수 없는 자기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했던것이다.

×

이상에서 《신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것에 대한 약간의 고찰을 시도했다. 이 줄렬한 글이 서술한 내용을 개괄하여 결론을 짓는다면 《신인》의 의미와 내용도 시 그자체처럼 다양한것이며 하나의 틀이나 규격으로 재량할수 없다는것이다. 김철과 같은 경우는 가장 바람직한것이었지만 그렇다고 벼꽃처럼 눈에 띄이지 않게 피어나서 알찬 이삭으로 성숙하는 오명환과 같은 경우도 나쁘다고 말할수는 없는것이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것은 아무런 광채도 없이 나타났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경우겠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아쉬운것은 찬연한 광채를 뿌리며 나타나서 청신한 인상을 안겨준 신인이 어느덧 새벽별처럼 광채를 잃고 희미해지면서 기성의 틀속에 동화돼버리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신인》이 아니라 아류로 떨어지고만다. 그런데 백명의 아류는 한명의 진정한 신인, 진정한 시인을 대신할수 없는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면 비전문가인 필자가 이러한 글을 쓰는것은 더 많은 신인들의 출현을 바라는 심정에서다.

우리의 시의 화원은 풍성하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다채롭다고 말할수는 없을것 같다. 같은 종, 같은 파에 속하는 화초가 아무리 화단 가득 피여있어도 화원이 풍성하긴 하겠지만 다채로울수는 없는것이다. 문학용어로 말하면 《류사성》이라는것으로 될것인데 그 《류사성》을 타파하자면 기성세대 각자의 더 진지한 탐구와 함께 재능있는 신인들의 출현이 요망되는것이다.

시를 읽지 않는다는 말들이 있다. 또 시를 제일 읽지 않는 사람이 시인들이라는 말도 있다. 물론 이것은 룡담이 아니면 역설일것이다. 허나 설사 그렇

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 생겨나서 떠돌아다니다는 사실자체가 그냥 웃어넘길수 없는 좀 서글픈 이야기가 아닌가. 게다가 시를 읽지 않는 리유가 《재미없어서...》, 《시간이 아까와서...》일 때는 문제는 좀더 심각해진다. 보통길이의 시 한편을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분안팎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설 한편 읽는데 소비하는 수십시간은 아깝지 않고 시 한편을 읽는데 소비하는 1분이 아까운가 하면 화를 낼수는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인민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듯이 독자들에게 책임을 지울수는 없다. 독자는 정직하기때문이다. 책임은 1분간 독자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시자체에 있다. 그러나 한편 좀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시의 공지이며 영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은, 따라서 가장 어려운 문학이며 문학중의 문학이라는 반증이기도 하기때이다. 소설은 인물들과 인물들간의 관계, 생활과 그 묘사, 사건과 이야기줄거리 등등,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끌고갈수 있는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있지만 시(서정시)는 특수한 레외를 내놓고는 그러한 수단들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시는 다른것들, 즉 감정, 정서, 사색, 발견, 참신성 등 순수 추상적인것으로 그것도 고도로 연소된 그런것으로 독자의 심장을 점령하고 강한 자석처럼 적어도 1분간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놓아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 1분간이다! 그런데 그 1분간이 그리 쉬운일이 아닌것이다. 신인에게 있어서 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기성의 경우에는 이러나 저러나 이미 지니고있는 얼마간의 권위나 명성같은 것이 있을수 있고 또 이전에 나쁘지 않은 인상을 주었을수도 있어서 그러한것들이 일정한 도움을 시인에게 줄수 있지만 신인은 도움으로 된 아무런 의상도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를 검토의 엄한 눈길앞에 드러낸채 적수공권으로 그 1분간의 대결을 견디여내야 하기때문이다. 여기에 신인 등단의 또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신인은 어차피 그 모든 어려움을 디디고 넘어서야 하는것이다.

시를 읽지 않는다는 말을 필자는 믿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시라면 사람들은 읽을것이며 그것도 즐겨 읽을것이다. 늘 책상구푹이나 머리맡에 놓아두고 거듭거듭, 어떠한 보풀이 일고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 읽을것이다. 시란 그런것이 아닐가?

사람들이 읽지 않는것은 시가 아니라 시 비숫하면서 시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일것이라고 필자에겐 생각된다. 이를테면 1분간의 《대결》을 견디여 내지 못하는 그 무슨 모조품같은것 말이다. 그러니 1분간의 《대결》과 그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것인가. 하물며 신인이나 신인 지망자에게 있어서는 더 말한것도 없다.

## 만물상 외 1편

조성관

여기서는 병어리도 말문을 열리  
그러나 나는  
말문이 막힌 병어리  
  
물어보자 고금에  
너의 아름다움 한 노래한 가객이

천하에 있었던가  
  
노래 한수 짓지를 못한들  
한될것 없으랴  
나의 노래 그 아름다움에 허물을 입힐가보아

## 그 이름 몇이더냐

아, 절묘의 상상봉  
봉태산 일만이천봉...

첫걸음에 찬탄만 말고  
가을에 오란다  
다시 가을에

아, 가을의 금강 금강의 가을  
단풍저 불타는 풍악산...

넋없이 찬탄만 말고  
겨울에 오란다

다시 겨울에

아, 겨울의 금강 금강의 겨울  
천태만상 수정의 봉우리 개골산...

날씨에 따라 시간마다 변하고  
절기에 따라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움의 요지경 금강산

그 이름이 몇이더냐  
변화무쌍한 네 아름다움 다 담기엔  
한 이름만으로는 모자라

## 《땅멀미》

리영

산같은 파도에 배가 흔들려도  
바다 멀미 모르던 사나이들  
조국의 부드러운 흙이 발에 닿자  
그만에야 《땅멀미》하네

비틀거리는 걸음 바라보며  
저마다 즐겁게 하는 말  
엄마품에 안기는 아기처럼  
다시 첫걸음마 떼다네

## 봄비내리던 날

류도희

남쪽에 둔 고향을 떠난지도 40년, 내 나이 어느덧 예순다섯이 되어온다. 나이가 나이다보니 머리엔 흰서리가 질게 내려앉았고 기억력도, 정열도 젊었을 때와는 같지 않다.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는 하지만 어찌하랴, 세월밖에서 살수는 없는것이니...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사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다. 즐거운 일, 기쁜 일, 좋은 일들로부터 슬픈 일, 가슴아픈 일, 피로운 일, 안타까운 일, 때로는 망신스러운 일에 이르기까지 이틀테면 인생의 희로애락이랄까 쓴맛, 단맛을 갖가지로 맛보았다.

긴긴 인생행로에서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마는 그중에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으니 내가 누이 아닌 누이의 60돛생일연에 참석하게 된 일이 바로 그러한 웃지 못할 일들중의 하나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해 세월에 나는 청첩을 받고 한 녀인의 60돛생일에 참석했던 일이 있다.

새로 일떠선 광복거리의 초고층 살림집창문으로부터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굴뚝이 멀리 바라보였다. 널찍널찍한 방들마다에는 이 집의 아들딸들과 며느리, 사위, 손자며 손녀들, 그리고 찾아온 친지들과 동료들이 가득 모여 흥성거리고있었다. 주인내외는 몹시 반가와하며 나를 귀빈으로 극진히 맞아주었다.

《저의 오라버니예요!》

녀인이 손님들에게 소개하자 방안의 시선들이 일시에 나에게로 쏠렸다.

《아니? 과장선생님에게 오라버니가 계셨는가요?》

《글쎄... 나도 처음 듣는 소리요.》

《오빠와는 고향에서 헤어졌다던데?!》

주인집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나의 귀가에 여거저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의혹을 품는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혈육도 친척도 아니며 그의 가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말하자면 판관 남인 까닭이다. 그런 내가 친정오라버니로 대접을 받고있으니 그들로서는 놀라울수밖에...

나는 참으로 묘한 인연으로 그 녀인을 알게 되었다.

몇해전 우연한 기회에 한 친구로부터 남선우라는 녀인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자기가 입원했던 병원

의 과장이었다면서 서울에서 의용군으로 들어온 너자라는것이였다. 나는 귀가 솔깃하고 갑자기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혹시 그애가 아닐가?...)

나의 눈앞에는 썩라복차림의 한 소녀의 모습과 함께 그의 오빠 남철우의 얼굴이 번개처럼 떠오르더니 이어 련쇄반응을 일으키듯 그의 집이며 우리 집, 서울의 거리거리의 골목들, 헤어진 혈육들과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학교며 교정의 뽕뿌라나무, 철봉대... 등 아득히 흘러간 가지가지 추억들이 일시에 되살아올랐다.

《오빠가 있다고 하지 않습디까?》

나는 그에게 다우쳐 물었다.

《서울에 오빠와 동생들이 있었다는것 같더군!》

틀림없는 그였다.

(평양에 와있는걸 여직껏 모르고있었다니?!...)

일시에 찾아든 고향생각으로 그날밤을 꼬박 밝히다싶이 한 나는 이튿날 전차와 지하철을 옮겨타가며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지난밤 야간근무를 서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다는것이 다. 집주소를 물으니 탑재동이라고 한다. 어지간히 먼 거리였다. 게다가 나는 몹시 지쳐있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며 후날 다시 병원으로 찾아올가 어쩔가 한동안 망설이였다. 그러나 어제밤처럼 또 잠 못이루고 시달릴것을 생각하니 견디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만하면 당장 궁금했던 집소식을 들을수 있을것만 같은 조급증이 나를 사로잡았다.

(에라, 내친 김에 집으로 찾아가자!)

나는 밖으로 나왔다. 아침부터 찌뿌둥해있던 하늘에서 비꽃이 듣기 시작하였다. 다시 전동차며 뺨스를 갈아타고 탑재 거리에 내렸을 때는 보슬비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첫 봄비였다. 비는 나의 몸외투의 어깨를 점점이 적시는가 하면 나의 흰 머리카락에도 조심히 내려 이슬로 땀했다가는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나는 개의치 않고 열에 뜬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이집 저집을 찾아다녔다.

후날 나는 이따금 이날을 돌이켜보고는 그때의 나의 정상이 남의 눈에 어떻게 비겼을가를 생각하며 혼자서 쓰거운 웃음을 짓곤하였다.

이윽고 나는 집을 찾아 들어갔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그는 내가 찾는 남선우가 아니였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었던것이다. 그의 오빠는 철우가 아

니라 태석이었으며 그의 집은 창신동이 아니라 북아현동이였다. 그러나 모든것이 다를수밖에...

피곤이 일시에 몰려왔다. 실망과 락담, 허전하고 서운한 생각과 함께 뒤따라 찾아든 쑥스러움과 창피스러움...

(나살이나 먹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망신이람!...)

나는 참으로 웅색하고 난처한 처지에 빠져버렸다.

허나 너인은 나의 심정을 너무도 살뜰히 리해하여주었다. 내가 그 집을 찾아들어갔을 때, 너인도 바로 봄비내리는 밤을 내다보며 느닷없이 떠오른 고향의 거리며 그리운 오빠에 대해 생각하고있었다고 하는것이였다.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서울사람 특유의 억양으로 이렇게 말하며 너인도 스스럼없이 오빠며 고향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눈물을 머금고 심심히 토설하는것이였다. 그것은 나의 헛걸음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포함한 이 나라의 북과 남으로 갈라진 혈육들이 겪고있는 가슴아픔과 민족이 당하고있는 분단의 비극에 대한 울분의 토로였다.

이날 초면인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한집안식구처럼 친숙해지고말았다.

《고향생각이 나시면 종종 찾아오군하세요...》

헤여질 때 한 너인의 말이였다. 그날 비오는 거리로 돌아오면서 나는 새로 동향사람을 사귄 기쁨보다도 웬일인지 허거프고 서글픈 생각이 자꾸만 들며 까닭없이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요행 비가 내리는것을 기화로 나는 아이처럼 버젓이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걸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으며 그후 명절때면 서로 오가기도 하고 때로 그 집 세대주와 마주앉아 술잔을 나누기도 하군해왔었다.

그 너인의 60돐 생일잔치에 친정오라버니의 자격으로 참석한 나의 심정은 야릇하였다. 기쁘기도 하고 가슴저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명랑하기도 하였으나 그저 웃어넘길수만도 없는

일이였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 《오라버님! 부디 건강하시여 통일된 고향땅에 꼭 가셔야 해요!》하고 잔을 권하며 눈물짓던 그 너인의 모습이 떠오르고 울먹이며 목메이던 그 소리가 귀전에 아직도 쟁쟁하다.

눈물에 젖은 그 말뒤에 숨은 너인의 그 깊은 심정을, 고향의 오라버니와 함께 이 경사스러운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그리고 오라버니 아닌 오라버니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한꺼번에 나누는 이 웃지 못할 깊은 속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나의 가슴도 미여지는듯하였다.

귀여운 손자, 손녀들의 재롱스러운 노래소리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밖에 나오니 밤하늘에서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고있었다. 햇숨같이 부드러운 눈송이로 달아오른 가슴을 식히며 나는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겼다.

인생만년에 가장 경사스럽고 기쁘고 행복스러운 날에조차 가슴저미는 아픔으로 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불행에 대하여... 그리고 그 연원에 대하여...

두말없이 그것은 미국놈들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 분단이며 콩크리트장벽으로 해서 하나의 강토가 허리를 끊겼기때문이다. 조선사람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허나 이러한 비극이 한두해도 아니고 반세기가까이 지속되고있으며 분단의 일세로서 나는 우리 세대가 시대와 력사, 그리고 민중앞에 지닌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깊이깊이 되새겨보게 된다.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이 그림고 생사조차 알수 없는 고향사람들의 소식이 듣고파 잠못이루는 이러한 일이 더는 지속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이러한 길을 다시 걷게 할수야 없지 않는가.

이 나라 사람들이 기쁜 날, 마음속에 한점의 그늘도 없이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한껏 웃을 그날을 하루빨리 당겨오리라. 바로 이것을 위해 나의 생애가 아직 남아있는것이 아닌가.